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석사 학위논문

# 『근역서화징』의 기록학적 연구

2019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기록관리학 전공

이 기 현

## 국문초록

『權域書畫徵』은 20세기 초반에 위창 오세창(葦滄 吳世昌, 1864-1953)이 우리나라 서화가의 이름, 행적, 내력 등을 기록하기 위하여 삼국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역대 서화가 총 1,118명의 인적 정보 및 관련 문헌 기록을 모아 정리한 ‘기록자료집’이다. 서화가를 주제로 하여 체계적으로 編輯한 첫 기록물이라는 점과 후대에도 참고하여 고증할 수 있도록 출처를 밝혀 객관적으로 자료를 서술하였다는 점에서 높은 자료적 가치를 가진다고 평가받는다.

『근역서화징』은 오세창 개인이 출전에서 선별·평가하여 옮겨 적은 것이므로 문헌 기록들의 파편으로 구성된 책이다. 따라서 인용하는 과정에서 원전 기록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오세창이 얼마나 원전에 충실하여 기록을 인용하였는지 파악하기 위해 『근역서화징』의 본문과 원전 내용의 비교·대조를 통해 자료 인용 형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기록학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먼저 『근역서화징』의 전체 구성요소 분석을 통해 기록을 整理하는 기준을 알아보았다. 서화가를 중심으로 편년체로 정리하였고 색인을 만들어 기록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서술 내용 분석을 통해 오세창이 기록을 記述한 방식을 알아보았다. 서술 내용은 오세창이 범례에 제시한 편집체제를 기반으로 하였다. 서술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명과 인적 정보, 특기할 예술 분야, 그를 뒷받침해주는 실증자료, 작품 또는 제발문, 오세창의 개인 의견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음으로 오세창이 정리·기술한 기록들의 선별기준을 파악하기 위해 『근역서화징』의 인용 형태와 층위를 살펴보았다. 그 대상은 서화가를 정리한 인용서에 언급된 화가들을 중심으로 하였다. 그 이유는 서화가를 정리한 인용서에 화가들에 대한 2·3차 인용 자료들이 다양하게 전하기 때문이다. 실증자료 중에서 전체 인용한 문헌 자료는 주로 화가에 대한 평이 드러나는 경향을 보인다. 부분 발췌하여 인용한 문헌 자료는 주로 화가나 그의 그림과 관련된 일화이다. 혹은 화가에 대한 평이 드러나지 않는 제화시의 경우 오세창은 작품의 제목만 인용하고 시는 생략하기도 하였다. 요약의 경우에도 오세창은 출전 기록에서 그림에 관한 평가나 일화가 드러나는 부분만 인용하였다. 따라서 화가에 대한 평과 그림 관련 일화를 위주로 인용하는 것으로 보아 오세창이 『근역서화징』에 서술할 기록을 선별하는 기준은 그림보다 화가에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오세창이 『근역서화징』에 인용한 자료의 간행 상황을 분석하고 오세창이 인용하지 않은 필사본 및 간행된 자료들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당

대 필사본으로 존재하거나 간행되지 않아 오세창이 볼 수 없었던 자료들도 있지만, 당시 볼 수 있었음에도 오세창이 인용하지 않았던 자료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간행본 중에서도 오세창이 인용하지 않은 서화가 자료들은 서화가의 작업 과정을 생생하고 상세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정보들도 있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 『근역서화징』의 저술 목적이 서화가들의 ‘모든 자료’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서화가’를 정리하는 것이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이 인용 형태와 인용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오세창이 『근역서화징』에 인용한 자료는 개별 서화가에 대해서 그림 관련 행적과 내력 위주의 한정적인 정보만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점을 찾아내었다. 하지만 『근역서화징』에는 다른 자료에서 찾아볼 수 없고 『근역서화징』에만 남아있는 서화가 자료들도 있다. 현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인용 자료와 오세창의 개인 의견, 참고문헌 표시가 없는 자료들이 그에 해당한다. 현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인용 자료는 失傳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근역서화징』에 있는 자료가 원전 대신 문헌적 준거로서의 가치를 가진다. 그리고 『근역서화징』에 있는 출전 정보를 바탕으로 원문을 발견할 만한 여지가 있으므로 현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인용 자료 또한 문헌적 증거로서 가치가 있다.

주요어 : 槿域書畫徵, 吳世昌, 書畫家, 인용, 수집, 선별, 정리, 기술, 평가  
학 번 : 2016-24492

##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	1
제 2 절 연구방법 및 범위 .....	5
제 2 장 『근역서화징』의 정리·기술 .....	7
제 1 절 『근역서화징』의 정리·기술 체계 .....	7
제 2 절 『근역서화징』의 기술 내용 .....	10
제 3 장 『근역서화징』의 인용 형태 .....	18
제 1 절 전체 인용 .....	19
제 2 절 부분 발췌 인용 .....	25
제 3 절 요약 인용 .....	33
제 4 절 변형 인용 .....	36
제 4 장 『근역서화징』의 인용 자료 .....	40
제 1 절 인용 자료 전체 분석 .....	40
제 2 절 『근역서화징』 외 현전 서화가 기록 .....	45
제 3 절 『근역서화징』 유일 서화가 기록 .....	56
제 5 장 결론 .....	60
부록 .....	63
참고문헌 .....	94
Abstract .....	98

## 표 목 차

[표 1] 『근역서화정』에 있는 鄭澈 관련 자료의 서술 내용 .....	11
[표 2] 오세창이 『근역서화정』에 인용한 위창문고 장서 목록 .....	44
[표 3] 『근역서화정』 외에 현전하는 鄭澈 관련 기록 .....	46
[표 4] 현전 여부를 알 수 없는 『근역서화정』 인용 문헌 .....	57
[표 5] 『근역서화정』 기록 중 오세창 개인 의견 .....	58
 [부표 1] 『근역서화정』의 채용군서목 .....	63
[부록 2] 『근역서화정』 외에 현전하는 鄭澈 관련 기록 .....	71
[부록 2-1] 오세창 생전에 간행되지 않은 필사본 기록 .....	71
[부록 2-2] 출전목록에 있으나 인용되지 않은 간행본 기록 .....	77
[부록 2-3] 출전목록에도 없고 인용되지도 않은 간행본 기록 .....	81
[부표 3] 『근역서화정』 외에 전하는 정선의 작품 목록 .....	84

# 제 1 장 서론

## 제 1 절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槿域書畫徵』은 20세기 초반에 위창 오세창(葦滄 吳世昌, 1864-1953)이 우리나라 서화가의 이름과 행적과 내력을 기록하기 위하여 삼국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역대 서화가 총 1,118명의 인적 정보 및 관련 문헌 기록을 모아 정리한 기록자료집이다. 오세창은 고종 1년(1864)년 음력 7월 15일 지금의 을지로 부근인犁洞에서 漢語譯官 오경석(吳慶錫, 1831-1879)의 외아들로 태어났다. 오세창이 『근역서화징』을 저술한 시기는 1916년 12월 매일신보에 게재된 만해 한용운(萬海 韓龍雲, 1879-1944)의 방문기에 의하면 191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1916년에는 이미 『근역서화징』 정리가 많이 진행되고 있었다.<sup>1)</sup>

오세창은 아깝게도 흠어지고 없어진 게 많아서 이를 주워 모아 차례로 엮었다고 『근역서화징』 범례에 저술 동기를 밝혔다. 오세창은 서화가와 관련된 기록 자료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근역서화징』 본문의 각 인용 구절마다 출처를 되도록 모두 밝혔다. 이러한 특성은 제목에서 잘 드러난다. 오세창이 1917년에 上·中·下 3권의 『槿域書畫史』라는 제목으로 필사본을 완성하였던 것을 1928년 5월 15일에 활자본으로 출판할 때는 『근역서화징』으로 제목을 수정하였다. 그는 서명에 ‘소집하다, 거두다, 증명하다, 검증하다’라는 의미의 ‘징(徵)’이라는 글자를 사용함으로써 이 책이 개인적인 의견을 서술하기보다는 사료를 되도록 그대로 인용하려 노력한 점을 드러내려 했다고 직접 언급하였다.

이처럼 『근역서화징』은 오세창이 최초로 우리나라 서화가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여 객관적 태도로 기술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제작한 것이다. 『근역서화징』이 출간되기 이전에도 우리나라 서화가를 정리한 문헌들이 있는데 이를 간행된 순서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慵齋叢話』부터 『龍泉談寂記』, 『松泉筆談』, 『聽竹漫錄』의 「聽竹畫史」, 『石農畫苑』, 『燃藜室記述』 別集의 「文藝典故」, 『熱河日記』의 「洌上畫譜」, 『東國文獻』의 筆苑篇·畫家篇, 『壺山外史』, 『里鄉見聞錄』의 書畫篇, 『藝林甲乙錄』, 『海東號譜』, 『震彙續攷』 등이 있다.<sup>2)</sup>

1) 홍선표(1998), 「吳世昌과 『槿域書畫徵』, 『국역 근역서화징』, 시공사(1998)」, 『미술사논단』 7, 333쪽; 홍선표(2001), 「한국미술사학의 초석: 오세창(1864-1953)의 『근역서화징』, 『葦滄 吳世昌』, 예술의전당, 200쪽; 이승연(2003), 「葦滄 吳世昌의 實學的 藝術觀研究」, 원광대학교 불교학과 대학원 박사논문, 89쪽

2) 『근역서화징』에 인용된 바에 의하면 『東國文獻』의 筆苑篇·畫家篇과 『海東號譜』,

위의 문헌들의 체계와 규모를 시대적으로 가장 이른 것부터 간략하게 살펴보면, 성현(成俔, 1439-1504)이 저술한 『용재총화』에는 전체 10권 중 제 1권의 일부에 약 22명의 서화가 정보가 있다. 『용천담적기』는 김안로(金安老, 1481-1537)가 쓴 목차 구분 없는 하나의 글이다. 김안로는 그 글의 일부분에 중국 화가 79명과 우리나라 화가 7명의 정보를 나열하였다. 『송천필담』은 심재(沈粹, 1624-1693)가 지은 필기잡록으로 총 9명의 화가에 대한 평을 간략하게 언급한 것이다. 「청죽화사」는 남태웅(南泰膺, 1687-1740)의 저서인 『청죽만록』의 별책 『聽竹別識』의 맨 뒷부분에 들어있는 「畫史」, 「三畫家論評」, 「畫史補錄」 上·下를 칭한다.<sup>3)</sup> 총 57명의 화가를 대상으로 간략하게 이름과 인적 정보, 잘 그린 분야만을 언급하거나 특정 화가는 자세한 화평과 일화를 함께 신기도 하였다. 이궁익(李肯翊, 1736-1806)이 저술한 『연려실기술』은 별집 14권의 「文藝典故」 ‘화가’ 편에 약 89명의 화가 관련 기록이 있다. 박지원(朴趾源, 1737-1805)의 『열하일기』에는 「關內程史」 편 ‘例上畫譜’에 16명의 화가의 이름과 호, 간략한 설명 그리고 그림 제목이 남아있다. 서유구(徐有渠, 1764-1845)의 『임원경제지』에는 「怡雲志」 편 ‘東國畫帖’에 우리나라 화가와 작품을 짝지어 해설한 것이 19점 있다. 金淨부터 李慶胤, 李霆, 李澄, 鄭澈, 沈師正, 尹德熙, 崔北, 李匡師, 姜世晃, 金弘道, 李命基, 李寅文까지 총 13명인데 이 가운데 정선의 그림 3점, 심사정의 그림 2점, 김홍도 그림 4점 등에 관한 해설이 있고 그 외에는 1점씩 해설이 있다. 『호산외사』는 조희룡(趙熙龍, 1789-1866)이 저술한 책으로 총 42인의 委巷人에 대한 일화 중 화가 崔北와 林熙之, 金弘道, 李在寬, 田琦 5명의 전기가 있다. 유재건(劉在建, 1793-1880) 저술의 『이향견문록』에는 전체 10권 중 8권에 서화편이 있으며 47명의 서화가를 다루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화가를 정리한 문헌 중 서화 작품 총합 도록인 『석농화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문헌의 별집 혹은 일부에 서화가 관련 기록이

---

『震彙續攷』 또한 우리나라 서화가를 정리한 문헌으로 보이지만 『근역서화징』에 인용된 원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 외에 『畫士譜略』, 『畫工派別』, 『圖畫署案』, 『寫字廳案』도 『근역서화징』에 인용된 바에 의하면 도화서 화원, 화공승려, 사자관 등의 인명을 정리한 문헌으로 보이지만 현재까지는 전하는 원문이 없어 서지사항 및 원전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 3) 『청죽만록』은 『근역서화징』과 『연려실기술』 별집 「문예전고」와 같은 2차 자료에 의해 재인용 되어 왔을 뿐 그 전모를 알 수 없었다. 1990년에 유홍준이 「청죽화사」가 『청죽만록』에 들어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야 「聽竹衲被雜識」, 「論東方文章」, 「畫史」, 「三畫家論評」, 「畫史補錄」 上·下로 구성된 『聽竹別識』 중 「畫史」, 「三畫家論評」, 「畫史補錄」 上·下の 글을 통틀어서 「聽竹畫史」라고 지칭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이태호·유홍준(1992), 『조선후기 그림과 글씨: 仁祖부터 英祖年間의 書畫』, 학고재, 137-138쪽 참고



있는 구조이다. 이 문헌들 중 『근역서화징』처럼 한국 서화가 관련 기록을 독립적으로 다룬 자료집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근역서화징』이 현존하는 최초의 한국 미술사 관련 자료집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서화가의 이름과 행적, 내력을 모두 기록하기 위해 만들어진 『근역서화징』은 수많은 인용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어 후대 한국 미술사·서예사 연구에 없어서는 안 될 서화가 관련 문헌 자료의 寶庫가 되었으며 자연스럽게 연구의 토대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최초, 최대의 서화가 자료집이자 후대 미술사·서예사 연구를 집성하기 위한 기록의 토대로서 『근역서화징』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한국 미술사·서예사 연구에 참고하는 문헌으로서 『근역서화징』의 문헌적 가치를 조명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이승연은 광복 이후 한국미술사학 연구 저서들이 『근역서화징』을 근간으로 출간될 수 있었다고 하였다.<sup>4)</sup> 홍선표 또한 『근역서화징』이 한국 회화사와 서예사의 골격을 보여주는 최초의 자료라는 점에 주목하였다.<sup>5)</sup> 그는 또 다른 논문에서 이 책이 우리나라 서화가들의 譜錄이 되길 바란다는 오세창의 편찬 의도를 강조하였다.<sup>6)</sup>

『근역서화징』은 우리나라 서화가들의 자료를 최대한 많이 모은 책이라는 점에서 미술사·서예사 연구에 공헌한 바가 크다. 오세창이 흠어져 없어질 위험에 처한 서화가 문헌 자료들을 최대한 수집·정리하여 후대에 전해 준 업적은 주목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근역서화징』은 원본 기록이 아니라 오세창 개인이 출전에서 선별·평가하여 옮겨 적은 것이다. 즉, 『근역서화징』은 오세창이 원전 문헌 기록들을 과편화하고 가공하여 구성한 책이다. 그에 따라 인용하는 과정에서 원전 기록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근역서화징』 기록이 생산·수집·활용 단계를 거쳐 가공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기록학적 관점에서의 선행연구는 미비한 상황이다.

그동안 『근역서화징』이 한국 미술사·서예사 연구의 자료 제공처로서 역할 한 바가 크기 때문에 이 책이 해당 학문의 개설에 기여해 온 측면을 부각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근역서화징』이 한국 회화사와 서예사의 기초 토대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근역서화징』의 기록을 문헌적 증거로 참고하기 위해서는 기록의 속성 중 신뢰성·무결성 측면에서 유의해야 한다. 오세창이 『근역서화징』에 객관적 사실만을 옮기려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수많은 자료를 정리·기술하는 과정에서 원문을 생략·요약하거나 혹은 기록에 변형을 주었기 때문이다.

---

4) 이승연(2000), 「제 3장 편저에 대한 고찰 (3)한국서화사 연구에 미친 영향」, 『위창 오세창』, 이회문화사, 69-70쪽

5) 홍선표(2001), 위의 책, 201쪽

6) 홍선표(1998), 위의 논문, 334쪽

그 외에 서예학 분야에서 『근역서화징』과 그에 인용된 인용문을 출전과 비교하여 검증한 연구로는 『東國金石評』의 원전과 대조하는 작업을 통해 인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기록의 오류를 검증한 이규복의 논문이 있다.<sup>7)</sup> 그러나 이 연구는 『동국금석평』에 한정하여 『근역서화징』 기록의 오류를 분석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오세창이 기록의 성격마다 의도적으로 인용 형태를 달리하였을 가능성은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근역서화징』은 기록의 서술 내용에 따라 인용 형태가 다른 점이 발견되며 오세창이 원전에서 서화가에 관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선별하거나 요약한 것 또한 발견된다. 이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인용하려 한 오세창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그가 『근역서화징』에 인용한 문헌 저자들의 기록 선별기준 혹은 오세창 본인의 기록 선별기준이 적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근역서화징』에 인용된 문헌들은 1차 사료와 2차, 3차 사료들로 다양하다는 특징이 있다. 오세창이 1차 사료를 보고 『근역서화징』에 직접 인용한 자료들도 있지만 2차 사료로 가공된 상태의 자료를 재인용한 것도 있다.<sup>8)</sup> 이 과정에서 본래의 원문 내용을 온전히 담지 못하기도 하였다. 『근역서화징』을 편찬하던 당시 오세창이 접할 수 있었던 자료 범위는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원본 혹은 원문 고증에도 한계가 있어 재인용한 자료들도 간혹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오세창은 『근역서화징』에 1차 사료만 인용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는 2차 사료도 재인용하여 정리하였기 때문에 인용하는 과정에서 기록이 원전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오세창이 얼마나 원전에 충실하여 기록을 인용하였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근역서화징』의 본문과 원전 내용의 비교·대조를 통해 자료 인용 형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기록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용 형태와 층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근역서화징』의 인용 형태 및 인용서목에 주목하였다. 본 논문의 최종적인 목적은 오세창이 整理·記述한 『근역서화징』의 기록이 얼마나 믿을만한지 평가하여 『근역서화징』이 앞으로의 연구자들에게도 신뢰할 수 있는 서화가 기록의 寶庫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7) 이규복(2005), 「原文對照를 통해 본 『槿域書畫徵』의 誤謬考察」, 서예학연구 제 7호

8) 1차 사료는 원서(原書)를 말하는 것으로 『삼국사기』나 『고려사』가 이에 해당한다. 2차 사료는 원서를 전재(轉載)한 것으로 『동국문헌비고』나 『연려실기술』, 『대동야승』 등이 있다.

## 제 2 절 연구방법 및 범위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서화가 기록을 최초로 가장 많이 정리한 책인 『근역서화징』을 기록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근역서화징』이 우리나라 서화가 관련 기록을 얼마나 포괄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궁극적으로는 『근역서화징』이 미술사·서예사 연구의 바탕이 되기 위한 문헌적 준거 자료로써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술 체계에 관한 연구와 인용 형식에 관한 연구를 병행하였으며, 그 방식은 문헌연구와 실증자료 비교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아래와 같다.

먼저 『근역서화징』의 서술 체계를 통하여 오세창의 정리(整理) 방법을 고찰하였다. 『근역서화징』의 서술 체계는 오세창이 명시한 범례를 기반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오세창이 『근역서화징』에 서술한 기록의 종류를 알 수 있으며, 『근역서화징』에 있는 자료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인용 형태를 분석하는 연구로써, 출전에서 자료를 인용하면서 내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출전 원문과 『근역서화징』에 인용된 문헌 자료를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문헌 자료 내용의 성격마다 인용 형태가 달라지며, 이러한 작업에는 오세창의 기록 선별기준이 반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근역서화징』에 인용된 서화가 관련 문헌 자료를 현전 문헌들의 간행 상황과 비교하여 『근역서화징』이 포괄하는 문헌 자료의 양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비교 분석과 더불어 『근역서화징』에 없지만 현전하는 자료와 『근역서화징』에만 있는 자료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최대의 서화가 자료집인 『근역서화징』의 기록학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먼저 2장에서는 『근역서화징』의 전체 구성과 편집체제를 정리할 것이다. 다음으로 편집체제를 토대로 서술 내용을 파악하고 각 서술 내용의 성격과 그 분류 방식의 기준에 대하여 『근역서화징』 기록의 구체적인 문헌연구를 통해 개괄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는 오세창이 『근역서화징』에 포함하고자 한 기록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3장에서는 『근역서화징』의 서술 내용 중 인용 기록들을 출전 원문과 비교하여 인용 형태를 분석하고, 각 인용 형태별 자료의 성격을 서술 내용을 토대로 유형화하여 제시할 것이다. 이를 통해 오세창이 출전 원문을 모두 그대로 인용하는 방식만 쓴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변형하여 인용하였음을 밝히고 그러한 인용 방식을 사용한 이유를 추론할 것이다.

4장에서는 우선 『근역서화징』에 인용한 문헌을 종류별로 분석한 후에 오세창

의 개인 소장 서적들을 모아 둔 위창문고와 비교하여 오세창의 기록 수집·선별 기준과 그 배경을 추론하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근역서화징』 외 현전 서화가 기록을 살펴보면서 오세창이 『근역서화징』에 인용한 자료가 포괄하는 문헌 자료의 상황을 파악할 것이다. 그리고 현전 자료의 간행 상황과 『근역서화징』에 인용된 서화가 관련 문헌 자료를 비교하여 오세창이 인용하거나 인용하지 못한 이유를 추론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근역서화징』에 없지만 현전하는 자료와 『근역서화징』에만 있는 자료를 연구하여 『근역서화징』의 기록학적 가치를 평가하고자 한다.

## 제 2 장 『근역서화징』의 정리·기술

### 제 1 절 『근역서화징』의 정리·기술 체계

『근역서화징』의 정리 체계를 살펴보기에 앞서 책의 전체 구성요소를 기록학적 관점에서 파악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구성은 순서대로 引, 凡例, 目錄, 年代便覽, 採用群書目, 人名總目, 新羅부터 高麗, 朝鮮 上·中·下 본문, 待考錄, 增錄, 氏名字音·字畫檢索, 別號字音·字畫檢索으로 되어있다. 각각의 항목을 살펴보면, 引은 序文과 같은 역할로 오세창은 引에서 『근역서화징』의 저술 동기와 목적을 밝혔다. 凡例에서는 기술 대상과 수집 대상이 되는 기록, 기술 방식 및 편집체제 등을 언급하였다. 기록학적 관점에서는 편저자의 수집 전략과 기술 요소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다. 目錄에는 본문 5편을 포함하여 책의 전체 구성요소의 제목을 적었다. 年代便覽에는 신라부터 조선까지의 왕조를 순서대로 나열하고 재위 기간을 표시하였다. 시대적 기준을 제시하여 서화가를 생년 순으로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기록을 나열하는 기준이 편년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採用群書目은 본문에 인용한 문헌들의 서명과 저자를 저자 생년이 이른 순서대로 정리한 인용서 목록이다. 『근역서화징』을 구성하는 기록의 출처가 명확히 드러나므로 『근역서화징』 기록을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것은 기록의 속성 중 신뢰성을 충족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다. 人名總目에는 본문의 서화가를 新羅篇부터 高麗, 朝鮮 上·中·下篇까지 각각 생년을 순서로 人名과 잘하는 분야를 그림(●), 글씨(○), 그림과 글씨(●○)의 略號를 사용하여 분류하였다. 이것은 편년체 정리 방식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서화가를 분류하는 정리 방법이다. 인명총목 다음으로는 新羅부터 高麗, 朝鮮 上·中·下 본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근역서화징』의 기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것은 기록의 무결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을 통해 기록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원기록을 이용하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sup>9)</sup> 본문에 이어 등장하는 待考錄에는 기본 인적 정보를 확실하게 파악할 수 없는 서화가를 적어 후일에 누군가가 상고하여 채워 넣을 수 있도록 하였다. 增錄은 『근역서화징』을 탈고하는 사이에 죽은 서화가들을 따로 적은 목록이다. 마지막으로 姓과 이름, 雅號를 음과 획수로 나누어 검색할 수 있도록 氏名字音·字畫檢索, 別號字音·字畫檢索과 같은 검색 도구를 만들어 넣었다. 기록학적 개념으로는 기록 검색 도구의 일종인 索引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편저자의 입장에서 기록을 물리

9) 한국기록학회 엮음(2008), 『기록학 용어 사전』, 역사비평사, 63-64쪽

적·지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측면에서도 원하는 기록을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것은 『근역서화징』이 기록의 속성 중 이용가능성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용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근역서화징』 기록을 제공하고자 하였던 저자의 편찬 의도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다음으로 오세창이 『근역서화징』의 본문에 해당하는 신라, 고려, 조선 상·중·하 부분을 정리(整理, arrangement)한 방식을 알아보기 위해 각 서화가 항목의 기술 요소를 분석하였다. 기술 요소를 분석하기 위해 오세창이 『근역서화징』 범례에 제시한 편집체제<sup>10)</sup>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성명 앞에 서예에 능한 경우(○), 그림에 능한 경우(●), 서예와 그림 모두에 능한 경우(●)를 표시한 후에 성명을 적는다.
- 그 뒤로 본문 첫 줄에는 인용 문헌 표시 없이 덕망과 아호, 본적, 그 집안 내력과 연대, 과거, 벼슬, 죽은 나이를 적는다.
- 다음 줄에 특기할 예술 분야를 기록하고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뒷받침한다. 또 그 뒤에 “그 비단에 쓰고 그린 것, 金石에 새긴 것, 當世에 이름난 것, 지금까지 流傳해 내려온 것” 등의 작품을 열거한다.
- 사실을 들어 적은 것은 반드시 출처를 적었다. 실증자료 기록의 차례는 인용한 책과 저자의 연대 순서를 따르며 상고할 수 없는 기록은 맨 끝에 위치하였다.
- 오세창의 개인적인 의견은 앞의 기록들과 달리 한 자를 내려서 줄을 달리하여 적었다.

이와 같은 편집체제를 바탕으로 기술 요소를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는 화가의 인적 정보 그리고 두 번째는 특기할 예술 분야, 세 번째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실증자료, 네 번째는 작품 또는 제발문, 마지막으로 오세창의 개인 의견 총 다섯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각 기술 요소의 명칭에 대한 개념을 정의해보면, 첫 번째로 인적 정보는 오세창이 범례에 명시한 편집체제 중에서 덕망과 아호, 본적, 그 집안 내력과 연대, 과거, 벼슬, 죽은 나이 등을 표시한 부분을 말한다. 오세창이 인적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던 몇 명의 경우를 제외하고 인적 정

10) 오세창, 『槿域書畫徵』, 凡例, 編錄之體 首以標圈 書畫俱工則圓圈而墨其左弦 徒圈以標工書 盡墨其圈之內 以表工畫 次以姓名 又次以表德雅號籍貫家世年代科宦卒年之概 又次以所藝然後 舉事實以該之 其有絹綃之染 金石之刻 名著當世 流傳至今者 又爲之備列于後 欲使覽者 得其事而并知其名世之迹也 凡有所舉 必著所出 加之弧而別之 舉錄之第以所引之書 作者之年代 爲次 作者 或不可考則末見之 至考按群籍 略識己意則低一字別行以附之; 영인본: 오세창(1928), 계명구락부, 1쪽/ 번역본: 한국미술연구소(2001), 『국역 근역서화징』, 시공사, 3쪽(이하 ‘영인본 #쪽/ 번역본 #쪽’으로 표시)

보는 주로 화가의 성명 바로 다음 줄에 등장한다. 두 번째로 특기할 예술 분야를 적었는데 이는 각종 보록 및 인물지, 인물사전, 인물 목록에서 가져왔다. 채용군서목 중 『名臣攷』, 『國朝人物考』, 『震彙續攷』, 『簪纓錄』, 『國朝文科榜目』, 『寫字廳案』, 『圖書署案』, 『畫士譜略』 등의 문헌에서 서화가들의 특기할 만한 예술 분야 기록을 옮겨 적었다. 혹 위 문헌들에 정보가 없는 서화가들은 문집 속 傳記나 年譜 등에 있는 각 서화가에 대한 문헌 자료로 대신하였다. 세 번째로 실증자료는 특기할 만한 예술 분야 기록을 뒷받침해주는 문헌 자료들로 각종 문집과 시 모음집, 일기, 평론집 등에 있는 화가 관련 일화나 화평<sup>11)</sup> 등을 말한다. 네 번째로 작품 또는 제발문은 작품의 제목과 제발문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작품 제목은 『熱河日記』의 「冽上畫譜」 또는 『古畫備考』 등에 남아있는 것을 옮겨왔고 제발문은 화첩이나 그림 등에 남아있는 題畫詩와 跋文을 포함하여 각종 문집에 남아있는 제발문도 있다. 다섯 번째로 오세창의 개인 의견은 문헌에서 인용한 것이 아닌 오세창이 직접 보고 들어서 아는 바이다. 범례에 따르면 오세창의 개인 의견은 앞의 인용 기록들과 줄도 구분하여 썼다.

이와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다음 절에서는 『근역서화징』에 있는 한 화가의 기록을 예로 들어 기술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

11) 화평은 화가 관련 일화나 제발문에 모두 등장한다. 화가 관련 일화에는 주로 세간의 평이 담겨있고 제발문에는 그 작품에 대한 평이 담겨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제 2 절 『근역서화징』의 기술 내용

기술(記述, description)<sup>12)</sup>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예시로 선택한 화가는 韓國畵를 대표하는 화가 중 한 명인 겸재 정선(謙齋 鄭敼, 1676-1759)이다. 정선을 선택한 이유는 당대 유명한 화가 중 한 명으로서 계파를 막론하고 다양한 사람으로부터 그림 의뢰가 많았고<sup>13)</sup> 그림에 쓴 제발문을 포함하여 그의 그림에 대한 화평 기록 또한 조선 말기에 생산된 것까지 다수 현전<sup>14)</sup>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작품과 문헌 자료가 다수 전하는 상황을 바탕으로 오세창은 『근역서화징』에 정선과 관련한 다양한 기록들을 인용할 수 있었다. 『근역서화징』에 있는 모든 서화가 항목에 다섯 가지 기술 내용에 해당하는 자료들이 모두 갖추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반면 『근역서화징』에 있는 정선 관련 자료들은 다섯 가지 기술 내용이 모두 갖추어져 있어 기술 내용을 설명하는 예시로 살펴보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오세창이 『근역서화징』에 인용한 정선 관련 자료들의 기술 내용을 분류하여 다음의 <표 1>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정리 기준은 편집체제에 명시한 기술 내용의 종류별로 하되, 각 기술 내용 내에서 출전을 나열하는 순서는 오세창이 『근역서화징』 정선 條에 기술한 출전 순서를 따랐다.

---

12) 기술(記述)은 기록학 용어로서 기록을 위한 검색·접근 도구를 생산하는 과정이나 그 결과물을 의미한다. 기술을 통해 기록의 생산 맥락을 파악하기에 유용할 뿐만 아니라 기록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원 기록을 이용하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 위 내용은 한국기록학회 엮음(2008), 『기록학 용어사전』, 역사비평사, 63-64 쪽 참고

13) 오연주(2010), 「조선후기 문인들의 정선 회화에 대한 화평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오연주(2013), 「정선의 작가상에 대한 조선시대 문인들의 계파별 평가」, 『겸재와 미술인문학 연구』, 겸재정선기념관 학술연구지 창간호 1

14) 고연희(1999), 「조선후기 山水紀行文學과 紀遊圖의 비교연구 - 農淵그룹과 鄭敼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유승민(2018), 「겸재 정선의 회화를 비평하는 층위들-《司空圖詩品帖》과《謙齋鄭敼畵帖》의 비평을 중심으로」, 『겸재정선미술관 학술자료집』 10



<표 1> 『근역서화징』에 있는 정선 관련 자료의 기술 내용

기술 내용의 종류		출전 서명
인적 정보		근역서화징 - 조선 下 정선(첫 줄)
특기할 예술 분야		『東國文獻』 화가편 『震旦人物』
실증 자료		『老稼齋集』 『稼齋燕行錄』 『風謠續選』 『松泉筆談』 「朴師錫詩」
작품명 · 제발문	작품명	『熱河日記』
	제발문	《謙齋畫帖》 - 이병연 題跋
		《검재화첩》 - 강세황 題跋
		『月谷集』
		『蒼霞集』
		『楓臯集』 - 題 검재화첩
		『錦石集』 卷之八 - 記 卷之三 - 詩
		『金臺鴻雪』
		『松湖集』 - 검재화첩 跋
		《謙玄合壁畫冊》 - 신위제검현합벽화책발
오세창의 개인 의견		『근역서화징』 - 조선 下 정선(마지막 줄)

## 1. 인적 정보

정선의 인적 정보는 첫 줄에 등장하는데 자, 호, 본관, 집안 내력, 연대, 과거, 벼슬, 생몰년 등의 정보가 있으며 『圖說經解』를 지었다는 내용도 있다.<sup>15)</sup> 이것은 오세창이 화가의 행장이나 연보, 족보 등을 참고하고 그 내용을 추려서 적은 것이다. 그는 『근역서화징』에 신라 7명 중 7명, 고려 47명 중 17명, 조선 上 88명 중 18명, 조선 中 114명 중 3명, 조선 下 219명 중 5명의 화가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425명의 화가에 대한 인적 정보를 정리하였다. 인적 정보를 적지 못한 것은 그 화가에 대해 남아있는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이므로 오세창이 인적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화가는 가능한 모두 인적 정보를 적으려 했음을 알 수 있다.

## 2. 특기할 예술 분야

오세창은 『東國文獻』의 「畫家篇」과 『震但人物』에서 정선이 “산수를 잘 그렸다.”<sup>16)</sup>는 사실을 인용하였다. 현재 남아있는 『동국문헌』 여러 판본 중에서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一簣文庫本 『동국문헌』의 「화가편」에는 “鄭叡 元伯 謙齋”라고 이름과 字, 號만 적혀있을 뿐 정선이 잘했던 그림 분야에 관한 내용은 없다. 또한 『동국문헌』에서 『근역서화징』에 인용한 화가 중에서 趙榮祐, 李寅文 등의 정보가 『동국문헌』에는 없었다.

『근역서화징』에는 『동국문헌』의 기록을 바탕으로 각 화가의 특기할 예술 분야를 옮긴 것이 고려 7회, 조선 초기 21회, 조선 중기 52회, 조선 후기 22회로 총 102명의 화가 정보가 등장한다. 하지만 일사문고본 「화가편」에는 정선을 포함하여 전체 약 31명의 화가들 이름과 간단한 인적 정보가 적혀있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葦滄文庫本에는 「筆苑篇」만 남아있고 목록에도 「화가편」이 아예 포함되어 있지 않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義山文庫本과 東谷文庫本에는 목록에 「화가편」이 있지만 해당 권이 소실되어 확인할 수 없다.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고전

15) 오세창, 위의 책, 권5, 鄭叡 條(화가의 인적 정보), 字元伯 號謙齋 一云蘭谷 光州人 時翊子 肅宗二年丙辰生 官縣監 以壽陞職 英祖三十五年己卯卒 年九十四 嘗述圖說經解; 영인본 165쪽/ 번역본 653쪽

16) 오세창, 위의 책, 권5, 鄭叡 條(『동국문헌』, 『진단인물』), 善山水; 영인본 166쪽/ 번역본 653쪽

적종합목록에 의하면 현재 『동국문헌』은 전국·해외 각지에 94종이 산재해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心岳文庫本 『동국문헌록』에도 규장각 일사문고본 『동국문헌』 「화가편」과 같은 「화가편」이 남아있다. 따라서 94종의 『동국문헌』과 서명이 『동국문헌』이 아니지만 유사한 책들 중 오세창이 『근역서화징』 편찬에 참고한 판본과 같은 것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

### 3. 실증 자료

오세창이 『근역서화징』에 인용한 실증 자료로는 『老稼齋集』과 『稼齋燕行錄』, 『風謠續選』, 『松泉筆談』, 「朴師錫詩」가 있다. 김창업(金昌業, 1658-1721)의 『노가재집』에서는 신정보가 北幕으로 부임하는 것을 전송하는 시를 인용하였는데 그 내용에 “정생의 그림과 일원의 시는 금강산이 생긴 뒤로 처음 보는 좋은 솜씨다”<sup>17)</sup>라는 평을 인용하였다. 『가재연행록』에서는 정선과 조영석, 李穰의 산수화와 尹斗緒의 인물화 중에서 정선의 그림이 가장 뛰어나다고 평한 馬維屏의 일화<sup>18)</sup>를 보고 적은 내용을 인용하였다. 『風謠續選』에서 인용한 부분은 운하 노인이 정선이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시로 읊은 것이다. “정선이 그림을 그리고 나니 해가 산을 넘어갔다.”<sup>19)</sup>라는 시간적 흐름을 나타내는 시어를 사용하여 정선이 그림을 그리던 상황을 묘사하였다. 심재(沈粹, 1624-1693)의 『松泉筆談』에서는 “검재 정선의 산수는 건장하고 웅혼하며 끝없이 넓고 무르녹게 되었다”<sup>20)</sup>는 정선 관련 내용을 인용하였다. 「朴師錫詩」는 박사석(朴師錫, 1713-1774)이 남긴 정선의 挽辭이다. 그 내용은 정선이 그림으로 세상에서 유명했다는 것이고 詩書畫 三絶이라 일컬어졌던 “唐 鄭虔이 정선보다 한 수 아래”<sup>21)</sup>라고 평가하며 정선의 그림 실력을 극찬하는 것이다.

17) 오세창, 위의 책, 권5, 鄭散 條(『노가재집』), 鄭生之畫一源詩 自有金剛無此奇; 영인본 166쪽/ 번역본 653쪽

18) 오세창, 위의 책, 권5, 鄭散 條(『가재연행록』), 鄭生散趙生榮祐李穰山水尹斗緒人物 有所持來者 皆出示馬維屏 維屏以鄭畫爲勝 遂與之; 영인본 166쪽/ 번역본 653-654쪽

19) 오세창, 위의 책, 권5, 鄭散 條(『풍요속선』), 雲下翁 過謙齋鄭公幽居曰亂樹中間一草家 柴門深處有秋花幽人獨倚烏皮几寫了青山未日斜; 영인본 166쪽/ 번역본 654쪽

20) 오세창, 위의 책, 鄭散 條(『송천필담』), 鄭謙齋之山水 壯健雄渾 浩汗淋漓; 영인본 167쪽/ 번역본 657쪽

21) 오세창, 위의 책, 권5, 鄭散 條(「박사석시」), 挽鄭謙齋散曰 世稱名畫必謙翁 理本河圖後素功 東國百年無此手 鄭虔三絶下斯風 丹青餘事人非俗 淡泊靈臺孰寫公 八十壽長名亦久 高山流水可相終; 영인본 167쪽/ 번역본 658-659쪽

#### 4. 작품명·제발문

오세창이 『근역서화징』 정선 條에 작품과 관련하여 인용한 문헌으로는 박지원(朴趾源, 1737-1805)의 『熱河日記』 「冽上畫譜」가 있다. 여기에서 인용된 작품 제목은 〈春山登臨圖〉, 〈山水圖〉, 〈四幅四時圖〉 8폭, 〈大隱巖圖〉<sup>22)</sup>이다. 그와 더불어 정선이 80여 세라는 고령의 나이에 도 진지한 태도로 그림 작업에 임하는 모습<sup>23)</sup>을 묘사한 내용도 함께 인용하였다.

제발문은 정선 條에 인용한 문헌 중 『謙齋畫帖』, 『月谷集』, 『蒼霞集』, 『楓臯集』, 『錦石集』, 『金臺鴻雪』, 『松湖集』, 『申韋題謙玄合璧畫冊跋』에 있다. 그 중 『월곡집』, 『창하집』, 『금석집』 뒷부분, 『금대홍설』에서 인용한 부분은 ‘題...圖’로 시작하는 시이므로 제화시로 분류할 수 있다. 나머지 이병연이 쓴 《검재화첩》 발문과 강세황이 쓴 《검재화첩》 발문, 『풍고집』, 『금석집』 앞부분의 〈山水圖〉記, 『송호집』, 「신위제겸현합벽화책발」은 발문이다. 발문은 그림에 관한 글인데 “...題跋 曰(...그림에 발문을 쓰기를)”과 같은 형식을 취하지만 내용상으로는 그림에 대한 감상뿐만 아니라 화평이나 화가 관련 일화, 화가의 인적 정보 또는 화제를 쓰게 된 연유 등을 함께 담고 있기도 하다.

먼저 각각의 제화시를 살펴보면 오원(吳琰, 1700-1740)의 문집인 『월곡집』의 제화시는 정선의 〈松下問師圖〉에 쓴 것이다. 그림에 관한 내용보다는 土固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 路資로 쓸 수 있게 한다는 내용<sup>24)</sup>이 주를 이룬다. 원경하(元景夏, 1698-1761)의 『창하집』 제화시는 吳琰이 소장한 정선의 〈산수도〉에 쓴 것인데 내용은 화자가 그림 안에서 노니는 듯한 묘사가 주를 이룬다.<sup>25)</sup> 박준원(朴

22) 오세창, 위의 책, 권5, 鄭敼 條(『열하일기』), 冽上畫譜有謙齋靑山登臨圖山水圖四幅四時圖八幅大隱巖圖 謙齋年八十餘眼掛數重鏡燭下作細畫不錯毫髮; 영인본 167쪽/ 번역본 658쪽

23) 오세창, 위의 책, 권5, 鄭敼 條(『열하일기』), 冽上畫譜有謙齋靑山登臨圖山水圖四幅四時圖八幅大隱巖圖 謙齋年八十餘眼掛數重鏡燭下作細畫不錯毫髮; 영인본 167쪽/ 번역본 658쪽

24) 오세창, 위의 책, 권5, 鄭敼 條(『월곡집』), 余有鄭元伯 敼 寫松下問師圖 爲土固袖去 仍索題語 遂成短章 兼贐南歸之行 曰 雲山一幅鄭君筆 送爾携歸錦水濱 他日山中採芝曲 白雲深處好藏身; 영인본 166쪽/ 번역본 654-655쪽

25) 오세창, 위의 책, 권5, 鄭敼 條(『창하집』), 戲題吳伯玉所藏鄭敼畫山水曰島嶼出沒水如環 西風放歌望靑山 鄭敼山水世所稱 惟然坐我楓林間 涼雨蕭蕭雁高飛 江山秋色今已晚 水墨淋漓吐雲煙 滿堂動色望翠巘 主人久棄蛛網裡 今日拂拭曝秋陽 指點空羨畫中人 臥看湖山秋月光 爾獨胡爲落塵寰 少年靑衫映黑髮 安得招來水雲 金鱗共釣馬巖石; 영인본 166쪽/ 번역본 655쪽

準源, 1739-1807)의 『금석집』은 박준원이 소장한 정선의 <산수도>에 쓴 기문과 <金剛圖扇>에 쓴 시가 있다. 그 중에서 <금강도선>에 쓴 제화시만 살펴보면 박준원은 부채가 다른 사람에게 팔려간 것을 안타까워하며 자신이 본 금강산 그림 부채에 나타난 정선의 실력을 칭송하고 있다.<sup>26)</sup> 오세창의 아버지인 오경석(吳慶錫, 1831-1879)의 저술인 『금대홍설』에는 溫忠善이 정선의 <孤山亭圖>에 쓴 제화시가 있다. 매화를 아내로 학을 자식으로 삼으며 孤山에 은거하던 북송의 시인 임포(林逋, 967-1028)의 일화를 언급하며 고산정을 묘사하고 있다.<sup>27)</sup>

『근역서화징』에 인용된 정선의 제발문 중에서 《검재화첩》에 쓴 이병연(李秉淵, 1671-1751), 조영석(趙榮祐, 1686-1761), 강세황(姜世晃, 1713-1791)의 발문을 먼저 살펴보면, 이병연의 발문에는 정선이 그린 朴淵瀑, 三釜淵瀑, 金公瀑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특히 김공폭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이병연의 발문에는 조영석이 김공폭을 보고 쓴 발문인 “창윤하여 재미가 있으니 이것은 원백 그림의 정수이다”라는 내용도 함께 남아있다.<sup>28)</sup> 강세황이 쓴 발문에는 “정검재가 우리나라의 眞景을 가장 잘 그렸으니”라는 화평과 현재 심사정이 검재에게 그림을 배웠다는 내용이 있다.<sup>29)</sup> 『풍고집』에서 인용한 내용은 《검재화첩》에 쓴 김조순(金祖淳, 1765-1807)의 발문이다. 『풍고집』의 저자이기도 한 김조순은 “검재는 우리 선세의 오랜 이웃이었다”라는 발문의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金昌集의 4대손이다. 그가 보고 들은 정선의 인생을 간략하게 서술한 뒤 정선에 대한 평을 이어나간다. 정선이 “우리나라에서 제일가는 화가”라며 추켜세우기도 하지만 “그림의 아치는 심사정만 못하다고 하기도 했다”며 다른 시각도 언급하고 있다.<sup>30)</sup> 박준원의 『금석집』 첫 번째 내용은 박준원 본인이 소장한 정선의 <산수

26) 오세창, 위의 책, 권5, 鄭澈 條(『금석집』), 聞鄭謙齋家金剛圖扇 爲人所購 不知今在何處 歎惜有吟曰 萬二千峰一把中 謙翁神筆此尤工 莫嘆落在松人手 至寶終應在我東; 영인본 167쪽/ 번역본 656-657쪽

27) 오세창, 위의 책, 권5, 鄭澈 條(『금대홍설』), 溫忠善 題鄭澈所畫孤山亭圖曰 百年束絹未山糊 曾見孤山一卷圖 家在暗香疎影裡 居然東國有林逋; 영인본 167쪽/ 번역본 658쪽

28) 오세창, 위의 책, 鄭澈 條(《검재화첩》이병연의 발문), 李秉淵題畫曰 元伯曾作朴淵瀑 三釜淵瀑金剛十二瀑 觀此金公瀑 筆力最雄 紙上飛沫 噴薄飄灑 有令人凜然却立者 蓋適大雨大風 爲之助也 山水之作 亦有時而奇 趙榮祐題跋曰 蒼潤可喜 此元伯本色; 영인본 166쪽/ 번역본 654쪽

29) 오세창, 위의 책, 권5, 鄭澈 條(《검재화첩》강세황의 발문), 姜世晃題跋曰 鄭謙齋 最善東國眞景 玄齋又從謙齋學; 영인본 166쪽/ 번역본 654쪽

30) 오세창, 위의 책, 권5, 鄭澈 條(『풍고집』), 其畫晚益工妙 與玄齋沈師正並名 世謂謙玄而亦謂雅致不及沈 但沈師雲林石田諸家體格 不離影響之中 謙翁毫髮皆自得 而筆墨兩化 非深於天機者 蓋不能至此 中古以來 當推東國第一名家; 영인본 166쪽/ 번역본

도>에 남긴 記文이다. 80세 노인 정선에게 그림을 얻어보고 그에 대한 감상과 평<sup>31)</sup>을 남기고 있으며 “그 그림이 집집마다 보관되어 있으며” 중국 사람들이 와서 정선의 그림을 보고 “신의 경지에 이른 줄을 알게 되었다”<sup>32)</sup>고 평한 기록도 함께 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유언술(兪彦述, 1703-1773)의 『송호집』에서 인용한 내용은 大原 朴有道가 소장한 《검재화첩》에 쓴 발문이다. “모두 고아하고 속되지 않아서 그윽하고 깊은 뜻과 담박한 태도가 극진한 경지에 이르렀다”<sup>33)</sup>며 그림 감상과 화평을 남기고 있다. 글의 마지막에는 박유도의 부탁으로 화제를 쓰게 된 경위<sup>34)</sup>에 대해 설명한다. 신위(申偉, 1769-1845)가 쓴 『謙玄合璧畫冊』 발문은 그 화책에 있는 심사정과 정선의 그림에 대해서 실력을 평하고 우열을 나누는 내용이다.<sup>35)</sup> 跋文이지만 그 내용만으로 따져 볼 때는 화평에 가깝다.

## 5. 오세창의 개인 의견

마지막으로 오세창의 개인적인 의견은 정선 條에서 자신이 내린 화평과 자신이 화가에 관하여 보고 들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화평으로는 “검재가 산수에 뛰어났고 특히 眞景에 능해서 스스로 일가를 이루었으니 우리나라 산수화의 宗主가 되었고, 또한 세상에 퍼진 그림이 대단히 많았다.”<sup>36)</sup>와 같은 내용이 있다. 그에 이어서 “그 나이를 따져보면 94세에 이른다. 그러나 여러 사람들의 記述과 挽辭에는 더러 80여 세라고 했으니 자못 의심스럽다.”와 같이 오세창이 보고 들은 내용도 있다.

---

655-656쪽

31) 오세창, 위의 책, 권5, 鄭澈 條(『금석집』), 謙齋老人善畫山水 年八十餘 筆益神; 영인본 166쪽/ 번역본 656쪽

32) 오세창, 위의 책, 권5, 鄭澈 條(『금석집』), 中國人入我境者 見山川曰始知鄭筆之爲神也; 영인본 166쪽/ 번역본 658쪽

33) 오세창, 위의 책, 권5, 鄭澈 條(『송호집』), 而類皆古雅不俗 極幽深之意淡泊之態; 영인본 167쪽/ 번역본 657쪽

34) 오세창, 위의 책, 권5, 鄭澈 條(『송호집』), 有道病臥城南宅 召余書畫之左方 卽謙齋乘化之年己卯陽月也; 영인본 167쪽/ 번역본 657쪽

35) 오세창, 위의 책, 鄭澈 條(『검현합벽화책』 신위의 발문), 玄齋摸古而自運不足 謙齋自運而摸古 并臻其妙 二家優劣如此; 영인본 167쪽/ 번역본 658쪽

36) 오세창, 위의 책, 권5, 鄭澈 條(오세창의 개인 의견), 謙齋長於山水 尤善眞景 自成一 家 爲東方山水之宗畫 亦流傳甚多; 영인본 167쪽/ 번역본 659쪽

하지만 오세창의 개인 의견 중에는 그가 개인적으로 직접 내린 평가나 보고 들은 내용도 있지만, 세간의 평도 옮겨 적은 것이 있다. 그 예로 趙榮祐 條에는 “관아재는 겸재 정선과 현재 심사정과 함께 그림으로써 나란히 이름나서, 세상에서 선비로서 그림 잘 그리는 삼재라고 일컬었다.”<sup>37)</sup>와 같이 세간의 평만 있다. 심사정 條에는 “심정주의 아들 沈師淳이 뒤에 靑平尉의 아들인 右尹 沈廷輔에게 양자로 갔으니 그 손자가 바로 翼雲이다. 그 아우 翔雲과 함께 문과에 급제했으니, 익운이 지은 「玄齋墓誌」는 그가 지은 『壺耕堂集』에 실려있다. 병신년에 이르러 상운이 죽임을 당할 때 익운도 연좌되어 심씨 집안이 마침내 쇠미하게 되었다.”<sup>38)</sup>와 같이 보고 들어서 아는 내용만 있다.

---

37) 오세창, 위의 책, 권5, 趙榮祐 條(오세창의 개인 의견), 觀我齋與謙齋玄齋 以畫齊名 世稱士人名畫三齋; 영인본 174쪽/ 번역본 684쪽

38) 오세창, 위의 책, 권5, 沈師正 條(오세창의 개인 의견), 廷胄子師淳 出后於靑平尉之子 右尹廷輔 其孫曰 翼雲 與其弟翔雲 俱登文科 翼雲所撰玄齋墓誌 載其所著壺耕堂集 及 丙申翔雲被誅 翼雲連坐 沈氏遂式微; 영인본 180쪽/ 번역본 706쪽

### 제 3 장 『근역서화징』의 인용 형태

서술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오세창은 화가가 잘하는 분야를 증명하기 위해 실증 자료인 화평이나 그림 관련 일화와 작품 및 제발문을 기록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근역서화징』의 범례에 의하면 오세창은 글씨와 작품들을 수집하여 기록을 증험하고 필요한 부분을 옮겨 적기 위해 옛날부터 그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르기까지 명인들의 저서를 인용하거나 그 저서들을 참고하여 글씨와 작품들을 수집하였다. 『근역서화징』에 인용한 기록들을 출전 원문과 비교하여 인용 형태를 분석해 보면 원문 전체를 그대로 인용한 것 외에도 부분적으로 발췌하거나 요약하여 인용한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다. 간혹 출전과 다르게 인용한 것도 보이지만 출전과 다르게 인용한 것은 오세창의 의도가 반영된 것인지 실수인지 알 수 없으므로 오세창의 의도가 확실하게 반영된 앞의 세 가지 인용 형태들만 예시를 비교하여 분석해 보았다.

그 예시 대상은 앞서 서론에서 살펴본 서화가를 정리한 문헌 중에서 오세창이 『근역서화징』에 인용한 『慵齋叢話』나 『龍泉談寂記』, 『松泉筆談』, 『聽竹畫史』, 『燃藜室記述』, 『壺山外史』에 기록이 있는 고려 5명, 조선 上 30명, 조선 中 25명, 조선 下 30명의 총 90명의 화가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화가들을 예시로 선별한 이유는 서화가를 정리한 문헌들에 남아있는 화가 관련 기록의 경우 2차, 3차 재인용한 자료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 화가들에 관한 사료들의 인용 층위가 다양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화가들에 관하여서는 서화가 기록을 정리한 문헌들 외에 개인 문집에도 기록이 다수 남아있어 다양한 인용 형태를 살펴보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의 각 절에서는 인용 형태를 종류별로 살펴보고 오세창이 중요하게 여긴 기록의 내용을 논의할 것이다.



## 제 1 절 전체 인용

출전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문헌 자료의 주된 서술 내용을 살펴보면 화가의 그림 실력에 대해 평하는 내용(이하 ‘화평’이라 칭함)이 포함되어 있는 실증자료와 제발문, 제화시 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오세창은 그 외에도 화가가 직접 쓴 제화시나 본문에 구체적으로 화가에 대해 언급한 시와 같은 자료 또한 전체 인용하였다. 몇 가지 예시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화평이 포함되어 있는 실증자료의 경우 『용재총화』에서 고려代 공민왕과 조선 안견 條에 인용한 기록들을 예로 들 수 있다. 『용재총화』에서 인용한 기록에는 “우리나라에 名畫가 별로 없는데 공민왕의 畫格이 대단히 높은 경지에 이르렀으며 이따금 공민왕의 〈山水圖〉를 볼 수 있었는데, 참으로 奇絶하게 되었다”고 공민왕의 그림 실력에 대한 언급하고 있다. 또 “공민왕이 쓴 江陵 臨瀛館과 安東 映湖樓의 액자는 참으로 노련하고 건장하여 보통 사람이 미칠 바가 아니다”라고 구체적인 작품에 대한 평도 있다.

물상을 묘사하는 것은 타고난 재주를 가진 자가 아니면 능히 정묘한 지경에 들어갈 수 없다. 한 가지 물건에는 정묘할 수 있어도 모든 물건에 다 정묘하기는 더욱 어려운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名畫가 역사에 별로 없다. 근대로부터 본다면 공민왕의 畫格이 대단히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 지금 圖書署에 소장되어 있는 〈노국대장공주 초상화〉와 興德寺에 있는 〈성가출산상〉은 모두 공민왕이 그린 것이다. 이따금 대가 집에서 공민왕의 〈山水圖〉를 볼 수 있는데, 참으로 기절하게 되었다.

『용재총화』 제1권, 慵齋叢話卷之一 成倪 撰 中<sup>39)</sup>

글씨를 잘 쓰기가 어려운데 액자를 쓰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趙子昂의 필법으로도 액자를 쓰는 데 있어서는 이설암에게 양보하곤 했거든 하물며 조자양만 못한 사람이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우리나라 공민왕이 쓴 江陵의 臨瀛館과 安東의 映湖樓의 액자는 참으로 노련하고 건장하여 보통 사람이 미칠 바가 아니다. 그런데 강릉의 임영관은 근래 불에 타서 없어져 버렸으니 참으로 애석한 일이다.

『용재총화』 제9권, 慵齋叢話卷之九 中<sup>40)</sup>

39) 오세창, 위의 책, 권2, 恭愍王 條(『용재총화』), 描寫物像 非得天機者不能精 能精一物而能精衆品尤爲難 我國名畫史罕少 自近代觀之 恭愍王畫格甚高 今圖書署所藏魯國大長公主眞 興德寺所在釋迦出山像 皆王手跡 往往甲第有畫山水 甚奇絶也; 영인본 34쪽/번역본 151쪽

40) 오세창, 위의 책, 권2, 恭愍王 條(『용재총화』), 善書爲難 而題額尤爲難 以趙子昂之筆

조선 上代 안견 條의 경우에도 『용재총화』에서 전문을 인용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이 “안견의 산수화가 신묘한 경지에 들었다”, “〈청산백운도(靑山白雲圖)〉를 보았는데 참으로 훌륭한 보배였다”와 같은 화평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조(本朝)에 이르러서는 고인(顧仁)이라는 사람이 중국에서 왔는데, 인물을 잘 그렸다. 그 뒤에 안견(安堅)·최경(崔涇)이 이름을 가지런히 하였는데, 안견의 산수화와 최경의 인물화는 모두 신묘한 경지에 들었다. 요새 사람들이 안견의 그림을 금옥(金玉)처럼 사랑하여 보관하고 있다. 내가 승지가 되었을 때에 궁중에 감수된 〈청산백운도(靑山白雲圖)〉를 보았는데 참으로 훌륭한 보배였다. 안견은 항상 “평생의 정력이 여기에 있다.” 하였다.

『용재총화』 제1권, 慵齋叢話卷之一 成倪 撰 中<sup>41)</sup>

『용천담적기』에는 “공민왕이 큰 글씨를 잘 쓰고 그림에도 뛰어났”으며 “〈阿房宮圖〉를 그렸는데 ... 그 정밀하고 세세하기가 겨룰 자가 없다”고 하는 화평이 있다. 오세창은 이를 『근역서화징』에 그대로 인용하였으며 안견의 그림에 대한 평 또한 그대로 인용하였다.

공민왕은 큰 글씨를 잘 쓰고 그림에도 뛰어났다. 〈阿房宮圖〉를 그렸는데 사람이 작기가 파리 머리만 하고 의관과 신발처럼 털끝 같은 것도 다 그려 넣어서 그 정밀하고 세세하기가 겨룰 자가 없었으니, 이른바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만 능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龍泉談寂記』 中<sup>42)</sup>

본조(本朝) 안견(安堅)의 자는 가도(可度), 또는 득수(得守)라고도 하며 지곡(池谷) 사람이다. 옛 그림을 박람하여 그 그림의 심오(深奧)한 묘리(妙理)를 알았다. 곽희(郭熙)를 모방하면 곽희의 그림처럼 되고, 이필(李弼)을 모방하면 이필 그림처럼 되

---

法 其題額則推讓於李雪菴 況不及於子昂者乎 我國恭愍王所書江陵臨瀛館安東映湖樓 眞老健非凡人所及也 而江陵館近被鬱攸失其額 可惜也; 영인본 34쪽/ 번역본 151-152쪽

41) 오세창, 위의 책, 권3, 安堅 條, (『용재총화』), 至本朝有顧仁者 自中國出來 善畫人物 其後安堅崔涇齊名 堅山水涇人物 皆入神妙 今人愛保堅畫如金玉 余爲承旨 見內藏靑山白雲圖 眞絶寶 堅常云 平生精力在此; 영인본 50쪽/ 번역본 211쪽

42) 오세창, 위의 책, 권2, 恭愍王 條(『용천담적기』), 恭愍王善大字工丹青 畫阿房宮人物 小如蠅頭 冠衫帶烏 纖悉備具 精細無與爲儔 所謂獨於治國一事不能者歟; 영인본 35쪽/ 번역본 152쪽

고, 유융(劉融)을 모방하거나 마원(馬遠)을 모방하거나 간에 모두 똑같지 않음이 없었다. 그 중에서도 산수(山水)를 제일 잘 그렸다.

『龍泉談寂記』 中<sup>43)</sup>

오세창은 『용재총화』, 『용천담적기』 외의 실증자료에서도 화평이 있는 글은 전문 인용하였다. 『연려실기술』 별집 14권 문예전고의 「화가편」, 『송천필담』에서 인용한 내용에 화평이 있는데 화평을 포함하여 전문을 인용하였다. 위에 언급한 화가 외에도 『용재총화』, 『용천담적기』, 『송천필담』, 『연려실기술』 별집 14권 문예전고의 「화가편」 등과 같이 여러 서화가에 대한 평을 정리한 서적에 기록된 서화가들의 경우, 화가에 대한 평이 드러나는 기록은 오세창이 『근역서화징』에 출전 원문을 모두 인용하였다.

다음으로 제발문 혹은 제화시 중에서 화평이 있는 것의 예는 다음과 같이 『사가집』에서 인용한 공민왕의 〈山水圖〉 제발문을 들 수 있다. 아래 밑줄 친 부분과 같이 중국의 화가인 顧愷之와 陸探微는 모두 공민왕의 하인밖에 되지 않는다는 평이 있다.

조용한 때면 정신을 모아 그림을 그리곤 했으니  
고·육은 모두 하인밖에 되지 않는다.  
눈 앞에 소장화가 일어날게 뻔한데  
이런 시시한 그림 따위에 골몰하다니.

『四佳集』 제3권 / 시류(詩類) ‘玄陵山水圖’<sup>44)</sup>

화평이 있는 제발문 혹은 제화시의 예는 조선 下代 단원 김홍도(檀園 金弘道, 1745-1806?)에 인용한 『이계집』과 『금릉집』 내용을 들 수 있다.

여름이 제철에 접어드니 마치 화로 속에 앉은 것 같구나. 옛날 두보(杜甫)의 시에 “점잖은 선비가 미친 듯이 큰 소리를 지르려고 한다.”고 한 것이 바로 이 때의 광경이다. 그런데 갑자기 대나무 그림 부채가 생겼으니, 그 대나무의 긴 줄기와 엉성한 잎사귀가 사각사각 맑은 바람을 불어서 내 가슴과 소매 가득히 들어 와서 나도 모

43) 오세창, 위의 책, 권3, 安堅 條(『용재총화』), 本朝安堅字可度 小字得守 池谷人也 博閱古畫 皆得其用意深處 式郭熙則爲郭熙 式李弼則爲李弼 爲劉融爲馬遠 無不應向而山水最其長也; 영인본 50쪽/ 번역본 211쪽

44) 오세창, 위의 책, 권2, 恭愍王 條(『사가집』), 清讌留神水墨圖 盡將顧陸作輿奴 分明眠枕蕭牆禍 可是區區翫細娛; 영인본 34쪽/ 번역본 151쪽

르는 사이에 온 몸과 정신이 시원하게 되었으니, 여기에서 이 대나무가 다만 서리만을 우습게 여길 뿐만이 아니고 역시 더위를 피하는 데에도 알맞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 붓 끝에 신(神)이 붙지 않았다면 또 어찌 진짜 대나무의 성질을 이 거짓 환경(그림)에다가 옮겨 놓을 수 있었겠는가. 아, 우리 단원자(檀園子)여! 당신은 바로 호두(虎頭)의 삼매경에 들어 갔다고 이를 만하다.

『耳溪集』 제16권 / 題跋 ‘題檀園金弘道扇畫’<sup>45)</sup>

일찍이 주인을 위하여 숨어 사는 곳을 그렸으니

남궁(南宮, 米芾)의 먹번짐으로 뜻을 그렸구나.

저 송단(松壇) 서쪽길 아래에 지나가는 가을비 소리 우수수 들리는 듯하구나.

『金陵集』 제1권 / 詩 ‘檀園畫’<sup>46)</sup>

이와 같이 화평이 있는 내용은 화평뿐만 아니라 그 화가 관련 실증자료 또는 화평이 있는 제화시의 전문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보아 오세창이 『근역서화징』을 집필할 때 화평 기록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인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오세창이 화평 관련한 기록만 전문을 인용한 것은 아니며 간혹 예외도 있다. 전문을 인용한 것 중에는 화가가 직접 쓴 시나 본문에 화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시 등이 있다. 그 예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조선 上편의 姜希顔 條의 『東文選』에서 인용한 시가 있다. 아래의 두 시는 강희안이 자신의 그림에 쓴 시이다.

시와 그림은 같은 법으로 묘한 점이 이루 다 말할 수 없으니

세상에 누가 능히 두 가지에 다 뛰어날 수 있는가.

짧어서 시 지을 생각이 없어 다만 그림만 배웠으니

붓 끝으로 이따금 조화를 몰아 들이곤 했다.

내 용잡는 재주를 사람들이 쳐 주지도 않는데

자네가 지금 그림을 그려 달라 하니 반갑기 그지없다.

자네의 노래 들어보니 그 깊은 뜻을 알겠다.

창주(滄洲)를 그려 좋은 경치 하나하나 찾아내려나.

45) 오세창, 위의 책, 권5, 金弘道 條(『이계집』), 題檀園金弘道扇畫曰 朱明用事 如坐洪爐 杜子詩束帶發狂欲大叫 真是此時光景 忽得便面墨竹 秀幹疎葉 颯颯有清飈 滿我懷袖 不覺神骨爽然 今乃知此君不惟傲霜 亦能辟暑也 然苟非筆端有神 又安能發眞性於幻境 乎 檀園子可謂得虎頭之三昧矣; 영인본 205쪽/ 번역본 802-803쪽

46) 오세창, 위의 책, 권5, 金弘道 條(『금릉집』), 檀園畫曰曾爲主人寫隱居 潑墨南宮得意初 記得松壇西下路 一林秋雨聽疎疎; 영인본 205쪽/ 번역본 803쪽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추어 흰 비단에 담아 놓으니  
 마음과 손이 적적 맞아 멋지게 어울리는구나.  
 멋진 취미 가리개 면이 적은 것이 무엇 걱정이냐,  
 붓 돌아가는 대로 좋은 종이에 가득 그려 담았다.  
 잠깐 사이에 바다가 뒤집히고 봉새가 나는 듯  
 만경창과 넓은 바다에 앞길이 환히 열렸구나.  
 그 기운이 바다굽이에 흘러 넘치니  
 뻗뻗한 갈대, 우거진 소나무, 푸른 기운이 쌓이고 쌓였구나.  
 늦은 갯벌에 달은 떠오르고 조수는 쿵쿵 내려가는데  
 먼 뗏목리에 구름이 스쳐 가며 파랗게 줄을 그었구나.  
 바람과 구름이 마치 각지방이나 꾸려 놓은 듯  
 뉘라서 신선들도 이렇게 재미있게 노는 줄 알까.  
 내 그림이 고작 이 정도여서 그다지 사랑할 것이 못되는데  
 자네가 노래를 멋지게 불러 내 마음을 시원케 하네.  
 봄바람이 한들한들 맏힌 한을 풀어 주는 듯  
 분의 신을 도와 거친 기운을 깨끗이 없애려 한다.  
 여기서 글의 근원이 삼협(三峽)을 거꾸로 하였으니  
 우선 자네가 배 만들기만 기다릴 뿐이다.

『동문선』 제8권 / 七言古詩

‘舍弟景醇 以小障求畫 副之以詩 作海山圖 用其韻以示之[姜希顔]’<sup>47)</sup>

신선산이 저렇게도 높고 높아  
 구름 기운이 봉영(蓬瀛)에 연했구나.  
 띠정자는 바위 아래에 보일락 말락  
 푸른 대는 처마 끝을 겹겹이 에워쌌구나.  
 신선의 거문고 타는 소리  
 가늘게 맑은 술바람에 대답하는구나.  
 태고 때 곡조가 그대로 울려  
 초연히 장생을 일러 주는구나.

47) 오세창, 위의 책, 권3, 姜希顔 條(『동문선』), 詩畫一法妙難詰 世間誰能兩高絕 少乏詩情只學畫 毫端往往驅造化 藝成屠龍人不數 君今求 畫我始遇 唱得君歌知意密 爲作滄洲搜一一 研磨點綴試繪素 心手俱敏能得趣 得趣寧嫌障面小 縱筆掃盡蠻牋皎 須臾海沸見鵬圖 滄茫萬里開通衢 氣洩網緼唱海曲 葦密松盤長翠綠 晚浦月入潮退活 遠岫雲橫靑作抹 風雲髣髴一洞房 那知仙侶更聊浪 我畫只此不須愛 君歌浩蕩令快內 春風驟裏如解絆 助筆有神麤欲斷 從知詞源已倒峽 且可待君作舟楫; 영인본 54쪽/ 번역본 224-225쪽

이 봉우리 저 봉우리 높고 높아  
떨어지는 폭포수는 하늘 개천을 터놓은 듯.  
천만 길에 뿔어 내리니  
바라볼 수는 있어도 가까이 갈 수는 없네.  
저 나귀 타고 오는 자는 누구냐,  
가까운 거리에 재촉재촉 가는구나.  
길게 휘파람 불며 머리를 돌리니  
천지가 바로 나의 거저(簾簾)로구나.

『동문선』 제5권 / 오언고시(五言古詩), ‘題畫山水[姜希顔]’<sup>48)</sup>

이처럼 오세창이 내용에 화평이 없는 시라도 『근역서화징』에 시의 전문을 인용한 이유는 화가가 직접 쓴 제화시를 중요한 문헌 자료로 여겼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전문 인용한 기록 중 정선 條의 『풍요속선』에서 인용한 시는 본문에 구체적으로 화가에 관한 언급이 있다. 아래에 있는 해당 시 전문을 보면 화평은 없지만, 화가가 대상으로 등장한다.

어지러운 나무 사이 조그마한 오두막  
으쓱한 사립짝 옆에 가을꽃이 피었구나.  
주인이 까만 의자에 혼자 앉아서  
청산을 그리고 나니 산에는 해가 넘어가는구나.

『풍요속선』 卷之七, ‘雲下翁 過謙齋鄭公幽居’<sup>49)</sup>

본 논문에서 인용 형태별 서술 내용을 수량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발견되는 빈도가 적은 것은 ‘예외’로 언급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지만, 예외로 분류한 경우도 화평 못지않게 오세창이 중요한 기록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전문을 인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48) 오세창, 위의 책, 권3, 姜希顔 條(『동문선』), 仙山鬱岵嶠 雲氣連蓬瀛 茅亭隱巖下 綠竹繞簷楹 高人奏綠綺 細和松風清 彈成太古曲 超然悟長生 峯巒高峩嶭 飛泉瀉天渠 噴薄千萬丈 可望不可居 騎驢者誰子 咫尺行越趨 長嘯一回首 天地眞簾簾; 영인본 54쪽/ 번역본 225쪽

49) 오세창, 위의 책, 권5, 鄭澈 條(『풍요속선』), 亂樹中間一草家 柴門深處有秋花 幽人獨倚烏皮几 寫了青山山日斜; 영인본 166쪽/ 번역본 654쪽

## 제 2 절    부분 발췌 인용

오세창은 그림과 관련된 일화나 화가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일화의 경우에는 『근역서화징』에 전문을 인용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발췌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아래의 최북 條에 인용한 『호산외사』 「崔北傳」에서 <…> 안의 내용과 같이 한 達官에게 오만하게 굴었던 일이나 금강산을 유람하다가 경치에 감동을 받아 갑자기 구룡연에 뛰어든 일 등 그림과 관련 없는 일화는 생략하고 밀줄 친 부분만 인용하였다.

최북의 자는 칠칠이니 자 또한 기이하다. 산, 물, 집, 나무를 잘 그렸는데 그림의 뜻이 푸르고 무성하였다. 대치의 그림을 배워서 마침내 자기의 뜻으로 一家를 이룬 사람이다. 스스로 號를 毫生館이라고 하였다. 사람됨이 激昂하고 오만하며 작은 절도에 스스로 구속되는 일이 없었다. <일찍이 어느 집에서 達官을 만났는데 達官이 최북을 가리키며 주인에게 향하여 “저기 앉은 자의 姓이 누군가?”하였다. 北이 낮을 들어 達官을 보며 말하기를, “먼저 묻노니 그대의 姓은 누군가?”하였다. 그의 오만함이 이와 같았다. 금강산을 遊覽하다가 九龍淵에 이르러 갑자기 큰 소리로 부르짖기를, “천하의 명사가 천하의 명산에서 죽으니 만족하다.”하고 못에 뛰어 들어 거의 구제하지 못할 뻔하였다.(…) > 한 귀인이 北에게 그림을 그려 달라고 했는데 그려 주지 않자 위협하려고 하였다. 北이 성내며 말하기를, “남이 나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이 나를 저버린다.”하고 드디어 한 쪽 눈을 찢어서 失明하게 하였다. 늙어서는 안경 한쪽만을 쓰고 다녔다. 49세에卒하니 사람들이 칠칠의 識이라고 하였다. 壺山居士는 말한다. “북풍이 맵구나. 王門의 광대가 되지 않았으니 足한 것인데 어찌서 스스로 괴롭힘이 이와 같은가.”

『호산외사』 「崔北傳」<sup>50)</sup>

최북의 자는 칠칠이니 자 또한 기이하다. 산, 물, 집, 나무를 잘 그렸는데 그림의 뜻이 푸르고 무성하였다. 대치의 그림을 배워서 마침내 자기의 뜻으로 一家를 이룬 사

50) 조희룡/유재건 編, 「崔北傳」, 崔北字七七 字亦奇矣 善畫山水 屋木筆意蒼鬱 瓣香大癡 終以己意成一家者也 自號毫生館 爲人激昂排兀 不以小節自束 嘗於某家逢達官 達官指北向主人曰 彼坐者姓誰 北仰面向達官曰 先問君姓誰 何其傲慢如是 遊金剛至九龍淵 忽大叫曰 天下名士死於天下名山足矣 墜淵幾至不救 一貴人要畫於北而不能致 將脅之 北怒曰 人不負吾 吾且負吾 乃刺一目而眇 老挂鬚鬚一圈而已 年四十九而卒 人以爲七七之識 壺山居士曰 北風烈也 不作王門伶人 足矣 何乃自苦如此; 번역본 南晩星 譯 (1980), 『호산외사/이향건문록』 삼성문화문고 v.144, 삼성미술문화재단, 23-25쪽

람이다. 스스로 號를 毫生館이라고 하였다. 사람됨이 激昂하고 오만하며 작은 절도에 스스로 구속되는 일이 없었다. <생략 부분> 한 귀인이 北에게 그림을 그려 달라고 했는데 그려 주지 않자 위협하려고 하였다. 北이 성내며 말하기를, “남이 나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이 나를 저버린다.”하고 드디어 한 쪽 눈을 찔러서 失明하게 하였다. 늙어서는 안경 한쪽만을 쓰고 다녔다. 49세에卒하니 사람들이 칠칠의 識이라고 하였다. 壺山居士는 말한다. “북풍이 맵구나. 王門의 광대가 되지 않았으니足한 것인데 어째서 스스로 괴롭힘이 이와 같은가.”

『근역서화징』 崔北 條 중 『호산외사』 인용 부분<sup>51)</sup>

오세창은 해당 화가의 화첩에 쓴 제발문의 경우에도 전문을 인용하지 않고 제발문 전체 내용 중에서 화평이나 화가 관련 일화가 언급된 부분만 인용하였다. 그 예로는 『簡易堂集』에서 『근역서화징』 조선 上代 潭은 이정(灘隱 李霆, 1554-1626) 條에 인용한 내용을 들 수 있다. 오세창이 『간이당집』에서 이정 條에 인용한 총 5개의 기사 중 『三清帖』 序文의 앞 부분에 “회화는 물건의 형상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니, 이것 역시 대개는 하나의 예술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 그런데 또 그림의 소재에 따른 난이도를 가지고 말을 한다면, 난초를 그리기가 대나무 다음으로 어렵고, 또 매화를 그리기가 난초 다음으로 어렵다고 할 수 있다(…)”<sup>52)</sup>와 같이 『삼청첩』 서문을 쓴 최립(崔崐, 1539-1612)의 회화에 대한 의견은 인용하지 않았다. 그 뒤에 최립이 이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부분만 인용하였다. 오세창이 『근역서화징』에 인용한 부분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정이 그림을 잘 그리며 특히나 그의 대나무 그림은 유명하다는 내용과 이정이 전란 중에 팔을 다쳤으나 팔을 다친 이후로 그의 그림 실력은 더 발전했다는 내용, 그 대나무 그림을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내용, 그리하여 이정의 부탁으

51) 오세창, 위의 책, 권5, 崔北 條(『호산외사』), 崔北字七七 字亦奇矣 善畫山水屋木 筆意蒼鬱 瓣香大癡 終以己意成一家者也 自號毫生館 爲人激昂排兀 不以小節自束 (中略) 貴人要畫於北而不能致 將脅之 北怒曰 人不負吾 吾目負吾 乃刺一目而眇 老挂靛黹一圈而已 年四十九而卒 人以爲七七之識 壺山居士曰 北風烈也 不作王門伶人 足矣 何乃自苦如此; 영인본 189쪽/ 번역본 745-746쪽

52) 최립, 『간이당집』, 권3, 「三清帖序」, 畫者狀物 蓋一藝也 然有業之而進於工者 什常一二 其臻於妙者 絕無而僅有 至於竹也 業之終身而不能工者皆是 況望其妙乎 顧妙此者 多在夫公子王孫騷人墨客 不甚如業者之爲 而或頓臻焉 蓋嘗求其故而不得 及見古人論畫有氣韻生知之說 而後知必有天得者能是 是又宜其風骨之自殊也 然又類言之 則蘭於竹 次也 梅又於蘭 次也 夫植物者本靜 而狀之欲活 故難爲 特是三者尤難爲耳; 영인본 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총간 49집 『간이집(簡易集)』/ 번역본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참고



로 이와 같은 일화가 담긴 서문을 쓰게 되었다는 내용 등<sup>53)</sup>으로 화평이 주를 이룬다.

위와 같은 경우 외에도 오세창은 제화시 중에서 화평이 없는 시의 경우에는 제목만 인용하거나 여러 제화시 중 일부만 인용하였다. 조선 上편의 안건과 강희안 條에 인용한 『사가집』의 예를 들어보면, 화평이 있는 시는 전문을 인용하고 그렇지 않은 시는 제목만 인용하였다. 아래는 안건의 〈만학쟁류도〉에 쓴 시인데 첫 줄에 “안생의 뛰어난 솜씨 천하에 둘도 없으니...”라며 안건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그림 실력을 평가하는 구절이 있고 나머지는 그림에 대한 감상평이다. 오세창은 이 시를 『근역서화정』에 전문 인용하였다.

안생의 뛰어난 솜씨 천하에 둘도 없으니  
팔을 걷어부치고 수묵도를 멋지게 그렸구나.  
그 가운데 만리나 뻗친 높고 높은 산은  
그 기운 넓고 넓어서 시퍼렇게만 보인다.  
( ...중략... )

내가 이 그림을 보자 답답한 마음이 다 풀렸으니  
글의 근원이 삼협의 물줄기를 거꾸러뜨리려 하는구나.  
이 시가 이루어지거든 제발 큰 소리 내 읊지 마소,  
웅덩이 밑 늪은 용의 혼이 놀랄까 저어한다.

『사가집』 제1권, 安堅의 〈萬壑爭流圖〉<sup>54)</sup>

53) 오세창, 위의 책, 권3, 李霆 條(『간이당집』), 吾友石陽正仲變 王孫也 而有騷墨之風 於藝有不爲 爲則必能 蚤以竹鳴於世 吾儕游從 得其所爲隻紙而藏之 不知其幾也 頃歲兵戈中鳥獸竄 相失苟活 仲變不免鋒刃 臂幾折而續 嘗相遇於行朝 勞問死生外 不暇叩所有 今復暫聚都下 相與咨嗟 疇昔所爲 無一存者 而仲變從橐中出此卷 乃續臂後所爲竹若蘭若梅也 亟展視之 則竹如舊又勝 而仲變亦自言差有化處矣 至蘭也梅也 與夫志發於言 心形於畫 雖皆昔之斑斑已見者 而今也舉能使人刮目 雖世之自以一絕得名者 不得而幾也 余起而歎曰 多乎哉 固謂子有得於天 天豈欲不卒且全其成耶 固知子之臂不遂折也 仲變亦動色 既而咲曰 願子之爲我題評也 余應曰 以余觀子之所爲竹也 疏而可喜也 密而不厭也 聲不作而有聞也 色不似而逼真也 氣不與形而爽然來襲也 德不與設而脩然可敬也 是有以發乎意思而自足 乃余之知子竹也 若蘭也梅也詩也字也 亦各有以動余者 類斯而已 何敢卽一揮一灑 强加指點曰 此尤奇 此差不如 以爲知也 世固有能者爲之 而不能者議之 知者言之 而不知者擇之 子欲使余之爲此耶 仲變又笑曰 子盍記此言者 以文吾卷; 영인본 95-96쪽/ 번역본 384-385쪽

54) 오세창, 위의 책, 권3, 安堅 條(『사가집』), 安堅筆法天下無 磅礴一掃水墨圖 中有萬里山嵯峨 元氣曠蕩青模糊 秋風策策霜葉殘 山骨盡露呈峯巒 遙看萬壑明可數 飛泉幾道鳴

반면 『사가집』에 있는 안건의 다른 작품에 쓴 시의 경우에는 “〈산수도〉에 쓴 칠언절구 8편과 〈畫木圖〉에 쓴 칠언고시 1편은 기록하지 않는다.”<sup>55)</sup>고 하였다. 〈산수도〉와 〈畫木圖〉에 쓴 시에는 그림의 내용에 대해 자세히 묘사하고 있지만, 위의 〈만학쟁류도〉와 같이 화가에 대한 평은 없다.

청산은 아득해라 희미하여 없는 듯하고  
푸른 하늘빛은 멀리 높은 숲에 비치는데  
절벽의 늙은 소나무 우뚝하게 치솟았어라  
가지는 굽은 쇠가 이리저리 얹힌 듯하네  
연기 안개에 싸인 채 하늘 높이 솟았는데  
비바람이 몰아쳐 잎새 하나 달린 것 없이  
서리 맞은 알몸만 반공중에 우뚝 섰으니  
옥룡이 전사하여 뼈만 남겨 놓은 듯해라  
( ... )

『사가집』 제4권, 安堅畫木圖 中 앞 부분<sup>56)</sup>

높다란 누각은 푸른 하늘에 우뚝 솟아 있고  
솔바람 부는 만 구렁에 샘물은 졸졸 흐르네  
그 누가 산 앞의 절 가까이 배를 대었나  
한밤중의 종소리가 나그네 배에 이르누나

『사가집』 제14권, 題安堅山水圖 中 첫 번째 시<sup>57)</sup>

潺湲 奔崖觸石灑峭壁 跳珠散玉噴似雪 穿林捎雲走木末 雷霆迅閃箭一振 壯或震掉聲喧  
騰 萬騎蹙踏從西來 細或涓滴鳴琤琤 五絃清越餘音哀 或如玉虹插長空 或如銀漢橫天中  
平鋪或見生錦縠 勢激有時成銀峯 山下交流深幾尺 俯視澄澄鴨頭綠 其環無際下無底 明  
可爲鑑清可啜 安得變作葡萄酒 一飲健倒三百杯 滌我十載紅塵蹤 弱水清淺尋蓬萊 君不  
見昔時風流李太白 來遊匡廬看飛瀑 好句長留天地間 一洗徐凝詩拙惡 我今見圖開心昏  
詞源欲倒三峽源 詩成且莫高聲吟 泓下老龍應驚魂; 영인본 50쪽/ 번역본 212-213쪽

55) 오세창, 위의 책, 권3, 安堅 條(『사가집』), 題安堅山水圖七絶八篇 安堅畫木圖七古一篇  
詩未錄; 영인본 51쪽/ 번역본 214쪽

56) 『사가집』 권4, 安堅畫木圖 中, 青山隱隱淡欲無 空翠遠映長林色 巔崖老樹起嶙峋 回枝  
屈鐵相交錯 細和煙霧入大青 風雨颼颼轉無葉 白立半天霜皮老 玉龍戰死空留骨 槎牙古  
態畫歟眞 點綴不見差毫末 已令風雨生絕壁 長驚雷雨半身濕 年深自鐘歲寒操 巖上無心  
萬古立 莫令群卉欺枯腸 一箇春心未應絕; 영인본 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총간 10·  
11집, 『사가집(四佳集)』/ 번역본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참고

57) 『사가집』 권14, 題安堅山水圖 中, 傑閣崑嶠插碧天 松濤萬壑響於泉 何人泊近山前寺 半

다음으로 강희안의 경우를 살펴보면 오세창은 『사가집』에서 아래와 같은 두 개의 시를 全文 인용하였다. 靑川 강희안의 대나무 그림에 題한 첫 번째 시에는 강희안의 대나무 그림이 조맹부와 같다고 평하는 내용이 있고 두 번째 시에는 강희안이 眉山과 子昂 뒤를 잇는 일필휘지라는 평이 있다.

청천이 삼매에 들어 대나무를 전신했는데  
지금은 전신만 보겠고 사람은 볼 수 없는데  
다행히 그 마음 알아주는 소 학사가 있기에  
문동은 비록 갔으나 묵죽 흔적은 새롭구려

옥처럼 우뚝 뻗어나 연기 비 머금은 자태는  
조맹부가 잘 묘사했고 이것도 그와 같은데  
백중지세의 풍류를 누가 감상할 줄 아는지  
옹우의 시가 나온 뒤로는 사가의 시뿐일세

『사가집』 제14권 / 시류(詩類) ‘題靑川畫竹’<sup>58)</sup>

일찍이 보았노니 청천이 묵화를 칠 때면  
삼매에 든 붓끝에서 용이 굴뚝거렸는데  
지금 이 그림도 예전 모양 그대로이어라  
두어 자 되는 푸른 대나무 한두 가지로다

미산(蘇軾)은 이미 서거했고 자양(조맹부)도 있지 않아서  
단란한 모습 다시 일필휘지할 이가 없더니  
아마도 그들 후신에 강 학사가 나왔나봐  
풍류와 문채가 또한 그들을 상상케 하네

『사가집』 제14권 / 시류(詩類), ‘題李銀臺所藏姜景愚墨竹’<sup>59)</sup>

夜鍾聲到客船; 영인본 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총간 10·11집, 『사가집(四佳集)』/ 번역본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참고

58) 오세창, 위의 책, 권3, 姜希顔 條(『사가집』), 題靑川畫竹曰 靑川三昧竹傳神 今見傳神不見人 賴有知心蘇學士 文同雖逝墨痕新 樅樅玉立煙雨姿 孟頫能之今似之 伯仲風流誰解賞 雍虞詩後四佳詩; 영인본 53쪽/ 번역본 222-223쪽

59) 오세창, 위의 책, 권3, 姜希顔 條(『사가집』), 題李銀臺所藏姜景愚墨竹曰 曾見靑川戲墨時 筆端三昧動龍螭 如今畫裏依然是 數尺琅玕一兩枝 眉山已逝子昂非 無復檀欒快一揮

하지만 같은 『사가집』에서 인용한 시라도 화가에 대한 평이 없고 그림을 묘사한 내용만 있는 시는 시의 내용을 인용하지 않았다. 실제 칠언절구 12수 중 몇 개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긴 숲에 보일락말락 까마귀는 깃들려 하고 / 長林隱映欲棲鴉  
열두 봉우리 꼭대기엔 달빛이 물결 같은데 / 十二峯頭月似波  
고요한 밤 누각 기대 무한한 생각에 젖을 제 / 夜靜倚樓無限思  
노 젓는 한 소리가 갈대꽃 너머서 들려오네 / 一聲柔櫓隔蘆花

‘洞庭秋月’

일찍이 소년 시절 산사에서 글을 읽을 때 / 少年山寺讀書時  
옛 비갈의 유부사를 손으로 문질렀는데 / 古碣摩挲幼婦辭  
갑자기 그림을 보니 아마도 이게 꿈인가 / 忽見畫圖疑是夢  
산 가득 꽃과 새들이 아직도 그리워지네 / 滿山花鳥故依依

‘春日看碑’

십 년 동안 동화문의 뿌연 먼지만 밟느라 / 十載東華踏軟紅  
강호에 돌아갈 꿈은 아득한 데 떨어졌는데 / 江湖歸思墮涇濛  
그림 속에 갑자기 시가의 경치가 보여라 / 畫中忽見詩家景  
수많은 누대들 연기 비 자욱한 속이로다 / 多少樓臺煙雨中

‘風雨山郭’

『사가집』 제5권 / 시류(詩類), 姜景愚畫十二圖 申相宅所藏<sup>60)</sup>

아래와 같이 『근역서화징』에 인용한 내용을 보면 시의 제목이자 그림 제목인 ‘동정호의 가을 달(洞庭秋月)’, ‘봄날에 비석을 구경하다(春日看碑)’, ‘비바람 부는 산곽(風雨山郭)’ 등을 포함하여 12개의 제목만 인용하고 시 본문은 인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오세창이 전문을 인용한 시는 시의 내용에서 화가의 행적이나 평가가 잘 드러나는 것 위주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知有後身姜學士 風流文彩也依依; 영인본 53쪽/ 번역본 223쪽

60) 『사가집』 권5, 姜景愚畫十二圖 申相宅所藏 中; 영인본 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총간 10·11집, 『사가집(四佳集)』/ 번역본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참고

강경우가 그린 열두 폭 그림은 申 정승택에 보관되어 있으니, 첫째는 동정호의 가을 달, 둘째는 봄날에 비석을 구경하는 것, 셋째는 비바람 부는 산곽, 넷째는 깊은 산에서 사슴을 벗하는 것, 다섯째는 가을 두레에 취해 흠어져 돌아가는 것, 여섯째는 가을 들녘에 지는 해, 일곱째는 해질 무렵에 고기잡는 것, 여덟째는 거문고를 타는 앞에 학이 춤추는 것, 열한 번째는 먼 시골에 지나가는 나그네와 개인 창 앞에 매화 구경하는 것, 열두 번째는 버드나무 그늘 밑에 바둑 구경하듯 들 나룻터에서 배를 닦아 건너가는 것이다. 칠언절구 12수는 기록하지 않는다.

『근역서화징』 조선上편, 강희안 條 中 『사가집』 인용 부분<sup>61)</sup>

이러한 경우는 고려 윤평(尹坪, 생물년미상)의 산수화에 쓴 시에서도 나타난다. 이색(李穡, 1328-1396)의 『牧隱集』에 廣平이 소장한 윤평의 산수화 열두 폭에 쓴 시 12수가 남아있는데 오세창은 “광평이 소장한 산수화 열두 폭은 봄·여름·가을·겨울·강월·폭포·송정·회암·범찰·선궁·등왕각·황학루이니 각각 칠언절구 한 수씩이 써있다.”<sup>62)</sup>라고 시의 본문은 생략하고 어떤 그림이 있었는지 그 제목만 부분적으로 인용하였다. 실제 윤평의 산수화 열두 폭에 쓴 시 12수 중 첫 번째 ‘春’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이 화가에 대한 평이 없고 그림 속 내용을 묘사하거나 그림을 보고 느낀 흥취를 표현한 것이다. 나머지 11수의 시도 마찬가지이다.

구름은 쌓이고 쌓이고 물은 또 돌고 돌고 / 붉고 하얀 산꽃들 흐드러지게 피어 있네 / 술병 들고 떠나고 싶은 봄나들이 흥취여 / 새들의 노래 속에 두세 잔 기울여 봤으면

『목은집』 제 28권 奉謝廣平李侍中所藏山水十二疊屏風 中 ‘春’<sup>63)</sup>

- 
- 61) 오세창, 위의 책, 권3, 姜希顔 條(『사가집』), 姜景愚畫十二圖 申相宅所藏 一洞庭秋月 二春日看碑 三風雨山郭 四深山友鹿 五秋社醉散 六秋郊落日 七日暮捕魚 八彈琴舞鶴 九張帆出海 十歲暮新雪 十一關山行旅 晴窓賞梅 十二柳陰看碁 野渡爭舟 七絶十二首 未載; 영인본 53쪽/ 번역본 223쪽
- 62) 오세창, 위의 책, 권2, 尹平 條(『목은집』), 廣平所藏山水十二幅 春·夏·秋·冬·江月·瀑布·松亭·檜岩·梵刹·仙宮·滕王閣·黃鶴樓 各七絶一首; 영인본 33쪽/ 번역본 143쪽
- 63) 이색, 『목은집』 권28, 奉謝廣平李侍中所藏山水十二疊屏風 中 ‘春’, 雲重重又水洄洄 紅白山花爛熳開 便欲尋春携酒去 鳥啼聲裏兩三杯; 영인본 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총간 3·4·5집, 『목은고(牧隱藁)』/ 번역본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참고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오세창은 역사 기록, 수필, 잡록, 시 등의 여러 기록들 중에서 화가를 평가하는 말이 있는 것은 주로 전문을 인용하고, 화가와 관련된 일화가 있는 것은 대체로 중요한 부분을 부분 발췌해서 인용하려 하였다. 하지만 화가의 그림에 쓴 시 중 화가에 대한 언급은 없고 작품 자체만을 언급한 시는 위와 같이 제목만 인용하였다. 따라서 화가에 대한 평과 그림 관련 일화를 위주로 인용하는 것으로 보아 오세창이 『근역서화징』에 서술할 기록을 선별하는 기준은 그림보다 화가에 대한 정보에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 제 3 절 요약 인용

『근역서화징』에 출전 원문을 그대로 가져오거나 부분적으로 발췌한 인용 자료는 많지만, 요약은 비교적 적으며 간혹 신라나 고려와 같이 앞 시대에 등장한다. 그 이유는 신라, 고려대에 개인 문집이나 서화가를 정리한 문헌이 현전하는 것이 적기 때문이라고 추측한다. 특히 오세창은 신라대의 서화가를 정리하기 위해 『三國遺事』, 『三國史記』, 『日本紀』, 『海東歷史』 등의 역사서를 위주로 참고하였다. 이 문헌들은 역사서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각 인물의 서화 관련 행적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특기 사항도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따라서 오세창이 『근역서화징』에 인용하기 위해서는 위 역사서에서 서화 관련 내용만을 부분 발췌하거나 요약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반면 조선 초기부터는 서화가를 정리한 저술이 비교적 많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오세창은 이 문헌들에서 그대로 인용하거나 서화가의 행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한 부분만 발췌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 예로 신라 釋 靖和와 釋 弘繼에 관하여 『삼국유사』에서 인용한 내용은 불화를 잘 그린다는 내용과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에 대한 부분만 요약한 것이다. 『삼국유사』 원문에는 경명왕 때 석 정화와 석 홍계 두 승려가 불에 탄 興輪寺 건물을 복원하는 일을 맡아 며칠 만에 완성하였다는 내용과 두 승려가 普賢菩薩像을 그리게 된 연유가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sup>64)</sup> 하지만 오세창은 이들이 홍륜사를 복원한 일화는 생략하고 보현보살상을 그리게 된 일화만을 요약하여 “정화는 경명왕 때의 승려로, 불화에 능해서 홍계와 더불어 홍륜사 벽에 보현보살상을 그렸다.”라고 인용하였다.<sup>65)</sup>

오세창이 고려 李崐 條에 인용한 서거정(徐居正, 1420-1488)의 『筆苑雜記』의 경우도 요약의 형태로 인용하였는데 원전에서 충선왕이 원나라에 있을 때 조맹부 등과 교유한 기록은 짧게 요약하였고 이암의 글씨가 조맹부의 필법의 精神

64) 일연, 『三國遺事』 권3, 塔像 第四 興輪寺 壁畫 普賢, 第五十四景德王時 興輪寺南門及左右廊廡 災焚未修 靖和弘繼二僧 募緣將修 貞明七年辛巳五月十五日 帝釋降于寺之左經樓 留旬日 殿塔及草樹土石 皆發異香 五雲覆寺 南池魚龍 喜躍跳擲 國人聚觀 嘆未曾有 玉帛梁稻 施積丘山 工匠自來 不日成之 工既畢 天帝將還 二僧白曰 天若欲還宮 請圖寫聖容 至誠供養 以報天恩 亦乃因茲留影 永鎮下方焉 帝曰 我之願力 不如彼普賢菩薩遍垂玄化 畫此菩薩像 虔設供養而不廢宜矣 二僧奉教 敬畫普賢菩薩於壁間 至今猶存其像; 신태영(2012), 『원문과 함께 읽는 삼국유사』, 한국인문고전연구소 참고

65) 오세창, 위의 책, 권1, 釋 靖和 條(『삼국유사』), 靖和景明王時僧 能佛畫 與弘繼 寫興輪寺壁普賢菩薩像; 영인본 9쪽/ 번역본 39쪽

을 얻었다는 부분은 원전과 거의 동일하게 인용하였다.<sup>66)</sup> 충선왕이 원나라에서 뛰어난 서화가들과 교유하여 文籍을 많이 가져온 내용은 오세창의 선별 기준상 이암을 설명하는데 부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짧게 요약하여 언급하고 이암이 조맹부의 글씨를 본받은 내용은 서화가 관련 기록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대로 인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 上편의 李瑢 條의 『慵齋叢話』에서 인용된 부분에도 요약이 있다. 원전에는 倪侍講이 우리나라에 사신으로 와서 안평대군 이용의 글씨를 보고 안평대군을 만나보고 싶다고 왕에게 요청하고 이용을 만나 글을 받아갈 때 예의를 갖추었다는 내용이 있지만 오세창은 이것을 부수적인 설명으로 보고 생략하였으며 이용이 자신의 그림을 중국에서 사 온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기뻐 스스로 글씨에 능한 것을 자처한 내용 또한 생략하였다. 오세창은 중국의 사신 예시강이 이용의 글을 평가한 부분만을 요약하여 인용하였다.<sup>67)</sup>

예시를 바탕으로 분석해 본 결과 화가에 대한 기록 전문을 인용한 것과 부분적으로 인용한 것, 요약한 것과 같은 인용 형태에 따라 인용한 내용의 성격도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실증자료와 제발문 중 화평의 내용이 있는 것과 작품 정보는 오세창이 출전에서 해당 서화가에 대한 기록 전문을 인용하였다. 반면 화평이 없는 실증자료와 제발문의 경우에는 서화가의 그림 활동과 관련된 일화가 드러나는 부분만 발췌하여 인용하였다. 인용하지 않고 생략한 부분은 주로 화가에 대한 언급이나 화평이 없는 화제시, 화가와 관련된 일화 중 그림 외의 내용 그리고 그림에 대한 기록 중에서도 묘사적 표현이다. 이를 통해 오세창이 중점을 두고 『근역서화징』에 인용한 기록의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 『

66) 오세창, 위의 책, 권2, 麗代編, 李崱 條(『필원잡기』), 忠宣王在元 趙孟頫等遊其門 王之東還 文籍書畫 馱載萬籟 趙之手跡 滿於東方 吾東方人得趙公筆法精神者 杏村李岳一人而已; 영인본 30쪽/ 번역본 131쪽

서거정, 『필원잡기』, 권1, 高麗忠宣王入元朝 構萬卷堂 日與當世名儒六七八人 從容談論 趙公其一也 我國文儒如李先生齊賢 侍從亦多 王之東還 文籍書畫 馱載萬籟 趙之手跡滿於東方 蓋由是也 吾東方人得趙公筆法精神者 杏村李岳一人而已; 영인본 한국고전번역원, 『대동야승』/ 번역본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참고

67) 오세창, 위의 책, 권3, 鮮代編, 李瑢 條(『용재총화』), 安平大君專倣子昂 而其豪邁相上下 凜凜有飛動意 倪謙奉使到國 愛其筆跡曰 今有陳學士善書 擅名中國 然比王子則不及也 遂受書而去; 영인본 47쪽/ 번역본 202쪽

성현, 『용재총화』, 권1, 安平之書 專倣子昂 而其豪邁相上下 凜凜有飛動意 倪侍講嘗奉使到國 見篇題二字曰 此非凡手所書 吾欲要見此人 上命安平往見之 侍講慕其筆跡曰 今陳學士善書 擅名中國 然比王子則不及也 益加禮貌 遂受書而去 其後我國人買書中國而來 乃其手跡也 安平大喜自得 時有士人崔興孝 效庾翼之法 自稱善書 常持筆橐 巡歷諸司諸大家 揮灑與之 字體麤鄙 安平邀請書之 遂割而塗諸壁; 영인본 한국고전번역원, 『대동야승』/ 번역본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참고



근역서화정』의 인용 형태를 원문을 전체 인용하는 것과 부분적으로 발췌하여 인용하는 것, 요약하여 인용하는 것의 세 가지 유형으로 살펴본 결과 오세창은 편찬 목적에 맞게 화가에 대한 평가와 그림 관련 일화를 중요한 정보로 취급하고 인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근역서화정』 기록이 서화가 관련 기록 중에서도 오세창이 생각하는 중요도에 따른 선별이 이루어진 기록물의 집합이라는 것 또한 알 수 있다.

## 제 4 절 변형 인용

네 번째 인용 형태인 원문을 변형하여 인용한 것은 원문과 비교하였을 때 글자가 다르거나 빠진 경우를 뜻한다. 선행연구에서도 지적했듯이 『근역서화정』에 인용한 문헌 기록 중에서는 출전 원문과 비교해 보았을 때 오탃자가 있거나 혹은 다른 경우가 종종 있다. 정선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정선에 인용된 문헌 중에서는 『풍요속선』과 『창하집』, 『열하일기』, 『송호집』에서 출전과 다르게 인용된 부분이 발견되었다. 먼저 『풍요속선』을 살펴보면 출전에서 인용하여 『근역서화정』에 옮긴 시의 마지막 구절은 “청산을 다 그렸는데도 해가 아직 넘어 가지 않았구나(寫了靑山日未斜)”이다. 하지만 출전의 원문에서 같은 위치에 해당하는 구절은 “청산을 그리고 나니 산에는 해가 넘어 가는구나(寫了靑山山日斜)”로 다르다.

운하 노인이 겸재 정공의 집을 지나 가다가 지은 시  
雲下翁 過謙齋鄭公幽居

어지러운 나무 사이 조그마한 오두막	亂樹中間一草家
으스스한 사립짜 옆에 가을꽃이 피었구나	柴門深處有秋花
주인이 까만 의자에 혼자 앉아서	幽人獨倚烏皮几
청산을 다 그렸는데도 해가 아직 넘어 가지 않았구나	寫了靑山日未斜

『근역서화정』 ●鄭敦 條(『풍요속선』)<sup>68)</sup>

운하 노인이 겸재 정공의 집을 지나 가다가 지은 시  
雲下翁 過謙齋鄭公幽居

어지러운 나무 사이 조그마한 오두막	亂樹中間一草家
으스스한 사립짜 옆에 가을꽃이 피었구나	柴門深處有秋花
주인이 까만 의자에 혼자 앉아서	幽人獨倚烏皮几
청산을 그리고 나니 산에는 해가 넘어 가는구나	寫了靑山山日斜

『풍요속선』 卷之七<sup>69)</sup>

68) 오세창, 위의 책, 鄭敦 條(『풍요속선』); 영인본 166쪽/ 번역본 654쪽

69) 한국미술연구소(2001), 『국역 근역서화정』, 시공사, 654쪽에서 재인용

『창하집』에서도 원전과 다른 부분이 발견되는데 출전 원문은 “강가의 언덕 위 가을빛이 벌써 늦었구나(江上秋色今已晚)”로 표기되어 있는 구절이 『근역서화징』에는 “강과 산의 가을빛이 벌써 늦었구나(江山秋色今已晚)”로 다르게 옮겨왔다.

戲題吳伯玉所藏鄭散畫山水 曰島嶼出沒水如環 西風放歌望青山 鄭散山水世所稱 惟然坐我楓林間 涼雨蕭蕭雁高飛 江上秋色今已晚 水墨淋漓吐雲煙 滿堂動色望翠巘 主人久棄蛛網裡 今日拂拭曝秋陽 指點空羨畫中人 臥看湖山秋月光 爾獨胡爲落塵寰 少年青衫映黑髮 安得招來水雲鄉 金鱗共釣馬巖石

『창하집』 卷之一70)

戲題吳伯玉所藏鄭散畫山水 曰島嶼出沒水如環 西風放歌望青山 鄭散山水世所稱 惟然坐我楓林間 涼雨蕭蕭雁高飛 江山秋色今已晚 水墨淋漓吐雲煙 滿堂動色望翠巘 主人久棄蛛網裡 今日拂拭曝秋陽 指點空羨畫中人 臥看湖山秋月光 爾獨胡爲落塵寰 少年青衫映黑髮 安得招來水雲鄉 金鱗共釣馬巖石

『근역서화징』 ●鄭散 條(『창하집』)71)

『열하일기』를 인용한 오세창의 글에도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 오세창이 <춘산등림도(春山登臨圖)>의 “春”자를 『근역서화징』에서는 “靑”자로 표기하여 그 제목이 <청산등림도(靑山登臨圖)>로 바뀌었다.

春山登臨圖 謙齋 鄭歆字元伯康熙乾隆間人年八十餘眼掛數重鏡燭下作細畫不錯毫髮 山水圖 四幅 謙齋 四時圖 八幅 謙齋 大隱巖圖 謙齋以上並有鄭歆元伯小印

『열하일기』 「關內程史 - 冽上畫譜」 중 정선 부분72)

70) 영인본: 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총간 속 76집 서울대학교 규장각판본(도서번호: 古3428-12)

71) 오세창, 위의 책, 鄭散 條(『창하집』); 영인본 166쪽/ 번역본 655쪽

72) 영인본: 한국고전번역원, 고전번역서, 『열하일기』 ‘수사본’ 또는 ‘수택본’을 근거/ 번역본: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이가원의 역주 참고

例上畫譜有謙齋青山登臨圖山水圖四幅四時圖八幅大隱巖圖 謙齋年八十餘眼掛數重鏡燭  
下作細畫不錯毫髮

『근역서화징』 ●鄭敦 條(『열하일기』)<sup>73)</sup>

『송호집』에도 출전 원문과 다른 부분이 있는데 출전 원문에서는 “대단히 보배와 같이 아껴서 손에서 놓지 못했다(甚寶翫不釋手)”인 문장을 『근역서화징』에는 “대단히 보배와 같이 분개하여 손에서 놓지 못했다(甚寶慨不釋手)”라고 잘못 인용하였다.

此謙齋八十翁畫而朴有道藏也 有道不知畫而愛此畫 甚寶翫不釋手 (하락)

『송호집』<sup>74)</sup>

此謙齋八十翁畫而朴有道藏也 有道不知畫而愛此畫 甚寶慨不釋手 (하락)

『근역서화징』 ●鄭敦 條(『송호집』)<sup>75)</sup>

위의 세 경우 모두 출전에서 『근역서화징』으로 인용해 올 때 한두 글자의 차이로 인해 해당 구절의 의미뿐만 아니라 전체 문맥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근역서화징』에 인용된 자료를 참고할 때에는 오탈자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비판적으로 참고해야 한다. 간혹 오탈자가 아니라 오세창이 의도적으로 출전과 다르게 인용했을 때에는 원문을 고쳐 인용하였다고 주석에서 설명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조선上」편의 金紐 條에서 오세창은 『연려실기술』의 기록을 인용하면서 李紐의 “李자는 金자의 잘못”<sup>76)</sup>이라고 주석에 쓰고 고쳐서 서술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예시일 뿐 오세창이 원문과 다르게 인용한 기록들 전부에 주석을 달았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 오세창이 원전을 변형하여 인용한 기록을 오탈자라고 선불리 판단할 수도 없다. 본 논문에서는 오세창이 의도

73) 오세창, 위의 책, 鄭敦 條(『열하일기』); 영인본 167쪽/ 번역본 658쪽

74) 영인본: 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총간 속 78집,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장본(도서번호 : D1-A460)

75) 오세창, 위의 책, 鄭敦 條(『송호집』); 영인본 167쪽/ 번역본 657쪽

76) 오세창, 위의 책, 권3, 鮮代編 上, 金紐 條(『연려실기술』), 李字金字誤; 영인본 55쪽/ 번역본 229쪽

적으로 변형하여 인용하였는지와 관련한 연구는 상세하게 진행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근역서화정』의 기록을 신뢰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후속연구에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 제 4 장 『근역서화징』의 인용 자료

### 제 1 절 인용 자료 전체 분석

『근역서화징』에 인용된 문헌들은 오세창이 시대순으로 정리하였으며 그에 따르면 총 273종의 문헌이 『근역서화징』에 인용되었다. 오세창은 저자의 生年이 이른 순서부터 각 문헌의 서명과 저자, 생년을 적어 나열한 참고문헌목록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採用群書目’이다.

『근역서화징』의 채용군서목<sup>77)</sup>을 정리한 부록의 [부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三國史記』, 『三國遺事』, 『東國李相國集』과 같이 고려 시대에 저술된 문헌들부터 『근역서화징』 저술 당시에 간행된 최근의 문헌들까지 인용하였다. 저자의 생년이 이른 순서부터 나열하였기 때문에 저자를 알 수 없는 문헌은 저자를 밝힐 수 있는 문헌들 뒤에 위치시켰고 그 다음에는 『萬姓譜』, 『海東號譜』, 『萬姓丙譜』와 같은 譜錄이나 고려부터 조선까지의 문과, 생원·진사시, 잡과에 합격한 사람들의 榜目, 각종 墓碑, 書畫題跋, 족보의 한 형태인 家乘 등을 나열하였다. 오세창 본인의 저서인 『書齋』, 『槿域書彙』, 『槿域畫彙』는 그 뒤에 이어 적었고 마지막으로 중국·일본의 畫史 및 역사서, 서첩과 같은 문헌으로 마무리하였다.

273종의 문헌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史書, 평론집, 시선집, 인물 傳記, 보록, 목록, 개인 문집, 앨범(帖), 기행록, 기타의 10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각 문헌의 유형은 [부표 1] 채용군서목의 ‘분류’란에 정리하였다. 각 유형별로 대표적인 문헌들만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의 ①부터 ⑩과 같다.

---

77) [부표 1]에 정리한 채용군서목은 본래 저자가 『逸士遺事』까지만 적혀있고 그 뒤로 『朝野輯要』부터 『東國金石評』까지는 저자가 표기되어 있지 않았는데 필자가 찾아서 써 넣을 수 있는 것은 추가하였다. 현재 다른 서명으로 전하는 문헌은 異稱을 적었으며 서명 왼쪽에는 책의 성격에 따라 종류를 적어 오세창이 어떠한 종류의 문헌들을 인용하였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① 사서: 『삼국사기』, 『삼국유사』, 『高麗史』, 『歷代畫史彙傳』, 『海上墨林』, 『古畫備考』 등 약 15종
- ② 평론집: 『聽竹畫史』, 『藝林甲乙錄』, 『東國金石評』 등 약 6종
- ③ 시선집: 『破閒集』, 『櫟翁稗說』, 『東文選』, 『風謠續選』 등 약 12종
- ④ 인물전기: 『海東名臣錄』, 『東國文獻』, 『壺山外史』, 『名臣攷』, 『畫林新詠』 등 약 16종
- ⑤ 보록: 『萬姓譜』, 『姓源錄』, 『璿源譜』, 보승 등 약 4종
- ⑥ 방목: 『高麗科榜』, 『國朝文科榜目』, 『醫科榜目』, 『譯科榜目』, 『律科榜目』, 『寫字廳案』, 『圖畫署案』 등 9종
- ⑦ 개인문집(시문집): 『補閒集』, 『老稼齋集』, 『丹陵遺稿』 등 약 143종
- ⑧ 앨범(帖): 서첩, 화첩 등 약 12종
- ⑨ 기행록(사행기록): 『海槎錄』, 『扶桑錄』, 『東槎錄』, 『稼齋燕行錄』 등 약 9종
- ⑩ 기타<sup>78)</sup>: 필기잡록류 『慵齋叢話』, 야담설화집 『龍泉談寂記』, 풍속지 『京都雜志』, 편지·묘비·서화제발 등 약 43종

먼저 사서는 『삼국사기』, 『삼국유사』, 『高麗史』와 같이 정치·사회 전반의 역사를 다룬 것과 『歷代畫史彙傳』, 『海上墨林』, 『古畫備考』와 같은 畫史도 포함하여 약 15종이 있다. 다음으로 저자가 서화 작품을 직접 평가한 것을 적은 평론집은 『聽竹畫史』, 『藝林甲乙錄』, 『東國金石評』 등 약 6종이 있다. 세 번째로 다른 사람들의 시를 모은 시선집은 『破閒集』, 『櫟翁稗說』, 『東文選』, 『風謠續選』 등 약 12종이 있다. 네 번째로 인물전기는 『海東名臣錄』, 『東國文獻』, 『壺山外史』, 『名臣攷』, 『畫林新詠』 등 약 16종이 있다. 다섯 번째로 보록은 『萬姓譜』, 『姓源錄』, 『璿源譜』, 보승 등 약 4종이 있다. 여섯 번째로 방목은 『高麗科榜』, 『國朝文科榜目』과 같은 고려·조선의 문과 합격자들의 명단과 『醫科榜目』, 『譯科榜目』, 『律科榜目』등의 잡과 합격자들의 명단, 『寫字廳案』, 『圖畫署案』과 같은 사자관·도화서 화원 명단 약 9종이 있다. 이처럼 『근역서화징』에는 여러 종류의 문헌들이 인용되었지만 일곱 번째 개인 문집이 143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는 서첩, 화첩 등을 약 12종 인용하였다. 아홉 번째 각종 기행록 및 사행록은 9종이 있다. 열 번째로 기타에는 위의 아홉 가지 유형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각종 총서, 백과사전, 잡록, 지리지 종류와 읍지, 묘비, 서화제발 등을 넣었다.

---

78) 위의 9개 유형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문헌들은 [부표 1]에 유형을 ‘기타’로 표시하였다.

『근역서화징』 저술에 인용된 위 문헌들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오세창이 『근역서화징』에 직접 인용하지 않고 다른 문헌에 전하는 것을 재인용한 경우도 발견할 수 있었다. 그 예로 『근역서화징』에는 『연려실기술』의 문예전고 「화가편」에서 『용재총화』와 『송천필담』, 『청죽화사』와 같은 조선 초·중기의 문헌도 인용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오세창은 『국조기사』, 『패관잡기』, 『사우명행록』, 『월정만록』, 『어우야담』 등의 문헌 기록을 『연려실기술』에서 참고하여 인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근역서화징』 범례에서도 밝혔듯이 유명한 저서들을 참고하여 그 안에 인용된 자료들을 찾아 고증하여 필요한 부분을 인용하는 작업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연려실기술』에 인용된 앞의 문헌들 또한 그러한 방식을 거쳐 『근역서화징』의 참고문헌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오세창은 『연려실기술』 외에도 『大東野乘』<sup>79)</sup>에 전하는 『필원잡기』, 『사우명행록』, 『해동잡록』, 『청과극담』, 『상촌집(상촌잡록)』, 『소문쇄록』, 『병진정사록』 등의 기록을 『근역서화징』에 인용하였다.

오세창이 『근역서화징』 편찬에 참고한 『해동호보』, 『청죽화사』, 『진회속고』, 『열하일기』 관내정사의 「열상화보」, 『연려실기술』 별집 14권 문예전고의 「화가편」, 『동국문헌』 「필원편」·「화가편」, 『화사보략』, 『화공파별』, 『도화서안』, 『사자청안』, 『예림잡을록』 등은 우리나라 서화가 관련 내용을 정리한 문헌들이다. 따라서 『근역서화징』에는 오세창의 기록 수집·선별·평가 방식 외에도 선대의 저술에 드러나는 기록 수집·선별·평가 방식 또한 반영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근역서화징』에 인용된 오세창의 개인 소장 자료들을 살펴보면 오세창의 기록 수집·선별 기준에 고증학을 토대로 한 家學의 영향이 드러나는 면모를 알 수 있다. 그가 1947년에 국립중앙도서관에 기증한 소장 자료들로 구성된 “위창문고”(국립중앙도서관 소장)<sup>80)</sup>에는 주제별로 총류 50종, 철학 349종, 역사 142종, 어학 345종, 예술 320종, 사회과학 28종, 순수과학 16종, 기타 9종 등 총 1,259종의 장서가 있다.<sup>81)</sup> 그 중에서 오세창이 『근역서화징』에 인용한 문헌은

79) 『대동야승』은 조선시대 야사·일화·소화·만록·수필 등을 모아 엮은 종합서로 여러 저자들에 의해 편술되었다. 각 편을 살펴보면 『용재총화』, 『해동야언』과 같이 상당한 분량의 전문(全文)이 완권 수록된 것도 있으나, 『추강냉화』, 『소문쇄록』, 『해동악부』와 같이 발췌, 초록한 것도 있고, 『패관잡기』와 같이 후편의 상당량을 생략해 버린 것도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대동야승』 검색 결과 참고

80) 오세창은 1947년 소장본 1,124종 3489책을 국립중앙도서관에 기증하였고 1972년 오세창의 개인문고가 “위창문고”라는 이름으로 지정되었다.

81)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위창문고 목록을 도서 십진분류법에 의거하여 주제별



아래의 <표 2>와 같이 총류 2종, 역사 9종, 어학 23종, 예술 4종, 사회과학 1종, 기타 1종으로 총 40종이 있다.

그 문헌들의 저자를 분석해 보면 북학과(北學派) 또는 역관(譯官) 집안 출신 인물이라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박제가(朴齊家, 1750-1805)와 김정희(金正喜, 1786-1856)와 같은 북학과 학자들을 포함하여 그들과 교유한 성대중(成大中, 1732-1809)이나 이덕무(李德懋, 1741-1793), 조수삼(趙秀三, 1762-1849), 유취진(柳最鎭, 1791-1869) 등이 있다. 또한 오경석, 김진흥(金振興, 1621-미상), 김지남(金指南, 1654-미상), 이언진(李彦璘, 1740-1766), 이상적(李尙迪, 1804-1865)과 같이 역관이거나 역관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다. 그 외에는 서거정(徐居正, 1420-1488), 이궁익(李肯翊, 1736-1806), 한치윤(韓致淵, 1765-1814)과 같이 역사 관련 편찬물을 저술한 사람들이다.

오세창이 위와 같이 『근역서화징』을 편술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모으는 배경에는 가학 및 집안 배경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의 학문과 예술은 가문을 통해 전승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sup>82)</sup> 위창의 집안은 8대가 역관을 지내 조부 때부터 실학사상의 영향을 받아 서화와 금석유물을 다수 소장하였다. 오세창의 아버지 오경석은 고람 전기(古藍 田琦, 1825-1854)에게 서화 감식을 배웠다. 그리고 조선 후기 실학파인 조정 박제가의 북학사상과 추사 김정희의 고증학풍과 실사구시(實事求是) 정신을 이어받아 서화와 금석학을 연구하였다. 오세창의 고모부인 이창현(李昌炫, 1850-1921) 또한 역관출신으로 한국 姓氏의 원류와 계보를 밝히고 중인들의 족보를 찾는데 귀중한 자료인 『姓源錄』을 펴내기도 하였다.<sup>83)</sup>

따라서 오세창이 모은 편찬물들은 가학을 따라 북학, 고증학의 영향을 받은 인물들의 저서라는 면모를 보인다. 하지만 이와 같은 40종의 편찬물은 위창문고에 있는 장서 중 『근역서화징』에 인용된 1,259종의 장서 중 일부에 불과하다. 따라서 오세창은 본인의 개인 문고뿐만 아니라 집안 식구들 혹은 교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여타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서화가 관련 기록을 보았으며 그 중 필요한 기록을 선별하여 『근역서화징』에 인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로 분류한 검색 도구를 참고하였다.

82) 이동국(1996), 「위창의 학예 연원과 서화사 연구」, 『葦滄 吳世昌: 亦梅·葦滄 兩世의 學問과 藝術世界』, 예술의전당, 218쪽

83) 홍선표(1998), 「吳世昌과 『槿域書畫微』, 『국역 근역서화징』, 시공사(1998)」, 『미술사논단』 7, 332쪽; 이승연(2003), 앞의 논문, 1쪽

〈표 2〉 오세창이 『근역서화징』에 인용한 위창문고 장서 목록

표제	저작자	발행자	발행년도	구분
青城集. 卷1-10	成大中(朝鮮) 著	[刊寫者未詳]	憲宗6(1840)序	어학
夏園詩鈔	鄭景顔 著	[刊寫者未詳]	咸豐4年(1854)	어학
風謠三選	劉在建;崔景欽 共編	[刊寫者未詳]	哲宗 8(1857)	어학
三韓金石錄	吳慶錫 編	[刊寫者未詳]	哲宗8(1858)	역사
昭代風謠	蔡彭胤 編	[刊寫者未詳]	哲宗 9(1858)	어학
松穆館集：上下	李彦瑱(朝鮮) 著	[刊寫者未詳]	哲宗11(1860)	어학
恩誦堂集	李尙迪(朝鮮) 著	[刊寫者未詳]	同治3(1864)以後	어학
嘯齋集	卞鍾運 著	[刊寫者未詳]	光緒 16(1890)	어학
皎亭先生詩集	玄鑑 著	[刊寫者未詳]	光武10(1906)	어학
通文館志	金指南 撰	韓國珍書刊行會	1907	사회
燃藜室記述別集.3	李肯翊 著	朝鮮古書刊行會	1913	역사
歷代畫史彙傳	彭蘊燦(中國) 編	漢粹社	1914	역사
東文集	徐居正 等受命撰	鮮古書刊行會	1914	어학
(新編)圃隱集	鄭夢周 著	崧陽書院	大正三年(1914)	어학
逸士遺事	張志淵 編	匯東書館	1922	어학
海上墨林	楊逸 編輯	豫園書畫善會	民國18(1929)	예술
歷代畫史彙傳補編	吳心穀(中華民國) 編	琉璃廠豹文齋	1926	예술
星湖僊說類選： 藹憂錄	李瀾(朝鮮) 著;鄭寅普 校閱	文光書林	1929	총류
保閑齋集	申叔舟(朝鮮) 著	朝鮮史編修會	1937	어학
秋齋集	趙秀三 著;金晉桓 編	寶晉齋	1939	어학
櫟翁稗說	李齊賢(高麗) 著	民友社	1946	총류
中京誌	金堉 撰	朝鮮光文會	1914	기타
阮堂集抄	金正喜(朝鮮) 著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어학
訥齋集：及續編	梁誠之 著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어학
萬姓大同譜	萬姓大同譜社 編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역사
萬姓譜抄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역사
圓嶠書訣缺本	李匡師 書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예술
東國文獻：高宗朝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역사
三國史記	金富軾 奉宣撰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역사
燃藜室記述	李肯翊 編;金敎獻 訂	朝鮮光文會	[刊寫年未詳]	역사
樵山襍著	柳最鎮 著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어학
松穆館集	李彦瑱 著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어학
并世集	尹光心(朝鮮) 編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어학
澗松詩鈔	徐晚輔 著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어학
錦衾記實詩	嚴啓膺 編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어학
貞蕤稿略	朴齊家 著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어학
清脾錄	李德懋(朝鮮) 著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어학
海東繹史. 上, 下	韓致滄 述	老文會	[刊寫年未詳]	역사
篆海心鏡. 卷1-3	金振興 書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예술
補閑集	崔滋 著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어학

## 제 2 절 『근역서화징』 외 현전 서화가 기록

오세창이 인용한 문헌의 양을 파악하기 위해 당시 문헌들의 간행 현황을 바탕으로 개인 문집을 살펴보면, 『근역서화징』 집필 당시 이미 간행되어 오세창이 열람할 수 있었던 문집은 1005여 종에 달한다.<sup>84)</sup> 하지만 오세창이 『근역서화징』에 인용한 것은 그 중에서 112 종으로 당시 간행된 총 문집의 일부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문헌 인용 상황을 바탕으로 볼 때 『근역서화징』에 인용되지 않은 문헌 중에서도 화가 관련 기록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 정선의 경우를 예로 들어 살펴본 결과 『근역서화징』 집필 당시 현전하던 문헌 중에서 『근역서화징』에 인용되지 않았지만, 정선 관련 기록이 남아있는 문헌들이 발견된다. 이것은 오세창이 『근역서화징』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문헌을 볼 수 없었을 가능성과 그가 의도를 가지고 문헌을 선별하였을 가능성 두 가지를 모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오세창이 『근역서화징』에 인용하지 않았지만 현전하는 기록에 대하여 정선의 경우를 예로 들어 살펴보면 아래의 <표 3>과 같이 저자의 생년 순서대로 『근역서화징』에 인용되지 않은 문헌 자료들이 현전한다.<sup>85)</sup> 이 문헌 자료들 중에는 채용군서목에도 없고 『근역서화징』에 인용되지 않은 현전 문헌뿐만 아니라 채용군서목에는 있으나 『근역서화징』 정선 條에 인용되지 않은 현전 문헌도 있다.

<표 3>의 문헌 자료들이 『근역서화징』에 인용되지 않은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우선 이들의 간행 연도와 刊種을 분석해 본 결과 오세창이 『근역서화징』을 저술하기 전에 간행된 것과 『근역서화징』 저술 당시 간행되지 않고 필사본으로 존재한 것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표 3>의 항목 중 ‘근역’은 『근역서화징』 채용군서목에 있는 문헌을 뜻하고 ‘충간’은 한국문집충간을 뜻한다. 『근역서화징』에 일부만 전하는 문헌은 ‘근역’ 항목에 ‘△’로 표시하였다. 각 문헌에 남아있는 정선에 대한 기록은 되도록 모두 모아 [부록 2-1]부터 [부록 2-3]에 정리하였다. 아래의 본문에서는 그 중 논지 전개에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소개하였다.

84)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한국문집충간에 정리된 1259종의 문집을 참고하였다.

85) <표 3> 『근역서화징』 외에 현전하는 정선 관련 기록은 고연희(1999), 위의 논문, 최완수(2009), 『겸재 정선』, 현암사; 김가희(2011), 위의 논문; 유승민(2018), 위의 논문 등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표 3〉 『근역서화징』 외에 현전하는 정선 관련 기록

n	서명	저자	근역	총간	간행년도	간종
1	『三淵集』	金昌翁 (1653-1722)	△	○	1732	활자본
2	『后溪集』	趙裕壽 (1663-1741)	×	○	1747	목판본
3	『芸窩集』	洪重聖 (1668-1735)	×	○	1784	활자본
4	『槎川詩抄』	李秉淵 (1671-1751)	×	○	1778	목판본
5	『槎川詩選批』	"	×	×		
6	「西園小亭詩」	"	×	×		필사본
7	『西堂私載』	李德壽 (1673-1744)	×	○	미상	寫本
8	『玉所稿』	權燮 (1671-1759)	×	×	1938	자필본
9	『順菴集』	李秉成 (1675-1735)	△	○	1741	활자본
10	『頭陀草』	李夏坤 (1677-1724)	×	○	미상	寫本
11	『怨菴集』	申靖夏 (1680-1715)	×	○	1738	활자본
12	『東圃集』	金時敏 (1681-1747)	×	○	1757	활자본
13	『觀我齋稿』	趙榮祐 (1686-1761)	×	○	미상	寫本
14	『牧谷集』	李箕鎭 (1687-1755)	×	○	1767	활자본
15	「西園小亭記」	趙顯命 (1691-1752)	×	×		필사본
16	「西園小亭詩」	"	×	×		필사본
17	「西園小亭詩」	李春躋 (1692-1761)	×	×		필사본
18	「西園小亭詩」	"	×	×		필사본
19	「鶴山閑言」	辛敦復 (1692-1779)	×	×	미상	필사본
20	『東谿集』	趙龜命 (1693-1737)	△	○	1741	활자본
21	『廳竹漫錄』	南泰膺 (1687-1740)	△	×	미상	肉筆本
22	『晉菴集』	李天輔 (1698-1761)	×	○	1762	활자본
23	『蒼霞集』	元景夏 (1698-1761)	△	○	1773	
24	『雷淵集』	南有容 (1698-1773)	×	○	1783	활자본
25	『松湖集』	俞彦述 (1703-1773)	△	○	1832	
26	『倉巖集』	朴師海 (1711-1778)	×	×	미상	
27	『豹菴遺稿』	姜世晃 (1713-1791)	×	×	1979	필사본
28	『并世才彥錄』 <sup>86)</sup>	李圭象 (1727-1799)	×	×	1935	석판본
29	『燃藜室記述』	李肯翊 (1736-1806)	△	○	1806전	傳寫本
30	『錦石集』	朴準源 (1739-1807)	△	○	1816	
31	『靑莊館全書』	李德懋 (1741-1793)	△	○	1809	필사본
32	『楓臯集』	金祖淳 (1765-1832)	△	○	1854	
33	『完山李氏家乘』 <sup>87)</sup>	.	×	×		
34	『李家世稿』 「中隱齋遺稿」	李春躋 (1692-1761)	×	×		
35	『李家世稿』 「一臥翁遺稿」	李昌伋 (1727-1803)	×	×		
36	『和樵漫稿』	金箕書 (미상-미상)	×	×	미상	필사본
37	『山水軒遺稿』	權震應 (미상-미상)	×	×	미상	필사본
38	《謙齋畫嶠南名勝帖》 「謙齋自筆題畫詩」	鄭敼(1676-1759)	×	×	1726	자필본
39	『承政院日記』	.	×	×		

## 1. 필사본

한국문집총간에 정리된 1259종의 문집들 중에서 간행된 1005종 외에 254여종의 문집은 오세창이 『근역서화징』을 집필한 이후에 간행되었거나 간행되지 않고 필사본의 형태로 존재한 것이기 때문에 열람하였을 가능성이 낮다.<sup>88)</sup> 『근역서화징』 저술 당시 오세창이 입수할 수 없어 인용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 문헌으로는 <표 3>에서 『西堂私載』, 『玉所稿』, 『頭陀草』, 『觀我齋稿』, 『野乘』의 「鶴山閑言」, 『倉巖集』, 『豹菴遺稿』, 『并世才彥錄』이 있다. 이는 간행되지 않고 필사본으로 전하는 문헌들이다.

이 중 조영석(趙榮祜, 1686-1761)의 『관아재고』 「謙齋鄭同樞哀辭」에는 정선의 이웃에 살던 조영석의 시각에서 본 정선의 인생사가 상세히 적혀있다. 조영석은 이 글에서 “임금께서도 또한 공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시고 그 호로 부르시니, 위로 공경 재상으로부터 아래로 가마꾼에 이르기까지 공의 이름을 모르는 이가 없었으며, 작은 그림 한 폭을 얻어도 큰 옥을 얻은 듯 집안에 전해 줄 보배로 삼으려 했다.”<sup>89)</sup>며 당시 화가로서 겸재의 사회적 인지도를 언급한다. 이어서 조영석은 겸재가 관아재의 門扉 위에 <浙江秋濤圖>를 그리게 된 사연을 서술하고 그 그림에 지은 시를 함께 적었다. 오세창이 『근역서화징』에 인용한 박사석의 “세상에서 명화라면 반드시 겸재를 지목하니 이치는 하도에서 나왔고 후고의 공이 되었구나. 우리나라 백년에 이런 숨씨 없었으니 정건의 삼절이 이보다 한 수 아래일세. 단청 여줄가리 일에 사람이 속되지 않으니 담박한 당신의 마음 누가 그려낼 것인가.”<sup>90)</sup>와 같은 挽詞와 비교해 보아도 조영석의 哀辭는 훨씬 구체적인 화평과 세간의 평을 제공한다. 조영석은 정선의 이웃으로 살아오면서 직접 교류하였기 때문에 『근역서화징』에 인용된 여타 기록에는 등장하지 않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86) 『병세재언록』은 『韓山世稿』 가운데 있는 이규상의 문집인 『일몽고』의 일부이며 『한산세고』 제 29-31권에 수록되어 있다.

87) 정병설은 정선 관련 기록이 전하는 『李家世稿』를 발견하였다. 정병설(1997), 「완월회맹연 연구(玩月會盟宴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30쪽; 김가희(2011), 위의 논문, 4쪽

88) 간행년도를 알 수 없는 문집 중에서 활자본도 있다. 간행년도를 알 수 없는 것은 오세창이 볼 수 있었던 자료에서는 논외로 하였다.

89) 조영석, 『관아재고』, 권4, 「哀辭 謙齋鄭同樞哀辭」, 君上亦不名公而稱其號 上自卿宰 下至輿僮 無不識公之名 得寸紙如得拱壁 以爲傳家寶

90) 오세창, 위의 책, 권5, 鄭散 條, 世稱名畫必謙翁 理本河圖後素功 東國百年無此手 鄭虔三絕下斯風 丹青餘事人非俗 淡泊靈臺孰寫公; 영인본 167쪽/ 번역본 658-659쪽

이 외에도 『두타초』, 『병세재언록』에는 정선에 대한 수준 높은 평이 실려있는가 하면 『청죽화사』에는 정선의 그림을 다양한 시각에서 평가한 글이 있다. 『두타초』의 저자 이하곤은 정선과 동시대에 가까이 살면서 그의 그림을 직접 볼 수 있었다. 그는 당시 서화 애호가이자 비평가였는데 정선의 그림에 남긴 평 또한 구체적이다. 정선 그림에 문징명과 동기창의 뜻이 있다고 말하는가 하면, “나는 평소 원백과 일면식이 없었지만 이번에 이 그림으로 그의 화법만이 아니라 그의 사람됨을 함께 얻었다. 경치를 묘사하고 채색하는 공교로움은 진실로 좋아할 만하고, 그 죽이고 살리는 것을 조종하는 것은 정말 미치기 어려운 것이다. (….) 특히 이 그림에서 布置는 정교하게 하고, 끝없는 봉우리들은 흐릿하게 그려, 그의 뛰어난 솜씨를 드러내었으니, 이것이 바로 원백이 죽이고 살리는 것을 조종한 것으로 오로지 아는 사람만이 알 것이다.”<sup>91)</sup>라며 정선에 대한 자신의 평을 남겼다. 『병세재언록』의 경우에는 “충만한 기세가 있으며 그가 살아있을 당시 이병연의 시와 정선의 그림이 가장 가치가 높았다.”<sup>92)</sup>는 이규상의 비평문이 남아있다. 남태응의 『청죽화사』와 같은 경우에는 “정선에게 거친 자취를 배워 볼 것이 없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존재한다.<sup>93)</sup> 이처럼 정선에 대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화평들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근역서화징』에 이 문헌들이 없는 이유는 오세창이 이 문헌들을 열람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한다.

하지만 오세창이 당시 필사본이었던 문헌들을 모두 보지 못한 것은 아니다. 필사본 중에서도 『근역서화징』에 인용한 문헌도 발견되기 때문이다. 당시 간행되지 않고 필사본으로 남은 문헌 중에서 오세창이 『근역서화징』에 인용한 것은 『聽竹畫史』, 『海槎日記』, 『石友忘年錄』 등이 있다. 오세창이 이 문헌들을 직접 공수하였을 수도 있지만, 출전 원문을 직접 보지 못하고 다른 문헌에 2차 사료로 전하는 것을 재인용 한 것도 있다. 그러한 예로 『청죽화사』가 있는데 『청죽화사』는 오세창이 직접 필사본을 입수하여 본 것이 아니라 2차 사료를 통해 재

91) 李夏坤, 『頭陀草』 책14, 「題一源所藏海岳傳神帖」中 ‘萬瀑洞’, 余平生與元伯不交一面今因此卷 不獨得其畫法 兼得其爲人 寫景設色之工固可喜 其操縱殺活 正自難及 正陽前若排却萬二千峰 不過爲一幅盆景畧 故作烟雲掩藹狀 還它空界本面目 特於此段 匠心布置 幻出無限玉芙蓉 以逞其雄秀之筆 此正元伯操縱殺活處 唯知者知之也 余敢愛任文仲紅錦步障語 但少此光景 元伯能更爲我下筆否; 국역은 유승민(2018), 위의 논문, 76쪽 참고

92) 李圭象, 『并世才彥錄』, 「畫廚錄」, ‘鄭敬’條, 畫淋漓有元氣 然用筆似帶粗氣 然雖滿紙之畫 不有一點筆痕墨暈 應一國畫 不知幾紙絹之揮灑 當時詩非李槎川 畫非鄭謙齋 不數之謙齋畫冠當世 元氣外 其熟不可當也; 국역은 유승민(2018), 위의 논문, 77쪽 참고

93) 南泰膺, 『聽竹畫史』, 蓋學於鄭敬 而得其蹤跡蓋無可觀也; 오연주(2013), 위의 논문, 394쪽 참고

인용 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로 첫 번째는 『근역서화징』에 인용된 윤두서 관련 내용이 『연려실기술』에 인용된 『청죽화사』 내용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연려실기술』 별집 14권 문예전고 「화가편」에는 이공익이 89명의 화가에 대한 문헌 정보를 수록하고 인용한 자료 끝에 출전의 서명을 적었다. 윤두서 관련 내용 중 『근역서화징』에 인용된 부분과 인용되지 않은 부분을 비교해 보면 『근역서화징』에 인용된 내용은 『연려실기술』 별집 문예전고 「화가편」에 인용된 『청죽화사』 내용에서 그대로 가져오거나 요약한 것으로 모두 아래의 ①~⑤와 같이 『연려실기술』에 인용된 범위 내에 해당한다. 그리고 오세창은 ①, ②, ③, ⑤의 기록을 이공익이 『연려실기술』에 『청죽화사』를 요약한 형태 그대로 『근역서화징』에 인용하였다. ④의 기록은 그림과 관련된 부분만 부분 발췌하여 인용하였다.

① 대개 물건은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하니 화가 역시 그러했다. 대대로 종장(宗匠)이 있어서 한 시대의 예술을 독차지하면 또 상대할 자가 나와서 그로 하여금 이름을 독차지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강희안이 나오자 안견·최경이 대적하였고, 신세림·석경·이흥효·이불해·이상좌가 서로 간의 적수가 되었고, 김시가 나오자 이정·학림정이 대적하였고, 어몽룡이 나오자 석양정이 대적하였고, 김명국이 나오자 이정이 대적하였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죽은 지 백년이 다 되어 가는데 처음으로 윤두서 한 사람이 나와서 홀로 그 명성을 다들 자가 없어서 명성이 예전 사람들보다 더욱 성대하게 되었다.<sup>94)</sup>

② 윤두서의 공지가 너무 지나쳐서 절대로 남의 요구에 응해 주지 않았다. 그런데 오직 이사량·이하곤·민용현이 요구하기만 하면 당장 그려 주어서 제각기 서너 폭씩을 간직하게 되었고 가리개 그림도 또한 많이 그려 주었다. 이하곤은 <만마도(萬馬圖)>를 차지하였으니, 이 세 사람은 모두 서인인지라 이 때문에 비방이 때지어 일어났다고 한다.<sup>95)</sup>

③ 무릇 인물과 동식물을 그릴 때에는 반드시 종일토록 눈이 뚫어져라 보고서 그

94) 오세창, 위의 책, 권4, 尹斗緒 條(『청죽화사』), 凡物必待對 而畫家亦然 代必有宗匠 以擅一代之藝 而又必生相對者 使不得專名 姜希顔出而安堅崔涇對之 申世霖石敬李不害李上佐互相爲對 金禔出而李楨鶴林正對之 魚夢龍出而石陽正對之 金明國出而李澄對之 二人死近白年始得一尹斗緒 獨無分其名者 得名 尤盛於前人; 영인본 162쪽/ 번역본 639쪽

95) 오세창, 위의 책, 권4, 尹斗緒 條(『청죽화사』), 斗緒矜持太深 絕不應人 而惟李師寬李夏坤閔龍見 有求輒副 各藏三四帖 障畫亦多 夏坤則有萬馬圖 三人皆西人也 以此謗議朋興云; 영인본 163쪽/ 번역본 640쪽

진짜 모양을 똑바로 본 뒤에야 그렸다. 홍득구가 그의 용과 말 그림을 보고 놀라면서 이르기를 “공민왕 이후에는 이런 작품이 없었다.”고 하여, 이 때문에 더욱 유명해졌다. 윤두서는 인물화는 잘 그렸으나 산수화는 그의 장기가 아니었다. 먹을 너무 짙게 써서 소담하고 평원한 맛이 부족하고 배치하는 방법도 익숙하지 못하여서 자못 무르녹고 윤택한 태도가 없었다. 그 일생 동안 그린 것이 화첩 밖에 없고 병풍과 족자는 별로 없었으며 자기 재주에 대한 자부심과 안목이 점점 높아져서 홍이 날 때가 아니면 그림을 그리지 않았으니, 이 때문에 그림이 별로 전해지지 못한 것이다.<sup>96)</sup>

④ 숙종 말년에 임금의 화상을 그리려고 그림으로 유명한 사람이면 벼슬아치거나 선비거나를 막론하고 모두 청역(廳役 어용청)에 예속시켰다. 그때에 두서(斗緒)는 마침 상중(喪中)에 있었는데 임금이 기복(起復)시키고자 하여 대신들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남구만(南九萬)이 의논하기를, “지금 전하의 어용(御容)을 모사하는 것이 사체가 매우 중하나, 전란의 위급함과 다릅니다. 전하께서 두서를 꼭 기복시키는 것은 남의 친상을 빼앗는 것이며, 신하가 왕명을 그대로 받들면 이것은 친상을 빼앗겼다 할 것이니 결코 좋은 시대에 있을 일이 아닙니다.”라고 했다. 두서는 부끄럽게 여겨서 해남(海南)으로 아주 돌아가서 화필(畫筆)을 끊고 그리지 않았으며 얼마 후에 죽었다.<sup>97)</sup>

⑤ 윤두서가 선비 심득경과 금석같은 교의를 맺었었다. 심득경이 죽자 윤두서가 그의 초상을 추모해 그려서 그 집에 돌려 보내니 온 집안 식구가 놀라고 통곡하면서 마치 손숙오가 다시 살아난 것 같이 여겼다.<sup>98)</sup>

하지만 『청죽화사』에는 오세창이 『근역서화징』에 인용한 내용 외에도 윤두서 관련 내용이 다양하게 전한다. 예를 들어 아래의 ⑥~⑧ 같은 내용이 있다. 이 외에도 김명국, 이정과 윤두서를 비교한 「三畫家喻平」도 있다. 여기엔 남태웅의

96) 오세창, 위의 책, 권4, 尹斗緒 條(『연려실기술』 별집), 凡畫人物動植 必終日注目 得其眞形而後已 洪得龜 見其畫龍與馬 驚曰 恭愍以後 無此作 由是著名焉 斗緒 偏工人物而山水 非其所長 行墨太深 有欠疎淡平遠之趣 鋪勢未熟 殊無濃潤淋漓之態 一生所作不出帖畫而屏簇則罕見 挾藝目高 非得意 不肯出 是以 畫亦罕傳; 영인본 163쪽/ 번역본 640쪽

97) 오세창, 위의 책, 권4, 尹斗緒 條(『연려실기술』 별집), 肅宗末年 將摸御容 苟以畫名 無論朝士韋布 皆隸于廳役時 斗緒適居憂 上欲起復召之 議大臣 南九萬議略曰 今御容摸寫 事體雖極重 似與金革有異 上之使之 是謂奪人之親 下之承命 是謂奪親 決非盛世之所宜有也 斗緒恥之 大歸海南 仍絕筆不作 未幾沒; 영인본 163쪽/ 번역본 640쪽

98) 오세창, 위의 책, 권4, 尹斗緒 條(『연려실기술』 별집), 斗緒與士人沈得經 爲金石交 得經死 斗緒追作畫像 歸其家 渾舍驚泣 如孫叔敖復生; 영인본 163쪽/ 번역본 640쪽



개인적인 평가와 윤두서의 그림 관련 일화가 다양하게 보인다. 그러므로 만약 오세창이 『청죽화사』를 직접 보았다면 아래와 같은 내용만 일부러 제외하고 『연려실기술』에 있는 위의 ①~⑤만 『근역서화징』에 인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⑥ 그러므로 그 수법은 우리나라의 (다른 화가)와는 절대로 다르고, 화격은 중국의 빼와 중국 자신의 것으로 만들 정도였다. 사물을 그려냄이 더욱 짙진하고 전혀 미진한 부분을 남김이 없어 더할 수 없이 정교하고 섬세하여 그 절묘함이 ‘妙’의 경지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공재의 이름은 一世에 회자되어 강희안, 김제, 김명국 등의 작가를 뛰어넘어 공민왕의 경지에까지 나아갔다.<sup>99)</sup>

⑦ 윤두서는 시종 역량이 부족하고 개척해 나아간 것이 멀지 않아 같고 닮은 공은 빼어나지만 天然스럽고 웅혼한 기상은 적어 작은 것에서는 뛰어났지만 큰 것에는 밀고 나아가지 못했다. 작은 것은 작을수록 더욱 妙하지만, 큰 것은 클수록 미치지 못하였다. 손바닥만한 片幅에 종로거리를 그려도 행인은 개미만한 크기인데도 이목구비를 다 갖추고 모두가 살아있는 듯이 활동하니 묘하다면 묘한 것이다. 그러나 긴 족자의 大幅에 이르러 붓을 손에 맡기면서 일필휘지로 휘둘러 그려내는 것이라면 부득불 김제와 김명국에게 양보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윤두서는 일생 동안 그린 것이 畫帖 정도였고 병풍이나 족자는 드물었다. 비록 그것이 노력이 많이 드는 것을 꺼려한 것이라고 하나 기실은 그 단점을 감추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sup>100)</sup>

⑧ 윤두서의 眞跡으로 세상에서 돌아다니는 것은 사대부 집안보다 中路人に 많았다. 水標橋에 사는 崔씨 성을 가진 中人이 더욱 많이 비축하여 卷軸을 이루었다. 그러므로 근래에 중로인이 가짜를 만들고 공재 標章을 다른 그림에 찍어 (윤두서의 작품)을 혼란시켜 놓았다. 혹 속아서 그것을 사가는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sup>101)</sup>

두 번째 이유는 출처를 표시하는 방식이 『연려실기술』과 일치한다는 점이다. 『연려실기술』에 있는 윤두서 관련 기록은 모두 『청죽화사』에서 인용한 것이지만 일부에만 출처가 표시되어 있다. 『근역서화징』에 인용된 내용 중 ①“대개 사물은 반드시 대(對)가 있는 법인데...”와 ②“두서는 궁지가 너무 과하여 남의 요구에 절대로 응하지 않았으나...”의 내용은 끝에 『청죽화사』에서 인용했다고 『연려실기술』에 표시되어 있지만 ③“무릇 인물과 동식물을 그릴 때에는...” 내용과 ④“숙종 말년에 임금의 화상을 그리려고...”했던 일화, ⑤“윤두서는 사인 심득경과 금석 같은 사귀를 하였다...”는 일화는 『청죽화사』에서 인용한 내용임에도 출처가 적혀있지 않다. 오세창은 이러한 차이를 그대로 『근역서화징』에도 적용하

99) 이태호·유홍준(1992), 위의 책, 145쪽

100) 이태호·유홍준(1992), 위의 책, 146-147쪽

101) 이태호·유홍준(1992), 위의 책, 154쪽

였다. 이러한 특징들을 바탕으로 오세창이 『청죽화사』를 직접 보지 않고 『청죽화사』가 인용된 『연려실기술』 별집만 보고 인용하였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필사본으로 남은 인용 문헌 중 간행년도를 알 수 없는 것은 『謏聞瑣錄』, 『海東號譜』, 『東儒師友錄』, 『錦衾紀實(錦衾記實詩)』, 『竝世集』, 『漁山集(漁山散人詩集)』, 『薑山集』, 『警修堂集(警修堂全藁)』, 『頭流山志(頭流全志)』, 『姓源錄』, 『樵山襍著』, 『碧梧堂遺稿』, 『昭代紀年』, 『松泉筆談』, 『國朝人物考』, 『震彙續攷』, 『簪纓錄』, 『璿源譜』 등 18여 종이 있다. 오세창이 이 문헌들을 어떻게 인용할 수 있었는지는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하다. 『청죽화사』처럼 필사본 원문은 구해보지 못하고 2차 사료에서 인용한 문헌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둘 수 있다.

## 2. 간행본

다음으로 간행된 문헌들 중에서 인용되지 않은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간행된 문헌들은 채용군서목에는 있으나 정선 관련 내용이 인용되지 않은 現傳 문헌 기록과 채용군서목에 없지만 정선 관련 내용이 현전하는 문헌 기록으로 구분된다.

### (1) ‘채용군서목’에 있으나 『근역서화징』에 인용하지 않은 간행본

『근역서화징』 집필 이전에 간행된 문헌 중에서 『三淵集』, 『順菴集』, 『東谿集』, 『창하집』, 『松湖集』, 『燃藜室記述』, 『錦石集』, 『靑莊館全書』, 『楓臯集』은 채용군서목에 있기 때문에 오세창이 문헌을 열람하고 인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오세창은 그 문헌들에 있는 정선에 관한 기록을 모두 인용하지는 않았다. 특히나 『창하집』, 『풍고집』, 『금석집』, 『송호집』 4권은 정선 부분에 인용된 문헌이지만 인용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 그 내용에 정선에 대한 언급이 있긴 하지만 오세창이 『근역서화징』에 인용하기에 적절한 내용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창하집』, 『풍고집』, 『금석집』, 『송호집』 4권에 남아있는 정선 관련 기록을 직접 살펴본 결과 아래와 같다.

먼저 『창하집』의 내용을 살펴보면 풍악산에 놀러 가는 李士浩를 전송하면서 직접 풍악산에 가보지는 못했지만 검재 정선의 그림과 사천 이병연의 풍악산 그림을 보고 이미 자신은 풍악산에 이르렀다<sup>102)</sup>고 말하고 있다. 본 序의 내용을

102) 『창하집』, 余雖未見楓嶽面目 而自謂眞得楓嶽之趣 則世未有先我者 盖嘗得於淵翁之詩

통해 정선의 금강산 그림의 臥遊의 기능을 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지만, 화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화나 화평도 아니며 제발문도 아니다. 『근역서화징』에 인용된 문헌 중에서 『노가재집』의 시제(詩題)는 “북막으로 가는 신정보를 전송하다(送申正甫赴北幕)”로 『창하집』의 “풍악산에 놀러가는 이사호를 전송하다(送李士浩 往游楓嶽序)”와 유사하다. 하지만 『노가재집』의 시에는 정선 정선의 그림을 ‘이런 좋은 솜씨(此奇)’라며 칭송하는 화평이 확실하게 드러난다.

다음으로 『풍고집』의 書에도 정선이 본국에서 명성을 차지하고 있다는 내용<sup>103)</sup>이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이것 또한 정선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을 제공하지 않는다. 『송호집』은 “《검재화첩》에 시를 구하는 것을 보고 두 絶句를 써서 돌려보내다”<sup>104)</sup>라는 제목의 글로 정선과 관련된 부수적인 일화이다. 위의 세 권과 달리 『금석집』은 제목과 내용을 보면 앞의 다른 문헌들에 비하여 정선의 그림에 대해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제목을 보면 “우연히 연옹집(淵翁集)을 보았는데 <金剛內外山圖>의 제발문을 보고 기뻐서 시를 읊다”<sup>105)</sup>라며 그림을 직접 보고 쓴 시가 아닌 그림에 쓴 제발문을 보고 쓴 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오세창은 정선의 그림을 직접 보고 쓴 시들만 『근역서화징』에 인용하였기 때문에 위의 『금석집』 시를 인용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오세창이 위의 네 문헌에 있는 기록을 『근역서화징』에 인용하지 않은 이유는 그 내용이 화가의 행적이나 그림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 (2) ‘채용군서목’에도 없고 『근역서화징』에도 인용하지 않은 간행본

간행된 문헌들 중에서 채용군서목에 없으나 정선 관련 내용이 현전하는 문헌으로는 『后溪集』, 『芸窩集』, 『恕菴集』, 『東園集』, 『槎川詩抄』, 『晉菴集』, 『雷淵集』이 있다. 이 중에서 『서암집』에는 李一源이 소장한 정선의 《輞川十二景圖帖》題跋이나 《金剛圖帖》제발이 있다. 《망천십이경도첩》이나 《금강도첩》은 『근역서화징』

鄭澈之畫; 영인본: 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총간 속 76집, 『창하집』

103) 『풍고집』 제 10권 書 ‘與張水屋道渥’ 又古畫二幅 卽係七八十年間 本國土人鄭澈所作 此公畫擅名本國 而此畫卽其望八後弄墨 題款亦自書 謙齋其號也; 영인본 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총간 289, 『풍고집』/ 번역본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참고

104) 『송호집』 제 2권, 朴有道 大源 示謙齋畫帖求詩 書二絶而歸之; 영인본 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총간 속 78집, 『송호집』/ 번역본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참고

105) 『금석집』 제 4권, 偶閱淵翁集 見題金剛內外山圖 欣然有賦; 영인본 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총간 255, 『금석집』/ 번역본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참고

』에 언급되지 않은 작품들이지만 정선의 작품 활동 관련 행적을 알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다. 『사천시초』에는 이병연이 쓴 “정선이 안개 속에서 비로봉을 그리는 것을 보다”라는 시가 있다. 정선의 작업 과정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다. 그리고 『진암집』의 경우에도 정선의 화첩에 쓴 제 발문이 두 개 남아있다.

이처럼 위의 문헌들에는 화가의 그림 관련 행적 및 작품 기록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세창이 이 문헌들을 인용하지 않은 이유는 그가 이 문헌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혹은 양질의 기록을 선별하여 적기보다는 많은 숫자의 화가들에 관한 기록을 옮겨 적기 위해 인용 문헌의 수량을 임의로 조절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오세창이 『근역서화징』에 쓴 범례에 의하면 등급을 매기지 않고 모으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여 실력이 좋지 않아도 화가로 이름난 사람은 모두 열거하였다고 한다. 그는 “빠진 것 없도록 하려고 했으나 부족함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는데 이를 통해 그가 모든 서화가를 빠짐없이 적으려고 했던 의도를 가지고 『근역서화징』을 서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

### 3. 작품 목록

오세창이 『근역서화징』에 적은 화가들의 작품은 『열하일기』의 「열상화보」 또는 『고화비고』, 각 화가들에 인용된 제발문 앞에 언급된 작품 제목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근역서화징』에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작품들이 현전한다. 그 예로 정선의 작품을 보면 비교적 많은 수량이 현전한다. 현전하는 작품들과 실전하는 작품들을 정리해 보면 현전하는 것만 대략 부록의 [부표 3]과 같이 화첩으로는 30여 개, 작품으로는 340여 점이 확인되고 실전하는 것은 대략 9여 개의 화첩 정도의 그림이 있다.<sup>106)</sup> 하지만 『근역서화징』에 기록된 작품은 4개의 화첩, 8점의 그림뿐이다. 각각을 살펴보면 이병연의 제발이 있는 《검재화첩》, 강세황의 제발이 있는 《검재화첩》, 오원이 소장한 〈송하문사도〉와 〈산수도〉, 김조순의 발문이 있는 《검재화첩》, 박준원의 기문(記文)이 있는 〈산수도〉, 박유도가 소장한 《검재화첩》, 온충선의 제화시가 있는 〈고산정도(孤山亭圖)〉, 『열상화보』에 남아있는 〈춘산등림도〉와 〈산수도〉 4폭, 〈사시도(四時圖)〉 8폭, 〈대은암도(大隱巖圖)〉가 있다.

정선의 예시만 살펴보아도 『근역서화징』은 서화가들의 작품 목록을 기록하기 위해 제작된 서적은 아닐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오세창은 서화 眞品을 모아 놓은 圖錄을 『槿域書彙』와 『槿域畫彙』에 정리하였다. 이승연이 정리한 서지사항을 참고하면 『근역서화』는 고려 말에서 대한제국 말까지 선인들의 필적을 모아 엮은 것으로 1911년에 편집 동기를 발문으로 남겨 놓았다. 총 408명의 글씨가 있다. 『근역화회』에는 총 67명의 그림이 있다.<sup>107)</sup> 이처럼 오세창이 『근역서화징』과 별개로 작품만 정리한 도록을 만들었다 해도 『근역서화징』에 정리한 서화가 1,118명의 작품을 모두 포괄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근역서화징』에 인용된 문헌들과 작품들을 살펴본 결과 오세창은 『근역서화징』에 기록을 정리할 때 각 서화가의 작품 사항보다는 서화가의 인적 사항과 특기할 예술 분야와 그것을 입증할 일화에 더 주안점을 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106) 최완수(2009), 위의 책, 514-515쪽; 검재정선미술관(2015), 『검재정선 현존작품 조사집』

107) 이승연(2000), 위의 책, 72-78쪽

### 제 3 절 『근역서화징』 유일 서화가 기록

인용 문헌 중에서도 출전 원문이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은 것은 『근역서화징』 유일 서화가 기록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현전 여부를 알 수 없는 인용 자료는 273개의 『근역서화징』 인용서 중에서 다음의 <표 4><sup>108)</sup>와같이 28여 개가 있다.

이와 같은 문헌 자료들은 현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출전의 내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윤두서의 『畫斷』과 오경석의 『天竹齋筭錄』, 오세창의 『書鯖』은 『근역서화징』에 인용된 것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중요한 서화가 자료로 판단된다. 이러한 문헌들은 『근역서화징』에 2차 사료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일면을 알 수 있다. 혹은 오세창이 다른 문헌에서 이미 인용된 자료를 다시 『근역서화징』에 인용하여 3차 사료로 남아있는 것도 있다. 『연려실기술』 제 6권 燕山朝故事本末의 「戊午黨籍」에 인용된 『국조기사』가 그 예이다. 『국조기사』는 현전 여부를 알 수 없으나 「戊午黨籍」에서 일부 확인이 가능하다. 그리고 「무오당적」도 오세창이 채용군서목에 『연려실기술』과 별개의 서적으로 표시하였지만, 사실은 『연려실기술』의 일부 기록이기 때문에 현전 여부를 알 수 없는 위의 문헌들도 현전하는 다른 문헌들에 일부분으로 존재하는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근역서화징』에만 전하는 자료는 그 문헌 자료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추후 문헌 발굴의 단서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사자청안』은 최근에 『寫字廳先生案』이 발견되어 내용을 일부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sup>109)</sup> 김두현은 오세창의 『畫寫兩家譜錄』에서 그가 필사한 『사자청선생안』을 발견하였는데 『사자청선생안』의 원본은 『근역서화징』의 채용군서목에 있는 『사자청안』일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현재로서는 오세창이 필사한 『사자청선생안』을 통해 『사자청안』의 일면을 확인할 수 있지만, 그것이 『사자청안』의 원전 내용과 같은지는 확인할 수 없다. 이처럼 『근역서화징』에만 현전하는 문헌들은 그 본래 모습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근역서화징』에 있는 내용으로 그 일면을 참고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108) 현전 여부는 국립중앙도서관의 한국고전적종합목록, 한국고전종합 데이터베이스의 한국문집총간을 참고하여 조사하였다. 『해동호보』는 단국대학교 도서관, 진취속고는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동명으로 소장된 것이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다른 문헌들 또한 현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

109) 김두현(2004), 「『사자청선생안』과 조선시대 사자관의 신분」, 『고문서연구』 24권, 한국고문서학회

〈표 4〉 현전 여부를 알 수 없는 『근역서화정』 인용 문헌

n	서명	저자	비고
1	『栢栗寺重脩記』	윤사첨 尹思瞻	
2	『大東聯珠詩格』	유희령 劉希齡	
3	『萬竹軒遺稿』	정현 鄭磻	
4	『國朝紀事』	심광세 沈光世	「戊午黨籍」에 인용 未刊 肉筆本 <sup>110)</sup>
5	『畫斷』	윤두서 尹斗緒	
6	『省齋集』	고시언 高時彦	
7	『東溪漫錄』	조귀명 趙龜命	
8	『尙古子生壙記』	김광수 金光遂	
9	『龍珠寺事蹟記』	석 등운 釋 等雲	
10	『兼山筆記』	유재건 劉在建	
11	『古藍尺牘』	.	
12	『天竹齋筭錄』	오경석 吳慶錫	
13	『金臺鴻雪』	오경석 吳慶錫	
14	『六客詩選』	김석준 金奭準	
15	『研農遺稿』	최성학 崔性學	
16	『紀事通攷』	.	
17	『嶺南野言』	.	
18	『西郭雜記』	이문흥 李文興	
19	『名臣攷』		
20	『震但人物』	.	
21	『萬姓丙譜』	.	
22	『寫字廳案』	.	
23	『圖書署案』	.	
24	『畫士譜略』	.	
25	『畫工派別』	.	
26	『海東金石總目』	.	
27	『書鯖』	오세창	

110) 「청죽별집」 화사 부분에도 『화단』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다. 『화단』은 윤두서의 『記拙』에 실려있다. 『기졸』에 대한 정보는 세계미술용어사전에 있다. 『청죽화사』에는 홍득구, 이정에 대한 내용만 인용되었는데 『근역서화정』에는 10명이 화단에서 인용된 것으로 보아 오세창이 『화단』을 직접 봤을 것으로 생각된다.

『근역서화징』에만 있는 자료는 出典이 현전하지 않는 인용 자료 외에도 오세창이 쓴 개인 의견이 있다. 오세창의 개인 의견을 살펴보면 <표 5>와 같이 고려 2번, 조선 중기 8번, 조선 후기 7번으로 총 17번이 등장한다. 틀린 정보를 고치거나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도 있고 오세창의 개인 화평이 드러나는 내용도 간혹 등장한다. 오세창은 『근역서화징』에 본인의 화평을 많이 언급하지 않고 주로 실증 자료를 인용하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인용한 자료 대비 오세창 본인의 의견이 현저히 적은 것으로 보아 개인적으로 화평을 남기는 것이 주된 저술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근역서화징』 기록 중 오세창 개인 의견

시 대	화가명	개인 의견의 내용	비고
고 려	金富軾	或曰 立之 非雷川之字 乃其子敦中之字云 然未有確據 姑從大東韻玉	추가 정보 제공
	李杞	李杞李琪之名 雖字異而音同 且其時代無隔 抑是一人而諸書所記互異歟	추가 정보 제공
조 선 중 기	魚夢龍	魚夢龍梅 與李楨竹 並稱	화평
	李繼祐	所畫葡萄 流傳頗多 筆力 蒼潤勁健 爲畫葡家之冠	화평
	曹文秀	下筆無瀟洗之致 然楷優於草 其後世世以善書著名者 有姜曹二家而曹氏優於姜氏	화평
	附孟永 光	樂癡明人也 然來遊四年 遺墨不少 且有從之學畫者 其於槿域畫界之不可泯沒者 故特附之 殆萬綠一紅也	화평
	張氏	正祖聞此帖而命上之 覽而嗟賞 其后孫壽岳 於光武年間 自宮內府 覓還嶺南其家	추가 정보 제공
	韓時覺	古畫備考 稱金時覺者 誤記其姓也	誤記를 고친 것
	咸悌健	古畫備考 稱咸悌健者 誤記其姓也	誤記를 고친 것
조 선 후 기	鄭欽	謙齋長於山水 尤善眞景 自成一家 爲東方山水之宗畫 亦流傳甚多 考其壽至九十四歲 然諸家記述及挽辭 或稱八十餘 殊可疑也	화평
	趙榮祐	觀我齋與謙齋玄齋 以畫齊名 世稱士人名畫三齋	세간의 화평
	沈師正	廷胄 子師淳 出后於青平尉之子右尹廷輔 其孫曰	추가 정보



		翼雲 與其弟翔雲 俱登文科 翼雲所撰玄齋墓誌 載其所著盍耕堂集 及丙申 翔雲 被誅 翼雲 連坐 沈氏遂式微	제공
	高鎭升	嘗以玻璃器 貯各樣蛺蝶 細究其狀 畫益臻工 世稱高蝶	세간의 평
	方允明	石坡老人 當國之時 人有求蘭畫者 輒倩老泉寫之 老泉 肖其筆態 世莫能辦 近日石坡蘭之流行 多此作	추가 정보 제공
	趙重默	善畫肖像者 近推李希園及趙雲溪	세간의 평
	安健榮	院畫名手 至張吾園安海士而止	화평

각 서화가의 작품에 적힌 제발문 또한 『근역서화징』에는 전하지만 작품 현전 여부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김명국의 《연담화첩》, 정선의 《겸재화첩》, 조영석의 《관아재화첩》 등 21명의 화첩 제발문이 전한다. 하지만 각 화가에 관한 연구에서조차 이 화첩의 원본이나 관련 기록을 찾는 것을 후속 과업으로 남겨둔 만큼 현전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다음으로 참고문헌 표시가 되어있지 않은 글은 조선 중기 2명, 조선 후기 59명이 있다. 그 중에서 ‘善畵(그림을 잘 그렸다)’보다 더 상세한 내용이 있지만, 참고문헌 표시가 되어있지 않은 사람은 조선 중기 1명, 조선 후기 52명이 있다. 그 내용은 잘 그리는 그림 분야나 화가 관련 일화 등이다. 이 기록은 오세창의 개인 의견과 구분되는 것으로 특히 조선 후기에 많이 등장하는 것으로 판단하건대 오세창이 직접 보고 들은 내용일 가능성이 크다. 오세창이 어느 문헌에서 나온 것인지 상고할 수 없는 자료들이기 때문에 자료의 정확성을 위해 출처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

## 제 5 장 결 론

『근역서화징』은 서화가를 주제로 하여 체계적으로 편집한 첫 기록물이라는 점과 후대에도 참고하여 고증할 수 있도록 출처를 밝혀 최대한 객관적으로 자료를 서술하였다는 점에서 높은 자료적 가치를 가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나 개인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자유롭게 유통되어 온 서화 작품이나 서화가 관련 문헌 자료들을 모아 『근역서화징』과 같은 이동식 서화가 기록관을 만든 것은 현재까지도 서예·미술사 연구에 유효한 자료들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오세창이 최대한 객관적으로 서화가 관련 문헌 자료들을 정리하였다고 할지라도 『근역서화징』은 오세창이 수집과 평가 과정을 거쳐 선별한 기록의 모음이다. 이는 원본 기록들의 파편이라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근역서화징』에 인용된 자료들과 인용되지 않은 자료들을 기록학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문헌적 근거 자료로써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논의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장에서는 『근역서화징』의 편집체제와 서술 내용을 분석하고 편집자의 평가가 반영된 인용 형태와 인용 자료의 선별 상황을 파악하였다. 『근역서화징』 범례에 제시된 편집체제를 토대로 각 서화가 항목의 서술 내용을 파악해 본 결과 『근역서화징』에는 서화가의 인적 정보와 특기할 예술 분야, 그를 뒷받침할 실증 자료, 작품명·제발문, 오세창의 의견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를 통해 오세창이 『근역서화징』의 저술 목표를 서화가의 행적을 밝히고 기록하는데 두었음을 알 수 있었다. 서술 내용 중에서 특기할 예술 분야와 그를 뒷받침할 실증자료, 제발문은 각종 문헌 기록에서 인용하였다. 이 내용들이 서화가를 설명하는 주된 요소이기 때문에 『근역서화징』 자료의 객관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출전 원문에서 어떻게 인용되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3장에서는 서술 내용을 바탕으로 인용 형태들을 분석해 보았는데 『근역서화징』은 인용하는 과정에서 오세창의 자료 선별을 거쳐 부분적 발췌, 요약 등의 축약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인용 형태별 서술 내용을 파악해 보았을 때 서술 내용에 화가에 대한 평가가 있는 자료는 원문을 모두 인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화가의 일화는 그림에 관한 내용이 잘 드러나는 부분을 발췌하여 인용하였다. 그리고 작품에 쓴 시 중에서 화평이 없는 시의 경우에는 제목만 인용하거나 여러 제화시 중에서 일부만 인용하기도 하였다. 예외도 있었지만, 오세창은 화가와 그림 관련 행적이 잘 드러나는

내용을 위주로 인용하였다. 원문을 요약하여 인용한 것은 원문을 전체 인용한 것과 부분적으로 발췌하여 인용한 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 편이었다. 요약은 서화가의 전반적인 행적 중에서 그림과 관련된 일화를 위주로 하였다. 결론적으로 인용 형태의 유형을 떠나 문헌 기록에 화평이나 화가 관련 일화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인용한 것으로 보아 오세창은 서화가의 행적을 모으는 것에 주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서화가의 작품과 작품에 남아있는 기록은 서화가의 행적이나 내력과 비교했을 때 오세창의 선별기준에서 후 순위였다고 볼 수 있다.

4장에서는 『근역서화징』에 인용한 전체 문헌을 종류별로 분석하였다. 이어서 『근역서화징』에 인용된 문헌 목록인 채용군서목과 오세창의 개인 장서들로 구성된 위창문고 목록을 비교하여 오세창의 기록 수집·선별 경향을 파악해 보았다. 그 결과 오세창의 기록 수집·선별에는 북학, 고증학 등과 같은 가학 및 역관 집안 배경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작용한 면모를 보였다. 이와 같은 특징은 『근역서화징』 기록의 객관성을 재고해 볼 수 있도록 한다. 다음으로 오세창이 『근역서화징』에 인용한 자료의 간행 상황을 분석하고 오세창이 인용하지 않은 필사본 및 간행된 자료들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당대 필사본으로 존재하거나 간행되지 않아 오세창이 볼 수 없었던 자료들도 있지만, 당시 볼 수 있었음에도 오세창이 인용하지 않았던 자료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간행본 중에서도 오세창이 인용하지 않은 서화가 자료들은 서화가의 작업 과정을 생생하고 상세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정보들도 있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 『근역서화징』의 저술 목적이 서화가들의 ‘모든 자료’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서화가’를 정리하는 것이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근거는 “예술로서 이름이 나서 옛날 기록에 나타난 자는 모두 열거하였다.”라고 오세창이 범례에서 밝힌 것에서도 드러난다.

따라서 위와 같이 인용 형태와 인용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오세창이 『근역서화징』에 인용한 자료는 개별 서화가에 대해서 그림 관련 행적과 내력 위주의 한정적인 정보만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점을 찾아내었다. 작품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자료들은 『근역서화징』에 부분적으로 축약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 『근역서화징』 밖에 산재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근역서화징』에는 다른 자료에서 찾아볼 수 없고 『근역서화징』에만 남아있는 서화가 자료들도 있다. 현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인용 자료와 오세창의 개인 의견, 참고문헌 표시가 없는 자료들이 그에 해당한다. 현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인용 자료는 失傳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근역서화징』에 있는 자료가 원전 대신 문헌적 준거로서의 가치를 가진다. 그리고 『근역서화징』에 있는 출전 정보를 바탕으로 원문을 발견할 만한 여지가 있으므로 현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인용 자료 또한 문헌적 증거로서 가치가 있다.

본 논문은 『근역서화징』의 서술 체계와 인용 사항을 기록학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근역서화징』 기록의 선별 및 평가 과정을 추론하였다. 이를 통해 『근역서화징』이 담고 있는 자료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기초연구를 수행한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근역서화징』 전체 기록 중 일부에 한정된 문헌 비교를 통해 기록학적 관점에서 의문을 풀어보는 기초 작업일 뿐이다. 이에 대한 후속연구로 『근역서화징』의 전체 자료 분석을 기반으로 한 인용 형태 분석이 진행되어야 오세창의 선별 기준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오세창이 변형하여 인용한 기록과 관련하여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역서화징』에 인용된 문헌들과 위창문고 문헌들의 내용을 비교하여 오세창이 참고한 판본이 무엇인지 점검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현전 여부를 알 수 없는 출전은 앞으로도 문헌 고증 작업을 통해 그 원문을 찾아 나가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근역서화징』의 이용가치가 높아질 것이라고 본다. 더불어 『근역서화징』과 같은 고문헌 자료의 기록학적 분석을 위해서는 앞으로 학문적 용어 정의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 『근역서화징』과 같이 서화 관련 기록을 정리한 문헌 자료들의 정리·기술 체계에 대한 기록학적 연구를 통해 지속적인 문헌 발굴과 고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화가 관련 문헌 및 작품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기를 바란다.

## 부 록

[부표 1] 『근역서화징』의 채용군서목<sup>1)</sup>

n	분류	근역서화징 서명	저자	간행년도
1	역사서	『삼국사기 三國史記』	김부식 金富軾	
2	시화 잡록집	『파한집 破閑集』	이인로 李仁老	1911
3	시문집	『동국이상국집 東國李相國集』	이규보 李奎報	1241
4	시문집	『보한집 補閑集』	최자 崔滋	1254
5	역사서	『삼국유사 三國遺事』	석일연 釋一然	
6	시문집	『익재집 益齋集』 / 『益齋亂藁』	이제현 李齊賢	1698
7	시화 잡록집	『역옹패설 櫟翁稗說』	이제현 李齊賢	1342
8	시문집	『목은집 牧隱集』	이색 李穡	1404
9	시문집	『포은집 圃隱集』	정몽주 鄭夢周	1439
10	시문집	『도은집 陶隱集』	이숭인 李崇仁	1406
11	시문집	『양촌집 陽村集』	권근 權近	1674
12	시문집	『춘정집 春亭集』	변계량 卞季良	1825
13	기타	『백률사중수기 栢栗寺重脩記』	윤사첨 尹思瞻	
14	역사서	『고려사 高麗史』	김종서 등 金宗瑞等	
15	공동시집문집	『육신유고 六臣遺稿』 / 『六先生遺稿』	박팽년 등 朴彭年等	1658
16	시문집	『보한당집 保閑堂集』	신숙주 申叔舟	未詳
17	시문집	『사가정집 四佳亭集』	서거정 徐居正	1705
18	시문집	『필원잡기 筆苑雜記』	서거정 徐居正	1487
19	시화	『동인시화 東人詩話』	서거정 徐居正	
20	시문선집	『동문선 東文選』	서거정 徐居正	1478
21	시문집	『진양세고 晉陽世稿』	강희맹 姜希孟	未詳
22	시문집	『사숙재집 私淑齋集』	강희맹 姜希孟	1805
23	관찬지리지 총서	『동국여지승람 東國輿地勝覽』	노사신 등 盧思愼等	1484
24	시문집	『점필재집 佔畢齋集』	김종직 金宗直	1789
25	시문집	『매월당집 梅月堂集』	김시습 金時習	1583
26	필기잡록류	『용재총화 慵齋叢話』	성현 成俔	
27	시문집	『추강집 秋江集』	남효온 南孝溫	1577
28	시문집	『사우명행록 師友名行錄』	남효온 南孝溫	1971
29	잡록집	『청파극담 靑坡劇談』	이육 李陸	
30	시문집	『눌재유고 訥齋遺稿』	박증영 朴增榮	未詳
31	시문집	『탁영집 濯纓集』	김일손 金駟孫	1512
32	잡록집	『소문쇄록 謏聞瑣錄』	조신 曹伸	
33	법집	『해동명적 海東名蹟』	신공제 申公濟	

1) 간행년도를 적을 때 초간본의 간행년도가 파악되는 것은 초간본의 간행년도만 적었다.

34	시문집	『눌재집 訥齋集』	박상 朴祥	1796
35	시문집	『황화집 皇華集』	이행 등 李荇 等	
36	시문집	『읍취헌집 挹翠軒集』 /『挹翠軒遺稿』	박은 朴闇	1514
37	기타	『대동연주시격 大東聯珠詩格』	유희령 劉希齡	
38	야담설화집	『용천담적기 龍泉談寂記』	김안로 金安老	
39	수필집	『괘관잡기 稗官雜記』	어숙권 魚叔權	
40	시문집	『퇴계집 退溪集』	이황 李滉	1843
41	시문집	『남명집 南溟集』	조식 曹植	1604
42	시문집	『하서집 河西集』	김인후 金麟厚	1789
43	역사서	『병진정사록 丙辰丁巳錄』	임보신 任輔臣	
44	시문집	『허씨세고 許氏世稿』	허흡 許洽	1806
45	시문집	『만죽헌유고 萬竹軒遺稿』	정현 鄭蘋	未詳
46	시문집	『팔곡집 八谷集』	구사맹 具思孟	1648
47	시문집	『임연재집 臨淵齋集』	배삼익 裴三益	1855
48	시문집	『율곡집 栗谷集』 /『栗谷全書』	이이 李珣	1814
49	시문집	『졸옹집 拙翁集』	홍성민 洪聖民	1631
50	수필집	『월정만록 月汀漫錄』	윤근수 尹根壽	
51	시문집	『옥봉집 玉峯集』	백광훈 白光勳	1608
52	시문집	『해사록 海槎錄』	김성일 金誠一	
53	백과사전	『대동운부군옥 大東韻府群玉』	권문해 權文海	
54	시문집	『간이당집 簡易堂集』 /『簡易集』	최립 崔岵	1631
55	시문집	『고죽유고 孤竹遺稿』	최경창 崔慶昌	1683
56	시문집	『서애집 西厓集』	유성룡 柳成龍	1894
57	시문집	『풍애집 楓崖集』	안민학 安敏學	1802
58	명부	『燃藜室記述』中 「무오당적 戊午黨籍」	이공익 李肯翊	
59	시문집	『오산집 五山集』	차천로 車天輅	1909
60	시문집	『백사집 白沙集』	이항복 李恒福	1629
61	시문집	『어우유고 於于遺稿』 /『於于集』	유몽인 柳夢寅	1832
62	설화집	『어우야담 於于野談』	유몽인 柳夢寅	未詳
63	시문집	『한음집 漢陰集』 /『漢陰文稿』	이덕형 李德馨	1634
64	사행록	『해사록 海槎錄』	경섬 慶暹	
65	백과사전	『지봉유설 芝峯類說』	이수광 李睟光	
66	시문집	『지봉시화 芝峯詩話』 /『芝峯集』	이수광 李睟光	1633
67	시문집	『월사집 月沙集』	이정귀 李廷龜	1636
68	시문집	『상촌집 象村集』 /『象村稿』	신흠 申欽	1629
69	시문집	『후천유고 后泉遺稿』	소광진 蘇光震	1898
70	역사서	『국조기사 國朝紀事』	심광세 沈光世	
71	시문집	『양포집 楊浦集』 /『楊浦遺藁』	최전 崔澱	1636
72	시문집	『완정집 浣亭集』	이언영 李彦英	未詳

73	잡저(야서)	『기재잡기 寄齋雜記』	박동량 朴東亮	
74	기타	『간죽 揀竹』	허균 許筠	
75	시문집	『惺所覆瓿藁』中 「지소록 識小錄」	허균 許筠	未詳
76	시문집	『惺所覆瓿藁』中 「성수시화 惺叟詩話」	허균 許筠	未詳
77	시선집	『국조시산 國朝詩刪』	허균 許筠	1695
78	시문집	『동계집 桐溪集』	정온 鄭蘊	1852
79	시문집	『청음집 淸陰集』	김상헌 金尙憲	1654
80	정쟁기록	『정무록 丁戊錄』	황유첨 黃有詹	
81	시문집	『석주집 石洲集』	권필 權鐸	1632
82	기행록	『부상록 扶桑錄』	이경직 李景稷	
83	기행록	『동사록 東槎錄』	강홍중 姜弘重	
84	기타	『월창화화 月窓閒話』 / 『月窓夜話』	이공 李珙	
85	명신록	『해동명신록 海東名臣錄』	김옥 金堉	
86	읍지	『중경지 中京誌』	김옥 金堉	
87	시문집	『현주집 玄洲集』	윤신지 尹新之	未詳
88	시문집	『수북유고 水北遺稿』	김광현 金光炫	1805
89	시문집	『택당집 澤堂集』	이식 李植	1674
90	시문집	『용주집 龍洲集』 / 『龍洲遺稿』	조경 趙綱	1703
91	시문집	『계곡집 谿谷集』	장유 張維	1643
92	문헌선회집	『해동잡록 海東雜錄』	권별 權輅	
93	사행일기	『해사록 海槎錄』 / 『東溟海槎錄』	김세렴 金世濂	
94	시문집	『미수기언 眉叟記言』	허목 許穆	1689
95	시문집	『동명집 東溟集』	정두경 鄭斗卿	1674
96	시문집	『백곡집 白谷集』 (직지성보박물관 소장)	석 처능 釋 處能	1683
97	시문집	『용서집 龍西集』	윤원거 尹元舉	1775
98	시문집	『동춘당집 同春堂集』	송준길 宋浚吉	1687
99	시문집	『범옹집 泛翁集』	홍주국 洪柱國	1709
100	시문집	『송계집 松溪集』	이요 李潯	1774
101	보록	『만성보 萬姓譜』	오이정 吳以井	
102	서첩	『전해심경 篆海心鏡』	김진흥 金振興	
103	시선집	『기아 箕雅』	남용익 南龍翼	
104	기행록	『부상록 扶桑錄』	남용익 南龍翼	
105	시문집	『문곡유고 文谷遺稿』 / 『文谷集』	김수항 金壽恒	1699
106	시문집	『정관재집 靜觀齋集』	이단상 李端相	1682
107	시문집	『남계집 南溪集』	박세채 朴世采	1732
108	사우(師友) 연원록	『동유사우록 東儒師友錄』	박세채 朴世采	
109	시문집	『지호집 芝湖集』	이선 李選	1856
110	시문집	『규정집 葵亭集』	신후재 申厚載	1778
111	서첩	『관란정첩 觀瀾亭帖』	이우 李俱	
112	역대임금	『열성어제 列聖御製』	이우 찬 李俱 撰	

	시모음집			
113	시문집	『명재집 明齋集』 / 『明齋遺稿』	윤증 尹拯	1732
114	시문집	『우재집 迂齋集』	조지겸 趙持謙	1741
115	역사서	『공사문견록 公私聞見錄』	정재륜 鄭載崙	
116	시문집	『농암집 農巖集』	김창협 金昌協	1710
117	시문집	『삼연집 三淵集』	김창협 金昌協	1732
118	시문집	『지촌집 芝村集』	이희조 李喜朝	1754
119	시문집	『정재집 定齋集』	박태보 朴泰輔	1702
120	사행기록	『동사록 東槎錄』 / 『東槎日錄』	김지남 金指南	
121	시문집	『회암집 希菴集』	방두천 房斗天	1775
122	시문집	『노가재집 老稼齋集』	김창업 金昌業	1798
123	사행기록	『가재연행록 稼齋燕行錄』 / 『(老稼齋)燕行日記』	김창업 金昌業	
124	보록	『해동호보 海東號譜』	정시술 丁時述	未詳
125	지지(地誌)	『동경잡기 東京雜記』	성원묵 成原默	
126	인물전기	『화단畵斷』	윤두서 尹斗緒	
127	시문집	『곤륜집 昆侖集』	최창대 崔昌大	1725
128	시문집	『북헌집 北軒集』	김춘택 金春澤	1760
129	시문집	『성재집 省齋集』	고시언 高時彦	未詳
130	위향문인 시선집	『소대풍요 昭代風謠』	고시언 高時彦	
131	외교기록문 서	『통문관지 通文館志』	김경문 金慶門	
132	한문산문, 미술비평문	『聽竹漫錄』 中 「청죽화사 聽竹畵史」	남태응 南泰膺	
133	논설문집	『성호사설 星湖說』	이익 李瀾	1915
134	시문집	『완암집 浣巖集』	정내교 鄭來僑	1765
135	시문집	『서주집 西州集』	조하망 曹夏望	1854
136	시문집	『강좌집 江左集』 / 『江左文集』	권만 權萬	1800
137	시문집	『지수재집 知守齋集』	유척기 兪拓基	1878
138	시문집	『동계집 東溪集』	조귀명 趙龜命	1741
139	시문집	『동계만록 東溪漫錄』	조귀명 趙龜命	未詳
140	시문집	『겸산집 兼山集』	유숙기 兪肅基	1775
141	기타	『상고자생광기 尙古子生壙記』	김광수 金光遂	
142	시문집	『창하집 蒼霞集』	원경하 元景夏	1773
143	시문집	『월곡집 月谷集』	오원 吳瑗	1752
144	시문집	『미호집 洑湖集』	김원행 金元行	1799
145	시문집	『송호집 松湖集』	유언술 兪彦述	1832
146	서첩	『원교서결 圓嶠書訣』 -후편後編	이광사 李匡師	
147	시문집	『능호집 凌壺集』	이인상 李麟祥	1779
148	시문집	『한정당집 閒靜堂集』	송문흠 宋文欽	1788
149	시문집	『순암집 順菴集』	이병성 李秉成	1741
150	시문집	『석북집 石北集』	신광수 申光洙	1906



151	시문집	『단릉유고 丹陵遺稿』	이윤영 李胤永	1779
152	백과사전	『문헌비고 文獻備考』 /『東國文獻備考』	김치인 등 金致仁等	
153	시문집	『번암집 樊巖集』	채제공 蔡濟恭	1824
154	시문집	『이참봉집 李參奉集』	이광려 李匡呂	1805
155	시문집	『이계집 耳溪集』	홍양호 洪良浩	1843
156	시문집	『청성집 靑城集』	성대중 成大中	1840
157	사행록	『해사일기 海槎日記』	성대중 成大中	
158	시문집	『근재집 近齋集』	박윤원 朴胤源	1817
159	시문집	『금석집 錦石集』	박준원 朴準源	1816
160	역사서	『연려실기술 燃藜室記述』 별집 別集	이공익 李肯翊	傳寫本이 이공익의 생존시부터 유행
161	연행일기	『열하일기 熱河日記』	박지원 朴趾源	
162	시선집	『금금기질 錦衾紀質』 /『錦衾記實詩』	엄계응 嚴啓膺	
163	시문집	『송목관집 松穆館集』 /『松穆館燼餘稿』	이언진 李彦璘	1806
164	시문집	『청장관집 靑莊館集』 /『靑莊館全書』	이덕무 李德懋	1900
165	시평집	『청비록 淸脾錄』	이덕무 李德懋	1900
166	소백과사전	『앙엽기 盎葉記』	이덕무 李德懋	
167	풍속지	『경도잡지 京都雜志』	유득공 柳得恭	
168	시문집	『정유당집 貞蕪堂集』 /『貞蕪閣集』	박제가 朴齊家	1961
169	漫筆集	『주영편 晝永編』	정동유 鄭東愈	
170	공동시집문집	『옥계사집 玉溪社集』	최창규 崔昌圭	未詳
171	시문집	『병세집 竝世集』	윤광심 尹光心	未詳
172	인물지	『동국문헌록 東國文獻錄』	김성은 金性澈	
173	시집	『사명자집 四名子集』 /『四名子詩集』	차좌일 車佐一	1914
174	시문집	『어산집 漁山集』	정이조 丁彝祚	未詳
175	시문집	『강산집 薑山集』	이서구 李書九	未詳
176	위향시집	『풍요속선 風謠續選』	천수경 千壽慶	
177	시문집	『금릉집 金陵集』	남공철 南公轍	1815
178	문집	『여유당집 與猶堂集』 /『與猶堂全書』	정약용 丁若鏞	1938
179	시문집	『추재시고 秋齋詩稿』 /『秋齋集』	조수삼 趙秀三	1939
180	시문집	『풍고집 楓阜集』	김조순 金祖淳	1854
181	역사서	『해동역사 海東繹史』	한치윤 韓致淵	
182	기타	『두류산지 頭流山志』	김선신 金善臣	
183	사적기	『용주사사적기 龍珠寺事蹟記』	석 등운 釋等雲	
184	시집	『경수당집 警修堂集』 /『警修堂全藁』	신위 申緯	未詳
185	지리서	『고려고도징 高麗古都徵』	한재렴 韓在濂	
186	시문집	『대산집 臺山集』	김매순 金邁淳	1879

187	시문집	『항해집 沆漚集』	홍길주 洪吉周	未詳
188	시문집	『경산집 經山集』	정원용 鄭元容	1895
189	시문집	『과재집 果齋集』	성근묵 成近默	1883
190	성씨 계보	『성원록 姓源錄』	이창현 李昌鉉 이명희 李明熾	
191	시문집	『완당집 阮堂集』	김정희 金正喜	1934
192	시문집	『소재집 歙齋集』	변중운 卞鍾運	未詳
193	기타	『초산잡저 樵山雜著』	유최진 柳最鎭	
194	시문집	『육교시고 六橋詩稿』 / 『六橋稿略』	이조묵 李祖默	1877
195	기타	『나려임랑고 羅麗琳瑯攷』	이조묵 李祖默	
196	시문집	『동변집 東樊集』	이만용 李晩用	1909
197	시문집	『해거재시초 海居齋詩抄』	홍현주 洪顯周	1832
198	인물전기집	『里鄉見聞錄』 中 「겸산필기 兼山筆記」	유재건 劉在建	
199	위향시집	『풍요삼선 風謠三選』	유재건 劉在建	
200	시문집	『성재집 性齋集』	허전 許傳	1903
201	인물전기집	『호산외사 壺山外史』	조희룡 趙熙龍	
202	자서전적 저술	『석우망년록 石友忘年錄』	조희룡 趙熙龍	未詳
203	시문집	『비연상초 斐然箱抄』	장지완 張之琬	1857
204	시문집	『침우담초 枕雨談草』 / 『枕雨堂集』	장지완 張之琬	未詳
205	시문집	『은송당집 恩誦堂集』	이상적 李尙迪	1848
206	편지모음집	『해린척소 海隣尺素』	이상적 李尙迪 輯	1896
207	시문집	『교정시초 皎亭詩草』 / 『皎亭詩集』	현일 玄鎰	1906
208	시문집	『대산집 對山集』	강진 姜潛	1868
209	시문집	『환재집 獮齋集』	박규수 朴珪壽	1913
210	시문집	『하원집 夏園集』/『夏園詩鈔』	정지윤 鄭芝潤	1854
211	법첩	『고금역대법첩 古今歷代法帖』	박문회 朴文會	
212	시문집	『온유재집 溫裕齋集』	윤중섭 尹鍾燮	1879
213	시문집	『두남시선 斗南詩選』	조인규 趙寅奎	1881
214	시문집	『동곡집 東谷集』	김재희 金在義	1901
215	편지	『고람척독 古藍尺牘』	전기 田琦 輯	
216	서화비평서	『예림갑을록 藝林甲乙錄』	전기 田琦 輯	1849
217	공동시집문 집	『벽오당유고 碧梧堂遺稿』	나기 羅岐	未詳
218	시문집	『고환당집 古歡堂集』 / 『古歡堂收艸詩稿』	강위 姜瑋	1889
219	기타	『천죽재차록 天竹齋筴錄』	오경석 吳慶錫	
220	서첩	『삼한금석록 三韓金石錄』	오경석 吳慶錫	
221	기타	『금대홍설 金臺鴻雪』	오경석 吳慶錫	
222	시문집	『홍약루회인시록 紅藥樓懷人詩 錄』 / 『紅藥樓詩初集』	김석준 金奭準	1865
223	시문집	『홍약루속회인시록 紅藥樓續懷 人詩錄』	김석준 金奭準	1865

		/『紅藥樓續懷人詩錄』		
224	기타	『육객시선 六客詩選』	김석준 金奭準	
225	시문집	『간송시조 澗松詩鈔』 /『澗松詩鈔』	서만보 徐晩輔	未詳
226	기타	『연농유고 研農遺稿』	최성학 崔性學	
227	인물전기집	『일사유사 逸士遺事』	장지연 張志淵	1922
228	역사서	『조야집요 朝野輯要』	未詳	未詳
229	역사서	『소대기년 昭代紀年』	未詳	영정조대 편찬
230	기타	『기사통고 紀事通攷』	未詳	
231	시문집	『동사유고 東史遺稿』	권종상 權鐘庠	未詳
232	기타	『영남야언 嶺南野言』	未詳	
233	기타	『서곽잡기 西郭雜記』	이문흥 李文興	
234	잡록집	『송천필담 松泉筆談』	심재 沈粹	
235	역사서	『분충서난록 奮忠紆難錄』	유정 惟政	1739
236	인물전기집	『중간충렬록 重刊忠烈錄』	김노규 金魯奎	1798
237	인물지	『명신고 名臣攷』	未詳	
238	인물지	『국조인물고 國朝人物考』	未詳	
239	인물전기·평 론집	『영남인물고 嶺南人物考』	채홍원, 정약전, 이유수 등	1776-1800
240	인물전기	『진단인물 震旦人物』	未詳	
241	인물전기집	『진휘속고 震彙續攷』	未詳	1777-1906
242	인명사전	『잠영록 簪纓錄』	未詳	1801-1854
243	왕실족보	『선원보 璿源譜』	신석희 申錫禧	1900년대
244	보록	『만성병보 萬姓丙譜』	·	
245	목록	『고려과방 高麗科榜』 /『高麗文科榜目』	·	
246	목록	『국조문과방목 國朝文科榜目』	未詳	1719-1720 1725-1776
247	목록	『사마방목 司馬榜目』	·	
248	목록	『의과방목 醫科榜目』	·	
249	목록	『역과방목 譯科榜目』	·	
250	목록	『운과방목 雲科榜目』	·	
251	목록	『율과방목 律科榜目』	·	
252	목록	『사자청안 寫字廳案』	·	
253	목록	『도화서안 圖書署案』	·	
254	목록	『화사보략 畫士譜略』	·	
255	인물전기집	『화공파별 畫工派別』	·	
256	서첩	『대동서법 大東書法』	김생 등 金生 等	
257	서첩	『해동금석총목 海東金石總目』	·	
258	금석평집	『동국금석평 東國金石評』	이덕무 李德懋	
259	읍지	邑誌若干種	·	
260	보승	各家譜承若干種	·	
261	묘비	各家墓碑若干種	·	
262	제발	各人書畫題跋若干種	·	
263	서평집	『서정 書鯖』	오세창 吳世昌	
264	서첩	『근역서회 謹域書彙』	오세창 吳世昌	

265	화첩	『근역화회 槿域畵彙』	오세창 吳世昌	
266	시문집	『목재집 牧齋集』 / 『牧齋初學集』	전겸익 錢謙益	1644
267	인물전기집	『화림신영 畵林新詠』	진문술 陳文述	1855
268	서첩	『해동금석원 海東金石苑』	유희해 劉喜海	1831
269	화사(畵史)	『역대화사회전 歷代畵史彙傳』	팽온찬 彭蘊璨	1882
270	화사(畵史)	『해상묵림 海上墨林』	양일 楊逸	1919
271	역사서	『일본기 日本紀』	安麻呂	
272	화사(畵史)	『고화비고 古畵備考』	故朝岡興禎	1904
273	서첩	『초로관주 草露貫珠』	中村	

## [부록 2] 『근역서화징』 외에 현전하는 鄭敼 관련 기록

### [부록 2-1] 오세창 생전에 간행되지 않은 필사본 기록

#### 『承政院日記』

英祖 9年 癸丑 6月 9日 戊午 有政 吏批 判書沈宅賢牌不進 宋眞明進 參議未差 郡承旨趙錫命進 (중략) 鄭敼爲清河縣監 同 8月 15日 癸亥 下直 清河縣監鄭敼<sup>2)</sup>

英祖 9年 癸丑 12月 15日 壬戌 而以鄭敼之十一考觀之 可見其純褒也<sup>3)</sup>

#### 『西堂私載』

第4卷 題跋 題謙齋丘壑帖 近世號能畫 最稱洪金城得龜及尹上舍斗緒 然尹畫長於人物禽獸而短於山水 洪能山水 而規模最窄 今河陽使君鄭元伯後出 而名掩前人 其爲金成仲 寫嶺南及四郡諸勝 尤爲精妙 心與境融 境與筆會 凡山也水也岩石也樹木也 遠近濃淡 各極其態 余雖足迹未嘗及於嶺外 而若四郡則蓋嘗遍遊矣 今觀帖中所畫 皆彷彿得其形似 以此而知畫嶺外諸勝 亦必克肖眞形無疑矣 謂元伯胸中 有移山驅石之術 豈爲過也 世之沈酣利名者 不知山水之爲何物 其或因事偶經 其地去則忘之 今成仲既冥搜窮探 若飲食之飫於口矣 乃其意猶有所不嘆 至倩元伯一一摸寫 以爲終身臥遊之資 其愛山水 可謂篤矣 而志趣之超絕 又豈今世所有哉 病中就窓下展看 忽不知是身所處 卽闌闌塵囂之中 而芒鞋藜杖 恍若在乎鳥嶺月嶽之南矣 帖有空幅 漫題此以還之

#### 『玉所集』

第1卷 題鄭元伯散海嶽圖 琉璃滑碧 玉雪晴明伽藍 何來一個謙翁 風襟浩浩烟嵐

第2卷 見海岳圖 集水滙盈壑 招山峻極天 穿林疑捷屐 掛席畏輕船 日月斯須外 風雲顚仰邊 平生孔夫子

第9卷 黃江九曲圖記 (상략) 借謙齋鄭敼名手筆而傳摹之 (하략)

第10卷 題孔懷帖 (상략) 此甕衾盤龜二畫得謙齋名手筆 (하략)

#### 『和樵漫稿』

第4卷 題千益壽金剛圖 (상략) 善畫金剛 稱鄭元伯 崔北亦能之 (하략)

2) 강관식(2007), 「謙齋 鄭敼의 任官 經歷과 哀歡」, 『미술사학보』, 제29집, 미술사연구회, 156쪽; 심영옥(2019), 「검재 정선의 청하현감 시절 회화 업적 연구 - 《관동명승첩》을 중심으로」, 『검재정선미술관 학술자료집』, 제11집, 검재정선미술관, 110-111쪽에서 재인용

3) 심영옥(2019), 위의 논문, 112쪽

### 『山水軒遺稿』

第7卷 漢麓隱居圖 (상략) 倩謙齋君畫其山川庄宅之勝 名曰漢麓隱居圖 將遺後昆而永其傳 煩吾子一言爲記 (하략)

### 『牧谷集』

第1卷 李生鼎燁 袖示鄭河陽散嘉陵 山水畫帖 次帖中李一源秉淵韻題贈 綠水明堤柳拂舸 依依離落幾人停 江山恰是黃驪岸 不信嘉陵有此亭

### 『頭陀草』

第8卷 詩 題元伯畫 古木蒼藤路不分 山花開盡暗香聞 飛泉雨後無人賞 盡日亭空臥白雲

第8卷 詩 題李松老扇頭 元伯畫 欹側柴門小徑通 閒亭棊罷只松風 孤舟欲訪幽人去 一抹春山淡靄中

第8卷 詩 題鄭元伯四時屏畫 東掩人家住翠微 杏花落盡掩荆扉 溪南雨後看耕罷 一道穿雲緩緩歸 春 日午蒼嵐暗不開 東溪樹色綠於苔 幽人獨自携琴去 知是山亭看瀑來 夏 楓林深處盡漁家 數片青帘隔晚霞 天際夕陽帆影遠 一江秋色在蘆花 秋 江上柴門古木低 一天雲雪晚來迷 梅花側出疎籬外 時有清香過水西 冬

第8卷 詩 送元伯之任河陽 一領青衫半不新 十年薄宦走京塵 要知擊柝辛勤意 只爲高堂不爲貧 正月東風雪滿車 龍湫南畔嶺雲賒 知君此去饒清趣 管領河陽一縣花 邑小何妨如斗大 民淳多喜是羅餘 臨分不恨鸞栖棘 知尔親廚日薦魚 胸中自有先天學 筆下元無半點塵 已向畸人窺閬闕 便從玄宰奪精神 陶山一曲退翁屋 溪上柴門老木餘 早晚君行應縱筆 先將一紙寄於余

第14卷 雜著 題李一源所藏鄭戡元伯輞川渚舂後 此卷是元伯極得意筆 大有衡山華亭意思 比海岳諸舂 更覺秀雅 近日詩畫 果如三淵正甫所云有勝似前輩處 但雕鏤太甚 反乏前輩真樸氣味 此意正甫元伯不可不知也 正甫跋中 一源不知畫不合有此卷 一語極妙 吾與正甫能知而不知有 正類仁者不富也 一源見此 想更絕倒 乙未仲夏雨中 澹軒書于遠志堂 一源之宰花江 有兩箇好因緣 見金剛面目一也 得鄭君此帖二也 一源之爲吏而能事事不俗如此 金三淵謂近日工詩者多 遠過曩時一番前輩 余謂繪素家亦然 若鄭君此帖 豈懶翁虛舟輩所夢見耶 余自幼病於嗜畫 人家所藏 必自蓄之後已 近頗不然 意謂嗜好已退 今見是帖 甚使人欲之 始知前所謂不然者 乃以世無佳畫 非余病之瘳也 余觀此帖 其用筆極不俗 遂當爲寶藏 以一源之不知畫不合有此帖 特以其詩之妙 堪配此畫耳 正甫 余非謂正甫元伯真有雕鏤之病 近日習氣大抵如此 欲兩君於此尤着眼也 余家宛委閣 只有數十幀古縑 如近日諸人筆絕無存者 可知余蓄畫無多 且廉於取畫也 正甫今以富而益貪啗我 又冀一源愛弛 欲全收漁人之 一源非三尺童子 焉能墮其雲霧中 正甫則宿恙果發矣 一笑 載大又書 載大所謂乏前輩真樸氣者固善矣 此非直雕鏤之失也 正以其眼太精格太備 反累真氣耳 余於載大仁者不富之語 不覺捧腹 余於書畫 固貧儉者 如載大所藏 何嘗不富哉 當其撤還常山也 牛馬之輦載書畫者 尾相續不絕於路 盜以爲貨也 而欲取之 至相守連夜不得寐 家人輩恚罵曰此何物無益而怖我如此 欲投之爨火 載大苦爭僅得免 此事盛爲洛下所傳 而今於斯卷闔然有欲得之意 此真富而益貪者 不類於所自道矣 一源它日於此卷愛衷 固宜施與如我貧儉者 不當輕許載大以繼其富 如此方是仁者事 未

知一源以爲如何 正甫又書

### 雜著 題一源所藏海岳傳神帖

**楓岳如駁娑**，建章諸大宮觀 披襟卽其金馬，公車亦 元伯最初下手 宜其在是矣

**金城披襟亭** 烟雨空濛 葉舟橫江 雖非訪岳行色 此亦堪畫 前年過昌道驛 景色極相彷彿 但乏一源之詩元伯之畫以識之也

**通溝暮雨** 人言墨喜領 了了見楓岳 楓岳非楓岳 領是山面目 何必入山中 然後乃快意 我初聞此言 此言頗有理 譬如飲水者 滿腹便卽止 游山見真面 此外復安希 子猷真吾師 興盡當返故 及我登茲嶺 眼如合琉璃 四顧了無見 焉卞山容姿 得非言者妄 令我悅驚疑

此余墨喜領詩也 向使老子得快觀此卷中所描 此半白半黑數千百箇髮根 恐芟淨都盡 一笑

**斷髮嶺** 山映樓前 只有二三峰嶠秀可愛 此幅微似攢疊 豈元伯興到時 信手揮洒 只求其趣 不求其形似歟 此乃畫家相馬法 驪黃牝牡 略之何害

**長安寺** 山河大地 本一空界耳 元伯此筆 如李嵩髑髏圖 深悟本來面目 或嫌其當面不着萬二千峰 癡人前說夢難矣

**正陽寺** 霞潭之清壯 鑪峰之峭秀 乃欲以筆力爭雄 元伯固不凡 使雲林，石田輩作此 另具一種澹逸風致 不至此太密塞也

**萬瀑洞** 余平生與元伯不交一面 今因此卷 不獨得其畫法 兼得其爲人 寫景設色之工固可喜 其操縱殺活 正自難及 正陽前若排却萬二千峰 不過爲一幅盆景圖 故作烟雲掩藹狀 還它空界本面目 特於此段 匠心布置 幻出無限玉芙蓉 以逞其雄秀之筆 此正元伯操縱殺活處 唯知者知之也 余取愛任文仲紅錦步障語 但少此光景 元伯能更爲我下筆否

**內山揜晷** 余登佛頂臺 有詩曰只將側面看西瀑 此着應須讓隱仙 隱仙長處正在正面看瀑 佛頂固讓一籌 隱仙只一山麓 不成臺形 且危側不使人樂 佛頂不然 奇岩轟立作臺 獨木橋極有韻致 此則隱仙更輸一着也 不以全巧與物 自是化翁戲劇處奈何

**佛頂臺** 上白雲之峰巒 外九龍之瀑布 非特眉宇一山而已 自是天下瑰瑋絕特之觀也 不得元伯好手貌出 極缺陷事耳 倘有好事者 拉元伯再東寫得 此時若此紙不妨茶毗

**出山晷** 海山妙在觀海 帶湖妙在望岳 海山闊大 以氣象勝 帶湖秀麗 以風神勝 大較二亭 未易軒輊也 世多幅湊海山 而帶湖則冷眼看過 噫 名區勝地 亦有幸不幸歟 元伯筆意 微見抑揚 恐亦爲名壓倒也

**海山亭** 三日湖如絕色美人 意態種種具足 所欠者白沙一帶 亦太真微肌處 若得香山，雪堂輩以樓臺花木粧點如西子湖 亦足補缺也

**三日湖** 二十年前烈山途中觀日出 大海忽作紅錦世界 一座火山湧出其中 眞天下奇觀 未知門巖所見 與此何如 秋晴後登毘盧頂觀之 想更快也

**門巖觀日出** 門巖在三日湖東 瓮遷 畫亦可不畫亦可 第其縈雲石棧 拍天銀濤 開卷便是 始覺良工苦心 正在阿睹中也

**瓮遷** 門岩在內山 固爲奇物 忽於海濱平沙中得之尤奇 吾詩曰叢 石未到果何似 門岩亦足豁吾眸 吾之待此丈 亦自不薄也

**通川門巖** 余游叢石日 風濤大作 不能泊舟其下 仰視奇偉之勢 極可恨 然傳岸一着 終爲叢石短處 安得巨靈神擲置海中 如七星石耶

**叢石** 觀山水如觀美人 所閱雖多 而或聞名未覩其面 則柔腸所牽 正復在是 此實人情可笑處 去歲余東游 上毘盧探龍淵 艤舟三日之湖 披襟叢石之亭 可謂極天下壯觀也 歸後戀戀 只是侍中湖一曲 老子於此 亦不免情癡 眞堪一噓 且斫巨螯佐酒 聆主人公好詩 是快活事 一併失之 此亦可恨耳

**侍中湖** 侍中湖蟹 爲東國第一 主人卽趙毅仲 有能詩聲 余嘗愛摩詰不知香積寺 數里入雲峰 古木無人逕 深山何處鍾 元伯此幅 宛然此詩也 自古工詩者多善畫 蓋詩情與畫意相通 品格自然清高 意者元伯亦工於詩者耶

**龍貢寺** 在通川 凡畫傳神則難 能得七八分形似 斯亦高手也 元伯海岳諸圖 其妙處幾乎傳神 其平處又皆得其形似 吾所見者已如是 則所未見者自可反隅 他日挾此卷以東 庶免禾淵生客也

**禾積淵** 在鐵原 三釜淵奇甚 一源此詩更奇於三釜淵矣 詩曰上釜落中釜 波濤下釜懸 仰看全一壁 誰得窺三淵 太始思龍攫 千年驗溜穿 無由問造化 倚杖獨茫然 反復諷詠則絕壁天懸 飛流噴薄之狀 凜然在目 便覺丹青絹素 又一贅疣也

**三釜淵** 在鐵原 白雲紅樹 秋色方佳 正好騎驢入山 而況彩服與嵐翠交映 塤箎共泉聲迭鳴 一源此行 何減楊州鶴耶

**入山圖** 寫於卷末 余一宿近民堂 清池古柳 極有幽致 恨不得數日留連 未知一源以何福力 能享得六載閒臥耶 池中五拳石一切椎碎 毋汙元伯筆端可也

**近民堂** 在金化 柏田不過一頑阜 果如毅仲語也 昔龍門生記 魏東 門爲一老抱關而已 顧此萬柏森翠中 尚有忠魂毅魄倘佯不去 則其可畫耶不畫耶

**栢田** 在金化 是洪巡察命考戰死處 李一源宰金化時 挾鄭穀元伯東游 遇海山奇處 輒拈筆模寫 凡得三十餘幅 既要金丈子益 趙使君毅仲逐段作跋語 又俾余武着 不獲辭 遂書此塞白 載大書

**後識** 胸中須有一副金剛山 槎牙肺腑者 俱爲雲嵐木石 然後方可謂善觀金剛山矣 然則此等繪素文字 并屬蛇足 一源欲作善觀人 須以此卷與我 一笑 澹軒居士又戲題

**第14卷 東遊錄** 二十八日 一源出示所藏畫卷 其中有鄭穀山水 筆法摹唐人 乏骨氣 用墨又枯燥 遠遜於尹孝彥矣<sup>4)</sup>

**第15卷 雜著 題鄭元伯 散 畫卷** 余病臥墻東之寓舍 元伯見過同宿 夜中風雨淒然 雷聲隱隱 遂明燈起坐 相對太息 元伯拈筆作風雨驟至之狀 又置茆屋於萬峰中 松扉竹籬 景致幽絕 其意蓋欲得一區福地 與余偕隱 如畫中人 但未知何時能了此一段因緣也 時己亥十月八日也

元伯此卷 雖多忙筆 然諦觀之 濃度意態 種種具足 無一毫蹉跌處 元伯難及處正在此 東人之畫 其病大抵有二 陋也淺也 元伯好以濃墨作重嶺攢峰 長林古木 互相掩映 氣象自然深遠 元伯之意 雖欲矯東人之病 此正元伯得畫家三昧處也 余嘗戲謂元伯曰君之畫源 多出於大癡老仙富春春山圖 元伯亦一笑首肯 金山病夫 燈下又題

**第18卷 雜著 題金君 光遂 所藏鄭元伯輞川圖** 元伯有輞川圖二 一爲一源作 一爲金君光遂作 俱非得意筆 而一源所藏 失之太精細 此又失之太爛熟 然不蹈襲郭李餘意 專取摩詰詩語 以自家胸中成法 寫作小景 布置設色 筆意淋漓 每一展卷 村邊杏花 寒山遠火 令人恍然便若置身於歙湖南垞之間也 余嘗愛摩詰藍溪白石出 玉山紅葉稀 山路元無雨 空翠濕人衣一絕 坡翁亦曰味摩詰之詩 詩中有畫 觀摩詰之畫 畫中有詩 蓋謂此也 今卷中獨少此一段光景 抑何

4) 진홍섭(2002), 『한국미술사자료집성』 8, 일지사, 209쪽



也 老夫他日亦要元伯作輞川圖 倘以此意補作一筆 尤豈不佳耶

### 『觀我齋稿』

**第2卷 序 送三陟府使李秉淵序** 不佞平生 無所嗜愛 惟山水詩畫篤好焉 然有究諸心而未得者也 夫詩之學尚矣 畫亦自旂章鼎鍾而上 古聖人之所不廢也 至於山水之遊 始自何人 而無論逸士騷人 卽後世之大賢名儒亦且欣然起想 往往孤邁幽造若不可已者 夫詩觀性情 畫則文與書之所不能者求之於畫 固亦有所取也 彼清流白石 不過爲悅人心目者 何取於斯也 遊山水者動以孔子川上之歎仁智之說爲口實 然川上之歎 蓋夫子因其所遇而發也 黃鳥丘隅 孺子濯纓 罔非聖人觸事感通之妙 何獨爲洋洋之美也 仁智者氣像 如山之崇厚水之通運 自然有契於彼而樂之也 何嘗曰樂山與水然後爲仁爲智耶 且苟能善觀妙悟 馬嘶驢鳴 皆有至理 何處非山 何處非水 而必以蠟屐布襪窮探遠遊 重嶂度深壑而後爲仁智事也 竊究向子平，謝玄暉清虛之徒 自以托跡淵濶 寄心曠朗者爲之濫觴 蓋上古聖人未嘗爲也 而宋之儒賢不以爲非 如濂溪，晦菴，南軒亦皆喜遊佳山水 自是以至我東諸賢 遂以山水爲一大高致也 然賢者之看山也 翛然冲詣 其心目之間默悟冥契者 固有異乎人之看也 而末流漸大 庸俗效顰 及其弊也士則干謁官府 求丐苟且 以資濟勝之具 爲官者荒廢職事 貽怨僧民 甚之輕擲性命 度越險危 拋棄時月 往而忘返 筋力疲勞 僕隸愁苦而皆莫之恤 且山水之鄉 雖雄府饒邑 士大夫公言求之 無所嫌焉 尚何仁智之可論也 夫詩與畫 雖痼癖如賈島之椎敲 王涯之複壁 其害及於其身而止已 山水之遊 害于身而及於人者如此 而儒者獨詩與畫或多攻之 而遊山一事 未見有慮後弊而戒之者何哉 不佞好遊山水 而恒恐一朝有人以是難之則顧無以發明儒者之意而以自解也 吾里槎川翁 以詩鳴於世而盡與山水痼癖久矣 今出宰三陟府 海山之勝 甲於我東 翁未至而請鄭元伯先作大關嶺圖 揭之壁上 且待下車之日 大欲跌宕吟哦於竹西凌波之間 俯滄溟而憩蓬壺矣 將行責余以驢語 遂書其所嘗未喻于心者 因以質焉 幸翁之解其說而使不佞得有藉口 則不佞亦當求一麾於嶺東 得與周旋於泛海之舟藉草之席矣

**第3卷 跋 丘壑帖跋** 元伯此卷 用墨無跡 渲染有法 深沉森蔚 濃潤秀麗 殆可入於南宮華亭之藩籬 本朝三百年 蓋未見有如此者也 竊謂我東之畫山水者 於輪廓位置十六皴之法 萬流曲折一絲不亂之說 未有能知之者 故雖層峰疊嶂 惟以水墨一例塗抹 不復辨其向背遠近高下淺深土石夷險之勢 畫水無論潺湲與洶湧 並執兩筆 作繩交形 豈復有山水哉 余嘗論之如此 而元伯亦以爲是也 元伯嘗家居白岳山下 意至輒對山而寫 掠皴行墨 有自寤於心者 既而出入金剛內外山 又遍嶺南上游諸勝 盡得其流峙之勢 而若其功力之至則亦幾乎埋筆成塚矣 於是能自創新格 洗濯我東人一例塗抹之陋 我東山水之畫 蓋自元伯始開關矣 然余見元伯所爲金剛諸山帖 皆以兩筆豎尖掃去 作亂柴皴 是卷(구학첩)亦然 豈嶺東嶺南山形故同歟 抑元伯倦於筆硯而故爲是便捷耶 且其鋪置 往往太皆密塞 滿幅丘壑 無一窺天色 元伯之畫於落筌手段 似猶有所未盡者 未知元伯以爲如何

**第3卷 贊 謙齋寫槎川老燭齋圖贊** 有石如負 北嶽之巖 有屋寬深 活埋之庵 種蕉成林 綠雪半庭 法書古畫 與之陰冥 中有一老 倚窓而坐 與誰爲友 風月與我 所事維何 酬風答月 今日來日 有事不輟 少非方外 老非隱淪 其詩萬首 渭南之倫

**第3卷 跋 題昭文帖** 中朝人記東國事曰 壁間多不工之畫 眞名言 若使見此卷 未知以爲如何也 聞文生以錢三千得此卷 三千錢買數畝田則二口家可卒半年 而文生乃於此用力甚勤 無亦近於鄭賈周璞之譏歟 然謙齋畫可爲一狐腋 三千錢庶不虛擲矣 文生因人求余一語 遂書此以歸之 癸丑仲秋 觀我病夫題

**第4卷 哀辭 謙齋鄭同樞哀辭 己卯五月** 鄭公諱歆字元伯 自號謙齋 光山人 自少居于漢師之北里順化坊白岳山下 余亦世居順化坊 少公十歲 余竹馬時 公已儼然冠者 故常敬之 未嘗爾汝焉 公以畫名於世 余亦癖好畫 略解三昧 然余則不爲從事 而公則日益精熟 六要六法 無不精解 蓋我東畫者 未有識此者 至公博覽古畫 工夫且篤 多出前人所未解者 是故名日益重 縑素日益積而不自暇 則又學倪雲林 米南宮 董華亭 用大渾點爲應猝之法 世之學畫者 但見公中年倦筆意 謂畫當如此 競相效顰 然其淋漓潤澤 世無及焉者 每有得意筆 未嘗不示余 及移居于余家傍隣 相距數十步近 則角巾藜杖 朝往夕來 殆無虛日 三十年于今 則知公終始 殆無如我矣 蓋公性本和夷 孝於親友于兄弟 與人交 一切無表襮 家甚貧 菽水屢闕 而亦未嘗以非義干人 公且邃於經學 論中庸大學首尾貫通 如誦己言 晚又喜周易 晝夜用力 手自抄錄如蠅頭 不少懈 然人徒知公名於畫而不知公邃於經學如此也 豈所謂魏鄭公文辭 爲直諫所掩 歐陽公政事才 爲文章所蔽者耶 公歷河陽 清河 以板輿榮養兩邑 壽踰八耄 官躋二品 榮及三世 苟非公仁厚之德誠孝之篤 何能如此哉 君上亦不名公而稱其號 上自卿宰 下至輿僮 無不識公之名 得寸紙如得拱璧 以爲傳家寶 則其遍歷清官 以誇一時之觀聽 而厭厭若松下人者何如哉 然則外物之榮辱清濁 何有於公 嗚呼 余尚記戊午冬 公與余有約 一日風清月白 公携其季子而至曰吾當如約 索筆硯 就門扉上作浙江秋濤 瞬息揮灑 筆勢奇壯可觀 余作詩曰鄭老中宵豪興生 開門直入喚陶泓 淺深磨墨供神運 左右張燈助眼明 六筆并驅風雷迅 三屏盡濕浪濤驚 吾堂自此增顏色 藝苑居然好事成 翌日岳下李公聞之 亦次其韻 其日余忽除安陰 給馬發遣 遂與公暫別而行 居六年限滿逆歸 復對公門上畫 若隔晨事 復擬要公請以淡彩渲染 因循未果 其後余爲白川 公亦出外邑 而門上畫爲人奪去 荏苒之間 已過二十餘年 而公亦下世 事跡如掃 可悲也夫 吾今年老 不能起居 公之歿 葬期隔日 而余尚未往哭 負公多矣 公之諸孤以挽語見屬 余不忍無一語 茲敢力疾作哀辭一通 以抒余悲 一以見公之槩云 辭曰 再奉專城養兮 甘旨無缺 推恩三世兮榮耀極兮 聖主稱其號兮 輿僮識其名 昔人重名成兮 或以醫或以劍術或以博奕 甚至投身紅爐 不顧其死生 故曰君子疾沒世而名不稱 若公者雖不能立德立功 生既名於一世 歿而垂之身後 傳之百代之久 其可謂死而不朽者歟

### 『豹菴遺稿』

**第4卷 遊金剛山記** 鄭則以其平生所熟習之筆法 恣意揮灑 毋論石勢峯形 一例以裂麻皴法 亂寫 其於寫眞 恐不足與論也

### 『并世才彥錄』

鄭歆 字元伯 號謙齋 官陽川縣監 以畫世稱鄭謙齋 或稱鄭陽川畫 以畫之鉅匠故也 畫淋漓有元氣 然用筆似帶粗氣 然雖滿紙之畫 不有一點筆痕墨暈 應一國畫 不知幾紙絹之揮灑 當時

詩非李槎川 畫非鄭謙齋 不數之 謙齋畫冠當世 元氣外 其熟不可當也 副求不勝支當 或代其子畫 其畫瞥見 不能卡父手 然元氣與熟 不及謙畫 各物盡善 時人以五十竹摺扇 受謙畫金剛山圖 爲把之奇品

### 「鶴山閑言」

鄭謙齋叡 字元伯 善繪畫 而尤妙於山水 世稱三百年來 丹青絕品 求者如麻 而酬應不倦 余亦以北里同閨 得共山水三十餘張 常珍愛之 一日余詣槎川李公 見其架上 堆積唐板牙籤 環之壁上 余曰戚丈 唐板書 何如是多也 李公笑曰 此爲一千五百卷 皆吾自辨者也 已而又曰 人誰知皆出於鄭元伯 北京畫肆 甚重元伯之畫 雖掌大片紙畫 莫不易以重價 吾與元伯最親 故得其畫最多 每於燕使之行 無論大小 卽付之 以買可觀之書 故能致如此之多 余始知中原之人 眞知畫 不如我人之徒取名也

### 『和樵漫稿』

第5卷 書謙齋山陰夜雪圖後 此障子余輒於冬月張之 值境寄興 有可以想像髣髴者也 余居臨溪 溪連湖水 可移舟運棹 衰柳欹岸 老檜蒼然 雪滿月上之時 率爾出門 顧影婆娑 宛若置身畫中 而自無子猷 又安有戴安道哉 爲之沈吟不已<sup>5)</sup>

### 《謙齋畫嶠南名勝帖》

獻齋直所 次李仲元 訪華村韻 要其留宿 一留君毋惜 月望我當歸 直所空持被 山齋未拂衣 逢迎皆有數 來往莫相稀 洛城他日夜 徒勞魂夢飛 癸酉南至前二日 借仲元山齋 信宿而歸 後二日 仲元又踵至 有徑歸之意 作此而挽 臘月初吉日 謙老題畫<sup>6)</sup>

## [부록 2-2] 출전목록에 있으나 인용되지 않은 간행본 기록

### 『蒼霞集』

第7卷 序 送李士浩 時中 往游楓嶽序 余雖未見楓嶽面目 而自謂眞得楓嶽之趣 則世未有先我者 盖嘗得於淵翁之詩 鄭叡之畫 不費凌躡登頓之勞 而衆香萬瀑 森然眼前 閉戶隱几 諷詠指點 而此身常在於楓嶽 臥遊名山 眞不羨古人也 其詩與畫 更何論乎 今李君士浩 告余以楓嶽之遊

### 『楓皐集』

第10卷 書 與張水屋道渥 又古畫二幅 卽係七八十年間 本國士人鄭叡所作 此公畫擅名本國 而此畫卽其望八後弄墨 題款亦自書 謙齋其號也

5) 진흥섭(2002), 위의 책, 184쪽

6) 최완수(1988), 「검재진경산수화고」, 『간송문화』 35, 한국민족미술연구소, 58-63쪽

『錦石集』

第4卷 詩 偶閱淵翁集 見題金剛內外山圖 欣然有賦 金剛全體在先生 吐出奇辭昔作評 鄭  
散畫神方有敵 槎川詩健未能爭 應從妙境渾融意 將與靈山共散名 病枕欣然看海嶽 少文休道  
臥遊情

第3卷 詩 聞鄭謙齋家金剛圖扇 爲人所購 不知今在何處 歎惜有吟 萬二千峰一把中 謙翁  
神筆此尤工 莫嘆落在松人手 至寶終應在我東

『松湖集』

第2卷 詩 朴有道 大源 示謙齋畫帖求詩 書二絕而歸之 格力清奇意態工 世人知畫不知翁  
何論知不知翁者 翁自平生隱畫中 紅塵烏帽老容顏 何事關心尚未閑 相對晴窓題古畫 意中流  
水夢中山

『三淵集』

第5卷 題跋 題李一源海嶽圖後

金城披襟亭 楓嶽出入之濱 何可無此亭哉 翠樾澄川 好風有自 凡其流憇而蔭映者 太半是逸  
士韻衲 則披襟而當之 豈太守之所可私也哉

通溝暮雨 峽江清駛 參錯以疎樹欹石 白雨一邊 煙店微茫 歷歷喚渡 豈楓嶽尋僊之馭耶

斷髮嶺望金剛山 姑射冰雪之容 能使神堯喪天下 登茲嶺而斷其髮 亦奚異是哉

長安寺 祇園布金之廣 梵殿參雲之傑 揔爲一橋所壓 其飛虹偃月之勢 危乎人在半空 王喬之  
所控鶴 應眞之所飛錫 其皆由是而出入矣

正陽寺 樓拓敞軒 臺挺高杉 若有拱向而不見其處 阿堵中可想其無限奇觀 丹青所苦心 其在此乎

碧霞潭 金臺之聳 普德之懸 其間太峻隘 僅通杖屨 若使朱子品題 得無與越水閩山等貶乎 碧  
霞始快意 衆香之倒影尤奇 斯亦難得也已

金剛內山揔圖 山分內外 一以神秀 一以宏博 合之爲萬玉圍窟 大抵遠觀勝近觀 再遊勝始遊  
所以廻翔往復 乃至六七度理筇者 如此翁是已

佛頂臺望十二瀑 觀瀑之快 不如隱身而梯空迥立 猶有石梁韻致 鶴巢欹矣 松摧朽骨 四僊消  
息 搔首問青天可矣

百川橋出山 送者僧以輿返 候者馬向溪嘶 橋東橋西 其虎溪鯨海之吟乎 興有餘馱 詩未盈囊  
僊僊乎十洲在前矣

海山亭 天下壯觀 人知有岳陽樓也 然因其所小而小之 則洞庭爲蹄涔 君山爲培塿耳 獨不見  
夫屏障蓬萊 軒檻扶桑 灝氣所輸納 亭浮萬象之表乎 不恨生東國 賴有此亭矣夫

三日湖 六六峰外 十洲森矣 激灩平湖 宛在中央 此四僊亭之爲妙也 遊三日不厭 留六字不減  
豈凡情可容題品

高城門巖觀日出 金雞唱耶 人上高頂 目力所及 紅漲萬頃 迢迢其望 杲杲猶遲 幻輪頻呈 翔  
陽始躋 陸離上下之際 變態在茲矣

**甕遷** 大略側岸甕立 如截剛鐵 疏鑿所未施 石棧縈線 人行凜凜 雪浪蕩過馬腹 亦傍海之偉觀也

**通川門巖** 海濱故多奇石 獨此勁瘦嵌空 戴松而對峙 一何蒼峭 颯颯風帆之過 騎驢者興亦活矣

**叢石亭** 橫豎欹整 石皆六稜 何法象也 意者太陰玄精 流注於巨鰲之背而爲此倚薄乎 付之溟涬可矣 四柱屹然 鯨濤所莫撼 劣哉砥柱之捍河也

**侍中臺中秋泛月** 溶溶漾漾 藏湖於淺山之內 其勝於軒豁呈露者多矣 臺之得勢 眞於中秋翫月爲宜 船如鴉軋 人如吟嘯 來往南北垞之間 畫哉畫哉

**龍貢寺洞口** 雲木蒼蒼 澗道多曲折 意有佳寺而不知所從入 宵哉

**入山圖** 昔蘇老泉率二子東遊 留名於所過山川 闕焉千古 乃有此競爽耶 試看其輿馬聯翩 鶴髮鬆邁 杖及於飛虹橋上 奇哉奇哉 堪畫堪畫 彩服之傍 挾一虎頭 蓋有意思 斯固露頂翁之弄影自奇者耶

**禾積淵** 巉巖其屹 棲鶻之壁 灣環其黑 伏龍之澤 偉哉造化 融結費力 禱旱則應 雲輒觸石 東州之原 秋稼山積

**三釜淵** 巨壁玄潭 三級成瀑 龍蟄于下 土棲于上 庶同其德 而終竊其號而已耶

**花江栢田** 松栢栢耶 鬱然成林 來往其下 自爲古今 陳陶之事 有慨于心

**花江縣齋** 鶴啄訟庭 鳬泳官池 闐然槐柳之蔭 簾閣若無人 非勾漏則旌陽 蓋僊吏所在也

**唐浦觀魚** 莽蒼栢陀間 煙戶漁浦之點綴 如許小鋪叙 乃與楓岳同帖耶 植梨橘柚 取其各有味亦可

**舍人巖** 谷雲釜淵之側 自謂杖鞋殆遍 而猶漏此境耶 竊然煙霞之窟中 作雷雪久矣 猶存舍人之號 發其慳而摸其勝 今之康樂 在花江矣

**水泰寺洞口** 密林重靄 遮掩琳宮 可知是夏月景象 而如將幻入雪天 皓然舊菴林也 則乍洒粉瀟而就矣 更著一隻與懶殘對爐試一喝 百淵洞主胡爲乎五聖山中

**亭子淵** 丹青善幻 固能摸奇稱眞 而亦或轉醜爲妍 按圖而澄潭翠壁 安知非烏石黃流乎 且取遊目意足 不須問某丘某亭也

**谷雲龍水亭** 山靜似太古 日長如小年 此先生所嘗愛誦 而自家冥寂之意 殆與希夷同夢矣 至於龍水之建 則又將以喧遣喧 蓋各有妙理焉 後之來遊者 其亦會麼

**松風亭** 華陰巖洞之賁 極於松風亭而無加矣 快哉架虛 無與同賞矣 此先生之所嘗欣慨 而不敏者永抱恨焉 自今以往 日供洒掃於軒檻 庶乎躡清塵而承下風矣

**疊石臺** 谷雲九曲 此爲源頭 水鳴鏘然 石如重壁 自花溪泝洄而上凡十餘里 先生之杖屨未嘗示疲矣

**七僊洞** 九曲之中 何所不蘊 而猶視七僊爲外府者 豈不以各擅其勝 難爲長弟而然耶 繼述有責 吾將作亭於其間

## 『順菴集』

**第4卷 詩 水城錄 起辛亥 宰杆城時 臨書口占 寄鄭元伯 叡** 是日讀朱書 追憶公美 元伯講論舊事 爲之悵然 側栢壇前雪霰稠 燈檠爐火夢悠悠 霽翁揮塵歸玄夜 謙老談經已白頭

**第4卷 詩 朽橋四錄 起癸丑 贈元伯之任清河** 不忿元章老且顛 練煤隨處載行船 謙翁此去

無長物 義易惟殘舊講編 其二 嶺人應識使君名 桃李山開舞鶴迎 踏盡棠沙遙喚艇 竹西樓上有吾兄

### 『東谿集』

#### 第6卷 題跋 題十二兄 迪命 所藏海嶽圖屏

**斷髮嶺望金剛** 阿難見如來 一身咲徹如琉璃 猶然渴仰剃落 況驀見此曇無竭 萬二千衆 一時齊涌白銀千尺體乎

**長安寺** 每恨金剛無口 不能喝迴俗駕 向者虹橋之圯 抑山靈之所以罰之也 若曰爾爲我閹 胡不誰何之乎

**萬瀑洞** 削萬束玉以爲峰 碎千斛珠以爲瀑 是造物者自暴其無盡藏也

**內山搃圖** 楚之南 少人而多石 天地毓靈 石與人 恒爭其分數 吾欲搃碎此萬二千金剛峰 博取萬二千金剛漢矣

**海山亭** 瞻在前者褰裳之海 忽在後者斷髮之山 而欲以朱墨俗 務居是間 吾謂爲高城守者 須辦二祖墻壁心而可也

**佛頂臺觀瀑** 此石公記中語耳 所謂雷奔海立 孤擎萬仞 忽焉橫曳 東披西帶者 爲得膚得骨得趣 試問諸瀑

**百川橋出山** 須知海上有一金剛 畫中又有一金剛 畫中人胸中 又各有一金剛 觀畫者百千萬人眼中 一一各有一金剛 所謂芥子須彌 毛端寶刹 非誑語也

**三日浦** 桑下三宿 猶爲禪門之戒 況三日留連於淡粧濃抹 比西子之湖耶 四僊於是乎損三年道心矣

第6卷 題跋 題鄭元伯扇書石鍾山 爲柳煥文作 赤壁二賦神矣 而入畫 苦無殊觀 不如石鍾記之句句奇境 顧俗師陋於取舍耳 此筆稍不稱境 特命題不腐 可喜 余欲元伯快讀記文三百遍 然後更下筆也

### 『青莊館全書』

第32卷 清脾錄[一] 李槎川 先王卽祚五十年來 詩人 當以李槎川秉淵 爲第一名家 其詩如花園 林雀蹴仍墜 池魚吹却還 落花無箇力 顛倒魚鳥間 午雨 破蕉喧未已 寒雀坐無聊 一陣蕭蕭雨 西牕度寂寥 松澗 地僻無官路 林疎有杵聲 偶然籬落側 深感旅遊情 流水村村得 斜陽樹樹生 居人不相識 一鳥自來鳴 秋雨 雨來如昨夜 仍不啓山扉 雙雀對無語 一花孤自輝 詩多懷友作 事有入秋違 江漢維舟在 終須共拂衣 楓亭 楓亭今日事 數子只相知 花落驢摩樹 巾斜客俯池 石牀涼可臥 蒲席醉須移 太守來扶病 猶令小酒隨 浦村 濱海看人俗 相逢頗朴蒼 網穿包飯食 船破補橋梁 撲地青泥屋 遮風白葦牆 生涯嵐瘴裏 嫁娶盡漁郎 寄酬洪君則 一道江花萬柳間 旁邊着得小官閒 白雲僧去三申寺 殘雪民畊五臘山 公退讀書斜日盡 病餘高枕早春還 故人近有詩相寄 海上昆盧欲共攀 其散句 如西風如急雨 寒月照歸鴻 人戶白雲起 官家黃鳥聲 老木纔生意 初禽已解言 峽雨元無信 秋灘自善鳴 一抹澹烟生 灌木半邊寒 日照孤村棧 道夕陽窺貊國 江城殘角到春川 微涼官道照蕎麥 薄暮人家鳴草虫 斜陽忽復生千嶂 古木蒼然絕四隣 黃鳥不來淹海國 辛夷初落送秦僧 局邊眠鷺聞棋散 硯外遊鱗飲墨過 皆雅品清致

淵韶堪誦 中國之士有評曰 出入唐宋 槎川之時 畫則趙觀我齋榮祜 鄭謙齋黻 俱居白岳下 文采風流 輝映一時

## [부록 2-3] 출전목록에도 없고 인용되지도 않은 간행본 기록

### 『后溪集』

第2卷, 詩 題四帖小屏五絕 一帖各三首 一道泉垂簾 茲爲第幾釜 金君看瀑處 何不着茅宇 仙洞元多雨 吾曾敗興還 墨雲將瀑沫 猶濕畫中山 山色翠如許 瀑聲當更嘖 依稀聲色裡 終似怨幽人 右三釜淵 昔歲貪觀瀑 危橋判命過 今知圖畫穩 臥見十層多 銀河元一派 孰作層層瀨 應是海風來 吹斷不成帶 千秋佛頂瀑 二鄭發揮之 後有元伯畫 前有季涵詞 右佛頂臺 湖山元活畫 更有出藍圖 試見傳神妙 那分真幻湖 嵐翠峯重六 煙波湖四灣 應同南石到 又泛小蓬山 山在仙何去 紅亭寂寞開 當由丹字污 再不世間來 右三日浦 自古湖山案 舊官難捨處 如何蘇長公 不畫西湖去 無限淡濃態 全和煙靄來 人疑饞太守 載返侍中臺 一葉橫江面 知吾晚泛時 如聞持檝妓 齊唱進船詞 右侍中臺

第4卷, 詩 寄清澗亭主人李子平 秉成 李嶽下弟伯 一時爲名樓主人 復以山海之響作元白 誇勝舊唱 得意之遊 足以續瀛嶽帖矣 今於賦清澗之命 略述仙家盛事 以致余羨慕之意 非敢強題黃鶴詞 列二崔之間也 竹西清澗兩相誇 未必錢湖美若耶 瀛海樓臺皆蜃閣 神仙伯仲是茅家 須徵鄭畫完前帖 敢以吾詩映舊紗 更有雲根傍突兀 此亭增重荷皇媧

### 『芸窩集』

第2卷 詩 送河陽使君鄭元伯 歎 東風吹五馬 嶺路已春天 桃李今潘岳 詩文舊鄭虔 官清百里小 養備一城專 滿縣皆山水 丹青入妙詮

第4卷 詩 余宰丹丘也 鄭元伯寫玉筍於便面以贈行 又寄此絕 以要續畫 手裏龜潭玉筍峰 使君舟外翠千重 鳳棲樓閣神仙事 願得吾人水墨濃

第5卷 題跋 題李一源海嶽傳神帖 昔余未及覩金剛而見是帖也 不省畫之真與贗 欲循其跡而評焉 則殆近乎坐譚龍肉矣 今余覩金剛 大而嵒峯 細而幽秘 余之目殆窮然後歸而見是帖 則眞箇是一金剛 不知煙雲之爲粉墨 粉墨之爲煙雲 何其與余向所覩者不爽也 儘奇矣 況余宰花江 其園池槐柳之幽 三年在几案側 而此畫尤一一寫出眞面目 實品之妙者也 然峽中無鶴 而着以青田之一玄裳 豈王摩詰雪中芭蕉意耶 時甲辰中夏 洪君則題于紫閣峰之芸香巢

### 『恕菴集』

第2卷 題跋 李一源所藏鄭生散輞川十二景圖帖跋 一源之宰花江 有兩箇好因緣 見金剛面目一也 得鄭君此帖二也 一源之爲吏而能事事不俗如此 余觀此帖 用筆極不俗 遂當爲寶藏 以一源之不知畫 不合有此帖 特以其詩之妙堪配此畫耳

第2卷 題跋 李一源所藏鄭生散金剛圖帖跋 只爲年來想像過 却愁看面減聞名 此僕送人入山詩也 蓋是時 僕未及見山 而方讀農巖遊記及三淵諸詩 故其言如此 今此詩之作 已六年矣 而

猶不得一見 今觀元伯此卷 凡其摩挲想像 融神於泓曄之會者 又進乎詩與記矣 未知他日入山 見山真面目 當復無減於見畫時否 卷中諸名勝 如三淵翁是七入山者 載大是一入者 元伯是見而畫之者 一源是樂之甚而使人畫之者 獨余未之一遊 後之覽是卷者 賞諸公之高致 而謂余爲不樂山遊可矣 然終能免好名之病者 亦必僕也

### 『東園集』

第2卷 詩 鄭元伯 散 河陽別語 冷官三載一疲驢 得意今朝五馬車 此去甘能致養 向來顧石本無儲 民猶古朴治宜簡 君自慈詳事不疎 朱墨閒時應筆興 滿城桃李果何如

第6卷 詩 壁掛鄭元伯萬瀑圖 夢想金剛三十年 臥遊今日得犁然 縱橫急瀑龍騰壑 森簇羣尖玉插天 松蓋高低飛雪霰 巖臺左右起雲烟 深齋五月不知暑 靜夜水聲生枕邊

### 『槎川詩抄』

上卷 詩 觀鄭元伯霧中畫 毗盧峯 吾友鄭元伯 囊中無畫筆 時時畫興發 就我手中奪 自入金剛來 揮灑太放恣 白玉萬二千 一一遭點毀 驚動九淵龍 亂作風雨起 偃蹇毗盧峯 不肯下就紙 三日惜出頭 深深蒼霧裏 元伯却一笑 用墨略和水 傳神更奇絕 薄雲如蔽月 興闌投筆起 與山聊戲爾 顧我且收去 郡齋窓中置 正陽寺 諸洞松杉次第平 迢迢寒意坐崢嶸 古今天畔孤臺色 朝暮樓中萬壑情 遠嶺忽橫斜日照 秋峯皆立一鍾鳴 高寒不敢懸燈宿 獨倚藍輿却下行 禾積淵 中水穹磯峙 窺臨色黝然 人言蟠怪物 誰敢唾深淵 激浪微微涌 生雲細細懸 使君來祭雨 有路古松邊 三釜淵 遠欲看來處 捫蘿俯石門 相承玄澤勢 直下翠屏根 龍伏長當沫 僧尋或到源 如聞玉女語 爭就洗頭盆 又上釜落中釜 波濤下釜懸 仰看全一壁 誰得竅三淵 太始思龍攫 千年驗溜穿 無由問造化 倚杖獨茫然 松風亭觀漲 夜拔千年木 橫來峽水端 小橋平被沒 危石苦爭湍 一雨眞爲力 高亭却與看 老僧年八十 初見此波瀾 又峯頭掛斷雨 白水入山家 古峽轉雷響 青林生浪花 忽喧浮小犢 時喜得奇槎 正好明朝踏 平堆兩岸沙

上卷 詩 贈元伯 蒼蒼筆力入關東 雲水微茫百紙空 醉墨不收騎馬去 海山眞本在胸中

上卷 詩 太古亭 與元伯 公美 拈杜律韻 楓亭今日事 數子只相知 花落驢磨樹 巾斜客倚池 石床涼可臥 蒲席醉須移 太守來扶病 猶令小酒隨 又此處非初到 初來亦可知 入門由獨檜 清宅以三池 巖壑留樽久 雲巒與席移 城中塵萬斛 一點不能隨

### 『晉菴集』<sup>7)</sup>

第7卷 題跋 書鄭元伯 散 畫帖 今之好畫者 未有不蓄元伯畫者 獨余無有焉 然余聞人之有元伯畫 則必借而觀之 於是 元伯之畫 日聚乎吾前 余未嘗求元伯畫 而元伯未嘗不爲余畫之 近聞有貴游子弟 求元伯畫 元伯爲之畫一帖 其人又求一屏 元伯適醉甚 以縑投地曰 吾畫其可再得乎 其人憮然不敢請 然則余之得元伯畫者 何但再焉而已乎 元伯何其獨厚於余也 今觀

7) 장진성(2006), 「정선과 수응화(酬應畫)」, 『항산 안휘준 교수 정년퇴임 기념 논문집』, 사회평론, 283-284쪽; 김가희(2018), 「정선과 이병연의 ‘시거화래지약(詩去, 畫來之約)’ : 《경교명승첩(京郊名勝帖)》을 중심으로」, 『겸재정선미술관 학술자료집』 10, 겸재정선미술관, 24쪽에서 재인용



汝精所藏帖 實元伯得意筆也 遂書此 以謝元伯焉

**第7卷 題跋 鄭元伯畫帖跋** 世之論畫者 必以元伯之畫 配三淵之詩 蓋國朝之畫 至元伯而始極其變 然元伯之畫出 而世之學元伯者 無元伯筆力 而徒竊其法 畫之衰 未必不自元伯始 余嘗謂今之爲詩者 不步趨三淵 則人爭怪之 而無三淵學識 而徒學其奇 故適足以受其病 詩之衰 三淵又不得辭其責矣 吾非不服三淵 而惡世之羣爲三淵者也 聞者 皆以爲狂言 今觀元伯畫 聊書此 以戒夫學元伯者

### 『雷淵集』

**第7卷 詩 聞鄭老元伯 散 登仙 畫家亦絕矣 爲賦長句** 鄭老丹青妙天東 三山七澤羅胸中 萬種生姿媚空素 彩毫落紙驚化翁 看君筆意在象外 直假峩洋聲絲桐 世間哀樂不到眉 秋星燦燦清雙瞳 得我新詩信手作 數紙杳冥空翠色 牛背醉翁不知路 一谿流水松花落 是誰披蓑五老頂 去入丹丘蹋白石 青松兩樹砢崖古 崖首飛泉飲一鹿 更誰携琴香爐北 來坐金流第二曲 自言九十無所求 得君一語萬事足 已覺苦心向千古 更惜老手難重得 噓之恐飛握恐滅 坐臥顧眄當拱壁 朝暉稍發雲處白 暝禽欲擲煙中碧 乃知造化在墨妙 復歎知者惟我獨 且待新修山水記 與我爲三老茆屋 只今飄泊去長安 南窺溟海東出關 幾處題詩仍憶君 丹霞明月夢中看 客裏逢人一揮涕 言翁厭世作青山 嗚呼鄭老今安有 千歲一遇良亦難 君不聞渭川脩竹賤如蓬 不及簣簞碧一竿 色相興滅誰復數 惟有此竹留人間

**第8卷 雜詩 ○詞令 觀鄭元伯畫山水五疊 各題小詞 其一** 誰謂畫無聲 百谷飛泉一林清 磬試看缺月峯頂 **其二** 疎木斷岸 細雨長洲 簫笠一老 暝踏孤舟 爾家何在 不如且歸 于以曬網于彼竹籬 **其三** 蒼壁下白石好 古松畔流水好 一茅亭無亦可 一棋局有亦可 **其四** 大男南陀釣魚去 小男西崦采藥去 薄暮歸來 古渡寒煙 遙村澹樹 老子窓間睡罷 攬衣獨眄 興在白鷗沙紅蓼岸 **其五** 誰勸汝彈琴 汝莫彈琴 孤舟蘆葦前 獨夜徘徊 鍾子期竟不來 鴻鴈歸盡後 江天沈寥時 小絃廉折 大絃寥朗 却恐興極生悲 汝莫彈琴 天地是汝形骸 水月是汝肺腑 汝抱汝膝 冥兮窈兮 又安知何者爲商何者爲羽 汝莫彈琴

### 『牧谷集』

**第1卷 詩 李生鼎燁 袖示鄭河陽 散 嘉陵山水畫帖 次帖中李一源 秉淵 韻 題贈** 綠水明堤柳拂舡 依依籬落幾人停 江山恰是黃驪岸 不信嘉陵有此亭<sup>8)</sup>

---

8) 진흥섭(2002), 위의 책, 209쪽

[부표 3] 『근역서화징』 외에 전하는 정선의 작품 목록<sup>9)</sup>

n	시기	화첩명	작품명	소장처	비고
1	1711년	《신묘년풍악도첩》	금강내산총도 金剛內山總圖	국립중앙박물관	
2			단발령망금강산 斷髮嶺望金剛山		
3			문암관일출 門岩觀日出		
4			백천교 百川橋		
5			보덕굴 普德窟		
6			불정대 佛頂臺		
7			사선정 四仙亭		
8			시중대 侍中臺		
9			옹천 瓮遷		
10			장안사 長安寺		
11			종석정 叢石亭		
12			피금정 披襟亭		
13			해산정 海山亭		
14	1712년	《해악전신첩》	21폭	·	×
15	1712년	《망천십이경도첩》	·	·	×
16	1716년	《북원수회도첩》	북원수회도 北園壽會圖	개인소장(손창근)	
17	1716년	·	회방연 回榜宴	개인소장	
18	1719년	·	금강산도 金剛山圖	·	×
19	1719년	《사계산수도첩》	춘경산수 春景山水	호림박물관	
20			하경산수 夏景山水		
21			추경산수 秋景山水		
22			동경산수 冬景山水		
23			설경산수 雪景山水		
24			초충 草蟲		
25	1721년	《사시첩》	·	·	×
26	1723년	·	망천도 輞川圖	·	×
27	1725년	《해악사경》	·	·	×
28	1726년	《영남첩》	6폭	·	×
29	1726년	《교남명승첩》 <sup>1</sup>	58폭	간송미술관	
30	1730년경	·	귀래정도 歸來亭圖	홍익대학교박물관	
31	1731년	·	서교전의 西郊餞儀	국립중앙박물관	
32	1731년	·	천년송지도 千年松芝圖	·	×
33	1731년	·	대관령도 大關嶺圖	·	×
34	1732년	·	황려호 黃驪湖	개인소장	
35	1734년	·	금강전도 金剛全圖	삼성미술관 리움	
36	1734년	·	쌍계입암 雙溪立岩	간송미술관	
37	1734년경	·	도산서원 陶山書院	간송미술관	
38	1734년경	·	성류굴 聖留窟	간송미술관	
39	1734년경	·	해인사 海印寺	국립중앙박물관	
40	1734년경	·	내연삼용주 內延三龍湫	국립중앙박물관	

41	1737년	《백남병풍》	구담 龜潭	고려대학교박물관	
42	1737년	·	한벽루 寒壁樓	간송미술관	
43	1737년	《사군첩》	6폭	·	×
44	1737년경	·	단사범주 丹砂泛舟	간송미술관	
45	1738년	《관동명승첩》	망양정 望洋亭	간송미술관	
46			수태사동구 水泰寺洞口		
47			시중대 侍中臺		
48			월송정 越松亭		
49			정자연 亭子淵		
50			죽서루 竹西樓		
51			천불암 千佛岩		
52			청간정 淸澗亭		
53			총석정 叢石亭		
54	1738년	·	만폭동 萬瀑洞		×
55	1738년	·	절강추도도 浙江秋濤圖		×
56	1739년	·	청풍계도 淸風溪圖		
57	1739년	·	육상묘 毓祥廟	개인소장	
58	1739년	《서원첩》	옥동척강도 玉洞陟岡圖	개인소장(정환국) 삼성미술관 리움	
59	1739년		풍계임류도 風溪臨流圖	개인 소장	
60	1740년		서원소정도 西園小亭圖	정충기 (리움기탁보관)	
61	1740년		서원조망도 西園眺望圖	모암문고	
62	1740년	·	삼승정 三勝亭	개인소장(정환국)	
63	1740년	·	삼승조망 三勝眺望	개인소장 호암미술관	
64	1740년경	·	백악산 白岳山	간송미술관	
65	1740년경	《고사산수첩》	춘경산수 春景山水	개인소장	
66			하경산수 夏景山水		
67			추경산수 秋景山水		
68			동경산수 冬景山水		
69	1740년경	·	세검정 洗劍亭	개인소장	
70	1740 - 1741년	《경교명승첩》 상권	공암층탑 孔巖層塔	간송미술관	
71			광진 廣津		
72			금성평사 錦城平沙		
73			녹운탄 綠雲灘		
74			독백탄 獨柏灘		
75			독서여가 讀書餘暇		
76			목먹조돈 木覓朝墩		
77			빙천부신 氷遷負薪		
78			안현석봉 鞍峴夕峰		
79			우천 牛川		
80			삼주삼산각 三洲三山閣		
81			석실서원 石室書院		
82			설평기려 雪坪騎驢		

83			소악후월 小岳候月		
84			송과진 松坡津		
85			암구정 狎鷗亭		
86			양화환도 楊花喚渡		
87			종해청조 宗海聽潮		
88			행호관어 杏湖觀漁		
89			개화사 開花寺		
90			고산상매 孤山賞梅		
91			사문탈사 寺門脫蓑		
92			양천현아 陽川懸衙		
93			어초문답 魚樵問答		
94			은암동록 隱岩東麓		
95	1740 - 1741년	《경교명승첩》 하권	인곡유거 仁谷幽居	간송미술관	
96			시화환상간 詩畫換相看		
97			장안연우 長安烟雨		
98			장안연월 長安烟月		
99			창명낭박 滄溟浪泊		
100			척재제시 惕齋題詩		
101			홍관미주 虹貫米舟		
102			행주일도 滄州一棹		
103			만폭동 萬瀑洞		
104			문암 門岩		
105			백천동 百川洞		
106	1740년경	《해악팔경》	삼일포 三日浦	간송미술관	
107			장안사 長安寺		
108			정양사 正陽寺		
109			총석정 叢石亭		
110	1740 - 1745년경	·	박생연 朴生淵	간송미술관	
111	1740 - 1750년경	·	산월도 山月圖	개인소장	
112	1740 - 1750년경	·	필운대상춘 弼雲臺賞春	개인소장	
113			과전전계 瓜田田鷄		
114			등롱웅계 燈籠雄鷄		
115			서과투서 西瓜偷鼠		
116			석죽호접 石竹胡蝶		
117	1741년	《화훼영모화첩》	자위부과 刺蝟負瓜	간송미술관	
118			초전용서 草田春黍		
119			하마가자 蝦蟆茄子		
120			홍요추선 紅蓼秋蟬		
121			우화등선 羽化登船		
122	1742년	《연강임술첩》	웅연계람 熊淵繫纜	개인소장(허완구)	
123			우화등선 羽化登船		
124			웅연계람 熊淵繫纜		
125	1742년	《양천팔경첩》	개화사 開花寺	개인소장(김충현)	
126			귀래정 歸來亭		

127			낙건정 樂健亭		
128			선유봉 仙遊峰		
129			소악루 小岳樓		
130			소요정 逍遙亭		
131			양화진 楊花鎭		
132			이수정 二水亭		
133	1742년경	·	기려심매 騎驢尋梅	간송미술관	
134	1742년경	·	노송대설 老松戴雪	간송미술관	
135	1742년경	·	송림한선 松林寒蟬	간송미술관	
136	1743년경	·	고사관폭 高士觀瀑	간송미술관	
137	1743년경	·	운송정금 雲松停琴	간송미술관	
138	1744 - 1746년경	·	임천고암 林川鼓岩	간송미술관	
139	1743년	《영동십승첩》	·	·	×
140	1744년	·	해악도 海嶽圖	·	×
141	1744년	《삼청첩》	11폭	·	×
142	1744년	·	사천초상 槎川肖像	·	×
143	1744년	·	사천노촉재 槎川老燭齋	·	×
144	1746년	《퇴우이선생진적첩》	계상정거 溪上靜居	삼성문화재단	
145			무봉산중 舞鳳山中		
146			인곡정사 仁谷精舍		
147			풍계유택 楓溪遺宅		
148	1746년경	《금강팔화첩》	·		×
149	1747년	《해악전신첩》	금강내산총도 金剛內山總圖	간송미술관	
150			단발령망금강산 斷髮嶺望金剛山		
151			당포관어 唐浦觀漁		
152			만폭동 萬瀑洞		
153			문암 門岩		
154			문암관일출 門岩觀日出		
155			불정대 佛頂臺		
156			사선정 四仙亭		
157			사인암 舍人岩		
158			삼부연 三釜淵		
159			시중대 侍中臺		
160			용궁동구 龍貢洞口		
161			장안사 長安寺		
162			정자연 亭子淵		
163			충석정 叢石亭		
164			칠성암 七星巖		
165			피금정 披襟亭		
166			해산정 海山亭		
167			화강백전 花江栢田		
168			화적연 禾積淵		
169	1747년경	《검재화》	고성문암 高城門岩	개인소장(이학)	
170			구룡연 九龍淵		
171			단발령 斷髮嶺		

172			비로봉 毘盧峰		
173			옹천 瓮遷		
174			해금강 海金剛		
175			혈망봉 穴望峰		
176	1747년	·	풍악도 楓岳圖		×
177	1748년	·	해암 海崑		×
178	1748년	·	삼청동 三清洞		×
179	1748년경	·	세검정 洗劍亭	국립중앙박물관	
180	1749년	《사공도시품첩》	고고 高古	국립중앙박물관	
181			광달 曠達		
182			경건 勁健		
183			기려 綺麗		
184			비개 悲慨		
185			섬농 纖濃		
186			소야 疏野		
187			실경 實境		
188			웅혼 雄渾		
189			위곡 委曲		
190			유동 流動		
191			자연 自然		
192			전아 典雅		
193			정신 精神		
194			진밀 縝密		
195			초예 超詣		
196			충담 沖澹		
197			침착 沈着		
198			표일 飄逸		
199			함축 含蓄		
200			호방 豪放		
201			형용 形容		
202	1750년경	·	고사관란 高士觀瀾	간송미술관	
203	1750년경	·	금강내산 金剛內山	간송미술관	
204	1750년경	·	노자출관 老子出關	간송미술관	
205	1750년경	·	동정악루 洞庭岳樓	간송미술관	
206	1750년경	·	오류풍월 梧柳風月	간송미술관	
207	1750년경	·	취성도 聚星圖	개인소장	
208	1750년경	·	방차만리별업 訪車萬里別業	개인소장	
209	1750년경	·	폭포영지 瀑布靈芝	개인소장	
210	1750년경	·	풍악전면 楓岳全面	간송미술관	
211	1751년	·	갑곶산수도 甲串山水圖	동아대학교 박물관	
212	1751년	·	인왕제색도 仁王霽色圖	삼성미술관 리움	
213	1752년	·	삼각창취 三角蒼翠		×
214	1752년	·	백운동도 白雲洞圖 <sup>2</sup>		×
215	1752년	·	내연산삼룡추도	삼성미술관 리움	

			內延山三龍湫圖		
216	1752년	·	백악도 白嶽圖 <sup>3</sup>		×
217	1752년	·	남산도 南山圖 <sup>4</sup>		×
218	1752년	·	오이당 五怡堂圖 <sup>5</sup>		×
219		《진채 팔첩》 <sup>6</sup>			×
220	1752-1757	《수서가장》 <sup>7</sup>			×
221	1755년	《장동팔경첩》	대은암 大隱岩	국립중앙박물관	
222			독락정 獨樂亭		
223			백운동 白雲洞		
224			창의문 彰義門		
225			청송당 聽松堂		
226			청풍계 淸風溪		
227			청회각 淸暉閣		
228			취미대 翠微臺		
229	1755년	·	산수도 山水圖	고려대학교박물관	
230	1755년경	·	금강대 金剛臺	간송미술관	
231	1757년	·	청송당 聽松堂	국립중앙박물관	
232	18세기	·	귀거래도(무고송이반환) 歸去來圖(撫孤松而盤桓)	검재정선미술관	
233	18세기	·	귀거래도(문정부이전로) 歸去來圖(問征夫以前路)	검재정선미술관	
234	18세기	·	귀거래도(운무심이출수) 歸去來圖(雲無心以出岫)	검재정선미술관	
235	18세기	·	기려도 騎驢圖	부산박물관	
236	18세기	·	산수도 山水圖	검재정선미술관	
237	18세기	·	조어도 釣魚島	검재정선미술관	
238	18세기	·	피금정 披襟亭	검재정선미술관	
239	18세기	·	청풍계도 淸風溪圖	검재정선미술관	
240	18세기	·	청하성읍도 淸河城邑圖	검재정선미술관	
241	18세기	·	청풍계지각도 淸風溪池閣圖	동아대학교박물관	
242	18세기	·	초강청효 楚江淸曉	선문대학교박물관	
243	18세기	《검재화첩》	고성문암 高城門岩	재단법인 우학문화재단	
244			구룡연 九龍淵		
245			단발령 斷髮嶺		
246			비로봉 毘盧峯		
247			옹천 甕遷		
248			총석정 叢石亭		
249			해금강 海金剛		
250			혈망봉 穴望峰		
251			무이도가 武夷棹歌		
252			방화수류 傍花隨柳		
253			부강풍도 涪江風濤(濤)		
254			염계상련 濂溪賞蓮		
255			온공낙원 溫公樂園		
256			자현잠농 柘軒蠶農		
257			화외소거 花外小車		
258			횡거영초 橫渠泳蕉		

259			고사선유도 高士船遊圖		
260			고산방학 孤山放鶴		
261			구룡폭 九龍瀑		
262			금강내산전도 金剛內山全圖		
263			기러귀가도 騎驢歸家圖		
264			기우취적도 騎牛吹笛圖		
265			노재상한취도 老宰相閑趣圖		
266			만폭동 萬瀑洞		
267			부강정박 涪江停泊圖		
268			부자묘노회도 夫子廟老櫓圖		
269	·	《검재화첩》	압구정 押鷗亭	왜관수도원	
270			야수소서 夜授素書		
271			연광정 練光亭		
272			일출송학도 日出松鶴圖		
273			청우출관 靑牛出關		
274			초당춘수 草堂春睡		
275			풍우기려도 風雨騎驢圖		
276			함흥본궁송 咸興本宮松		
277			행단고슬 杏壇鼓瑟		
278			화표주도 華表柱圖		
279			횡거좌정 橫渠坐庭		
280	·	·	금강내산 金剛內山	고려대학교박물관	
281	·	·	의금부 義禁府	일암컬렉션	
282	·	·	정양사 正陽寺	간송미술관	
283	·	·	정양사 正陽寺	국립중앙박물관	
284	·	·	통천문암 通川門岩	간송미술관	
285	·	·	풍악내산총람 楓岳內山總覽	간송미술관	
286			관월 觀月		
287			기려도 騎驢圖		
288			다람쥐		
289			도강도 渡江圖		
290	·	《검현신품첩》	만폭동 萬瀑洞	서울대학교박물관	
291			미법산수 米法山水		
292			산수 山水		
293			산수 山水		
294			혈망봉 穴望峰		
295			경복궁 景福宮		
296			기려도 騎驢圖		
297			계도 鷄圖		
298			독좌도 獨坐圖		
299			독행도 獨行圖		
300			동소문 東小門		
301	·	《백납병풍》	동정추월도 洞庭秋月圖	고려대학교박물관	
302			망양정도 望洋亭圖		
303			목멱산 木覓山		
304			묘도 猫圖		
305			소상야우 瀟湘夜雨		
306			수하고사도 樹下高士圖		



307			수하관폭도 樹下觀瀑圖		
308			수하담소도 樹下談笑圖		
309			심화춘감도 尋花春酣圖		
310			쌍송공경도 雙松空亭圖		
311			여산폭포도 廬山瀑布圖		
312			이어도 鯉魚圖/魚躍圖		
313			총석정 叢石亭		
314			책장도 策杖圖		
315			춘경도 春景圖		
316			활화풍경도 活畫風景圖		
317	.	《고화첩》	불정대 佛頂臺	서울대학교 규장각	
318			유점사 楡岾寺		
319			강천모설 江天暮雪		
320			소상야우 瀟湘夜雨		
321			동정추월 洞庭秋月		
322	.	《소상팔경》	어촌낙조 漁村落照/漁村夕照	개인소장	
323			연사만종 煙寺晚鐘		
324			원포귀범 遠浦歸帆		
325			산시청람 山市晴嵐		
326			평사낙안 平沙落雁		
327			백악산 白岳山		
328			수성동 水聲洞		
329			세심대 洗心臺		
330			인왕산 仁王山		
331			청송당 聽松堂		
332			청하동(자하동) 清霞洞		
333			청풍계 淸風溪		
334			취미대 翠微臺		
335	.	.	강천모설 江天暮雪	국립중앙박물관	
336	.	.	고슴도치	선문대학교박물관	
337	.	.	귀거래도(면정가이이안) 歸去來圖(昞庭柯以怡顏)	삼성미술관 리움	
338	.	.	귀거래도(원일접이성취) 歸去來圖(園日涉以成趣)	삼성미술관 리움	
339	.	.	귀거래도(무고송이반환) 歸去來圖(撫孤松而盤桓)	삼성미술관 리움	
340	.	.	귀거래도(장유사우서주) 歸去來圖(將有事于西疇)	삼성미술관 리움	
341	.	.	개구리	국립중앙박물관	
342	.	.	금강전도 金剛全圖	간송미술관	
343	.	.	낙산사 洛山寺	국립중앙박물관	
344	.	.	내연삼용추 內延三龍湫	삼성미술관 리움	
345	.	.	노백 老柏	삼성미술관 리움	
346	.	.	노송영지 老松靈芝	송암미술관	
347	.	.	도봉추색도 道峯秋色圖	한양대학교박물관	
348	.	《소상팔경도》 중	동정추월 洞庭秋月	개인소장(일본)	
349	.	.	대은암 大隱岩	간송미술관	
350	.	.	만폭동 萬瀑洞	선문대학교박물관	

351	·	·	무송관산 撫松觀山	간송미술관	
352	·	·	무송관폭 撫松觀瀑	국립중앙박물관	
353	·	·	박연폭 朴淵瀑	개인소장	
354	·	·	부아암도 負兒岩圖	경희대학교박물관	
355	·	·	백천동 百川洞	선문대학교박물관	
356	·	·	비로봉 毘盧峯	개인소장(손창근)	
357	·	·	비로봉 毘盧峯	일암컬렉션	
358	·	·	백학관도 白鶴觀圖	국립중앙박물관	
359	·	·	사직송 社稷松	고려대학교박물관	
360	·	《이첩병풍》 중	산수 山水	서울대학교박물관	
361	·	·	산수도 山水圖	서울대학교박물관	
362	·	《8폭병풍》 중	산수도 山水圖	국립중앙박물관	
363	·	《8폭병풍》 중	산수도 山水圖	국립중앙박물관	
364	·	·	산수도 山水圖	건국대학교박물관	
365	·	·	산수도 山水圖	홍익대학교박물관	
366	·	·	산수도 山水圖	순천대학교박물관	
367	·	·	산수도 山水圖	순천대학교박물관	
368	·	·	산수도 山水圖	순천대학교박물관	
369	·	·	삼일호 三日湖	간송미술관	
370	·	·	서교전의 西郊餞儀	선문대학교박물관	
371	·	·	선인도해 仙人渡海	국립중앙박물관	
372	·	·	설중기려도 雪中騎驢圖	순천대학교박물관	
373	·	·	소년행시의도 少年行詩意圖	국립중앙박물관	
374	·	·	소요정 逍遙亭	간송미술관	
375	·	·	송하문사도 松下問師圖	국립중앙박물관	
376	·	·	송하한담 松下閑談	국립중앙박물관	
377	·	·	수성동 水聲洞	간송미술관	
378	·	·	쌍도정 雙島亭	개인소장	
379	·	·	양화담설 楊花踏雪	경기도박물관	
380	·	·	여산폭포도 廬山瀑布圖	국립중앙박물관	
381	·	·	옥류동 玉流洞	삼성미술관 리움	
382	·	·	웅계도 雄鷄圖	한양대학교박물관	
383	·	·	유연견남산도 悠然見南山圖	국립중앙박물관	
384	·	·	이수정 二水亭	간송미술관	
385	·	·	절강관조도 浙江觀潮圖	개인소장(일본)	
386	·	·	정문입설 程門立雪	국립중앙박물관	
387	·	·	직절당도 直節堂圖	국립중앙박물관	
388	·	·	좌간운기시 坐看雲起時	개인소장	
389	·	·	청송당 聽松堂	간송미술관	
390	·	·	청심정 淸心亭	순천대학교박물관	
391	·	·	청풍계 淸風溪	간송미술관	
392	·	·	청풍계도 淸風溪圖	고려대학교박물관	

393	·	·	추림정거 楸林停車	국립중앙박물관	
394	·	·	취미대 翠微臺	개인소장	
395	·	·	통천문암 通川門岩	개인소장	
396	·	·	과교설후 灞橋雪後	국립중앙박물관	
397	·	·	하경산수도 夏景山水圖	국립중앙박물관	
398	·	·	산수도 山水圖	개인소장(김병희)	
399	·	《홍운당첩》 중	한강독조도 寒江獨釣圖	경남대학교박물관	
400	·	·	해산정 海山亭	간송미술관	

9) 현전하는 정선의 작품은 겸재정선미술관(2015), 『겸재정선 현존작품 조사집』 참고; 실전(失傳)하는 작품은 최완수(2009), 위의 책 참고; 현전하지 않는 작품은 비고란에 × 표시하였다. / [부표 3] 내 번호 1. 《교남명승첩(嶠南名勝帖)》의 도판 58개 각각의 제목은 최완수(1988), 「겸재진경산수화고」, 『간송문화』 35, 한국민족미술연구소, 59쪽 참고; 2. 이창급, 「順興異蹟記」, 『一臥翁遺稿』, 1285쪽; 3. 이창급, 「題白嶽圖」, 「題」, 『一臥翁遺稿』, 1532쪽, 4. 이창급, 「題南山圖」, 「題」, 『一臥翁遺稿』, 1533쪽, 5. 이창급, 「感書五怡堂障子後」, 「題」, 『一臥翁遺稿』, 1538쪽; 6. 이창급, 「書畫」, 「雜錄」, 「遺誠十則」, 『一臥翁遺稿』, 1658쪽, 7. 이창급, 「水西家藏跋」, 「跋」, 『一臥翁遺稿』, 1544쪽

## 참 고 문 헌

### 1. 원전

- 『承政院日記』  
姜世晃 編(1713-1791), 『豹菴遺稿』  
權 燮 編(1671-1759), 『玉所稿』  
金光國 編(1727-1797), 『石農畫苑』  
金性澈 編(1765-1830), 『東國文獻』  
金時敏 編(1681-1747), 『東圃集』  
金安老 編(1481-1537), 『龍泉談寂記』  
金祖淳 編(1765-1832), 『楓臯集』  
金昌業 編(1658-1721), 『老稼齋集』  
\_\_\_\_\_ 編(1658-1721), 『稼齋燕行錄』  
金昌協 編(1651-1708), 『三淵集』  
南有容 編(1698-1773), 『霽淵集』  
南泰膺 編(1687-1740), 『聽竹漫錄』  
朴準源 編(1739-1807), 『錦石集』  
朴趾源 編(1737-1805), 『熱河日記』  
徐居正 編(1420-1488), 『東文選』  
\_\_\_\_\_ 編(1420-1488), 『四佳集』  
\_\_\_\_\_ 編(1420-1488), 『筆苑雜記』  
成 俔 編(1439-1504), 『慵齋叢話』  
辛敦復 編(1692-1779), 『鶴山閑言』  
申靖夏 編(1680-1715), 『怨菴集』  
沈 粹 編(1624-1693), 『松泉筆談』  
吳世昌 編, 『槿域書彙』, 1911  
\_\_\_\_\_ 編, 『槿域畫彙』  
\_\_\_\_\_ 編, 『槿域書畫徵』, 啓明俱樂部, 1928  
吳 瑗 編(1700-1740), 『月谷集』  
元景夏 編(1698-1761), 『蒼霞集』  
俞彦述 編(1703-1773), 『松湖集』  
劉在建 編(1793-1880), 『里鄉見聞錄』  
李圭象 編(1727-1799), 『并世才彥錄』  
李肯翊 編(1736-1806), 『燃藜室記述』

李德懋 編(1741-1793),『靑莊館全書』  
李德壽 編(1673-1744),『西堂私載』  
李秉成 編(1675-1735),『順菴集』  
李秉淵 編(1671-1751),『槎川詩抄』  
李天輔 編(1698-1761),『晉菴集』  
李夏坤 編(1677-1724),『頭陀草』  
一 然 編(1206-1289),『三國遺事』  
趙龜命 編(1693-1737),『東谿集』  
趙榮祐 編(1686-1761),『觀我齋稿』  
趙裕壽 編(1663-1741),『后溪集』  
趙熙龍 編(1789-1866),『壺山外史』  
千壽慶 編(미상-1818),『風謠續選』  
洪重聖 編(1668-1735),『芸窩集』

<中國>

楊逸 編,『海上墨林』  
張康 編(1685-1760),『國朝畫徵錄』  
張彥遠 編(815-879),『歷代名畫記』  
陳文述 編(1771-1843),『畫林新詠』  
彭蘊璨 編,『歷代畫史彙傳』

<日本>

故朝岡興禎 編,『古畫備考』

## 2. 단행본

- 강세황 편저; 김종진 국역, 『표암유고』, 지식산업사, 2010.
- 검재정선기념관, 『검재정선 : 검재정선기념관 개관기념 학술도록』, 검재정선기념관, 2009.
- \_\_\_\_\_, 『검재와 미술인문학 연구』, 검재정선기념관, 2013.
- \_\_\_\_\_, 『검재정선 현존작품 조사집』, 2015.
- 김창업 편; 권영대 송항룡 이장우 국역, 『연행록선집 04. 연행일기』, 한국고전번역원, 1982.
- 심재 편; 신익철 외 국역, 『(교감역주) 송천필담 : 세상을 살펴 붓 가는대로 기록하다.』, 보고서, 2009.
- 예술의 전당, 『葦滄吳世昌 : 亦梅·葦滄 兩世의 學問과 藝術世界』, 예술의 전당, 1996.
- \_\_\_\_\_, 『葦滄 吳世昌 : 전각·서화감식·컬렉션』, 예술의 전당, 2001.
- 월간미술 편, 『세계미술용어사전』, 중앙일보사, 1989.
- 유홍준·이태호, 『조선후기 그림과 글씨: 仁祖부터 英祖年間の 書畫』, 학고재, 1992.
- 이규상 편저; 민족문화사연구소 한문분과 국역, 『18세기 조선인물지 : 并世才彦錄』, 창작과비평사, 1997.
- 이승연, 『위창 오세창』, 이회문화사, 2000.
- 일연 편저; 신태영 국역, 『원문과 함께 읽는 삼국유사』, 한국인문고전연구소, 2012.
- 조희룡 편; 實是學舍 古典文學研究會 국역, 『趙熙龍全集』, 한길아트, 1999.
- 진홍섭, 『韓國美術史 資料集成』, 一志社, 1987-2003.
- 최완수, 『검재 정선』, 현암사, 2009.
- 한국기록학회, 『기록학 용어사전』, 역사비평사, 2009.
- 한국미술연구소, 『국역 근역서화징』, 시공사, 1998.

## 3. 논문

- 고연희, 「조선후기 山水紀行文學과 紀遊圖의 비교연구 - 農淵그룹과 鄭澈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9.
- 김가희, 「鄭澈과 李春躋 家門의 繪畫 酬應 研究 : 《西園帖》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1.
- \_\_\_\_\_, 「정선과 이병연의 ‘시거화래지약(詩去, 畫來之約)’ : 《경교명승첩(京郊名勝帖)》을 중심으로」, 『검재정선미술관 학술자료집』 10, 검재정선미술관, 2018.

- 김두현, 「『사자청선생안』과 조선시대 사자관의 신분」, 『고문서연구』 24권, 한국 고문서학회, 2004.
- 박은순, 「금강산도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4.
- 오연주, 「조선후기 문인들의 정선 회화에 대한 화평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0.
- , 「정선의 작가상에 대한 조선시대 문인들의 계파별 평가」, 『검재와 미술 인문학 연구』, 검재정선기념관 학술 연구지 창간호 1, 2013.
- 유승민, 「검재 정선의 회화를 비평하는 층위들-《司空圖詩品帖》과 《謙齋鄭散畫帖》의 비평을 중심으로」, 『검재정선미술관 학술자료집』 10, 2018.
- 이규복, 「原文對照를 통해 본 『槿域書畫徵』의 誤謬考察」, 서예학연구 제 7호, 2005.
- 이동국, 위창의 학예 연원과 서화사 연구, 『葦滄 吳世昌: 亦梅·葦滄 兩世의 學問과 藝術世界』, 예술의전당, 1996.
- 장진성, 「정선과 수응화(酬應畫)」, 『항산 안휘준 교수 정년퇴임 기념 논문집』, 사회평론, 2006.
- 정병설, 「완월회맹연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7.
- 최완수, 「秋史書派考」, 『간송문화-간송미술관개관10주년기념논문집』, 한국민족문화연구소, 1981.
- , 「검재정선수화고」, 『간송문화』 35, 한국민족미술연구소, 1988.
- 홍선표, 「吳世昌과 『槿域書畫徵』, 『국역 근역서화징』, 시공사(1998)」, 『미술사논단』 7, 1998.
- , 「한국미술사학의 초석: 오세창(1864-1953)의 『근역서화징』」, 『葦滄 吳世昌』, 예술의전당, 2001.

#### 4. 홈페이지

- 국립중앙도서관 <http://www.nl.go.kr> (최종접속일: 2019.7.25.)
- 규장각 <http://kyujanggak.snu.ac.kr> (최종접속일: 2019.7.25.)
- 장서각 <http://jsg.aks.ac.kr> (최종접속일: 2019.7.25.)
-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최종접속일: 2019.7.25.)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최종접속일: 2019.7.25.)

## Abstract

# An Archival Study of 『權域書畫徵』

Gihyeon Lee

Archiv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Geunyokseohwajing*(『權域書畫徵』) is a book summarizing 1,118 records of human information and related documents from the period from the Three Kingdoms Period to the modern times in order to record the name, act and history of calligraphers and painters in Korea in the early 20th century. It has been evaluated that it has high data value because it is first book that lists its sources so that it can be referred to later.

However, this book is composed of fragments of the documentary records selected and evaluated by Se-ch'ang O(吳世昌). Therefore, it is inevitably different from the original record in the process of quoting. In this study, we attempted a logistic approach to objectively analyzing the citation style of the data through comparing and contrasting the text and original records of this book in order to understand how Se-ch'ang O was faithful to the original records.

First, I examined the basics of organizing records through an analysis of the entire component of the book. It was arranged in a chronological order focusing on calligraphers and painters and the author made an index so that records can be easily found. And I analyzed the way in which the authors describes the records related to each calligrapher and painter through analysis of narrative contents. The description was based on the editing system presented by the author in the explanatory notes. The details of the



description consist of the name and personal information, the field of art to be distinguished, the supporting evidence for it, the work or the statement, and the personal opinion of the author.

In order to understand the standard for selection of the records that the author summarized and described, the citation type and level of the book are as follows. The object was centered on the painters mentioned in the cited book that summarized the painters and calligraphers.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 quotation book that summarizes the paintings is diverse, and the second and third citation data about the painters are various. Among the empirical data, the total quoted literature tends to reveal the level of the painter. The literature data quoted by the excerpt is mainly an anecdote related to the painter or his paintings. In the case of a poem on a painting that does not reveal the painter's name, the author cites only the title of the work and omits the poem. In summary, the author cites only the part of the picture that reveals anecdotes and anecdotes about the picture. Therefore, it can be seen that the criterion that the authors select the records to be described in this book is based on paintings rather than paintings.

And finally, I analyzed the publishing situation of the material cited in this book by the author and compared it with manuscripts and published materials that the author did not cite. As a result, there were some materials that were not present or published in the manuscripts of the day and were not available to the author, but there were some materials that were available at that time but not cited by the author.

Among the editions that the author did not cite, there were important information that showed the work of the artist in vivid detail. These findings led to the conclusion that the purpose of this book was not to collect all the materials of the calligraphers and painters but to sort out all the calligraphers and painters.

Therefore, as a result of analyzing citation type and citation data, it is found that the data quoted by the authors of this book are limited to limited information of individual artist's conduct and history. There are, however, some painters in this book that do not remain elsewhere but remain in this

book only. These are cited data that can not be confirmed as a present, individual opinions of the author, and materials without reference. Because the cited data that can not be confirmed as the present is not conveyed, the data in this book has value as a literature standard instead of the original record at present.

**keywords** : *Geunyokseohwajing*(『槿域書畫徵』), reference, citation data, calligraphers and painters, acquisition, arrangement, description

***Student Number*** : 2016-24492